

2005 연구보고서-11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자활공동체(참여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황 정 임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 송 치 선 (연 구 원)

전 지 현 (위촉연구원)

발 간 사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의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로 ‘여성빈곤’이 채택되면서, ‘여성빈곤’은 국제회의에서 주요 정책과제이며 사업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IMF 이후 ‘빈곤의 여성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여성빈곤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참여정부는 2004년 11월 ‘일을 통한 복지탈출’을 빈곤정책의 기조로 발표하면서 다양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도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자활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통로로 위치지어져 있습니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실시해온 외국의 경험을 보면,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빈곤여성들에게 노동을 강제할 뿐 빈곤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을 통한 복지탈출’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환경 속에서, 자활공동체가 보다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 경험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성빈곤 문제는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할 주제이며, 성인지적인 정책대안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이 요구됩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실제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를 위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담당 실무자 여러분, 정책개발 워크샵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탈수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현행 자활경로에서 볼 때, 자활공동체가 보다 빈곤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자활공동체가 빈곤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자활공동체가 보다 빈곤여성들의 탈빈곤 정책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1) 자활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 정책동향 정리
- 2) 빈곤여성의 자활공동체 참여 현황 파악
- 3) 빈곤여성의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활 경험 분석
- 4) 현행 자활공동체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
- 5)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활공동체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자활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결과 검토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자활정보센터, 사회연대은행 자료 등 정리

2) 조사연구 - 면접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해당 자활공동체 담당 실무자

- 자활공동체 담당 실무자 조사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험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완적으로 실시함.

- 조사대상 선정

- 자활공동체 현황 자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토대로 선정

- 임태영(2004), 이문국(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분류방법 활용

① 생산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활공동체 A형, ② 간병/가사 도우미 등 준전문직 집단의 사단법인 형태를 띠는 자활공동체 B형, ③ 영농/폐자원재활용 등 서구사회적 기업모델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외부시민단체 혹은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의 법적·실질적 책임자가 되고 다수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자활지원기업형, ④ 식당/홈패션 등 점포창업의 형태를 띠는 개인자활창업형

- 조사규모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총 19명(1개당 2-3인의 참여여성 조사), 실무자 8명

- 조사지역 : 서울경인지역

- 조사내용

- 반구조화된 질문지 사용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 자활사업 참여 과정, 자활공동체로의 준비 및 전환 과정, 자활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자활공동체 준비/전환/운영 과정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의 내용과 이에 대한 만족도,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적 요구사항 등

- 담당 실무자 : 자활공동체 준비/전환/운영 과정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프로그램, 현행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공동체의 향후 방향 및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 빈곤여성의 자활공동체 참여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질적

정보를 제공함.

- 다양한 자활공동체 유형별 참여여성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의 입장에 초점을 둔과 동시에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담당 실무자 양측을 통해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한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선정에 한계점을 가짐.

-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참여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선행 연구의 분류기준을 적용해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실제 자활현장에서는 유형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사례수에 제한이 있음.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 경험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시간적 흐름과 함께 하는 동태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였음.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양적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충분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함.

□ 연구결과

1) 자활사업 참여 과정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대다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험을 갖고 있음.

- IMF로 인한 본인 혹은 배우자의 실직, 건강상의 이유, 이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노동시장에 재진입 혹은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 대다수는 자활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고 영세민이라는 점 등 때문에 사업 참여를 주저하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참여하게 됨.

2)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과정

가) 참여여성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대다수가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꺼려했음.
 - 자활근로사업단에서의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 조건부 수급자로서 제공받았던 각종 급여 중단’으로 이해하면서 전환 이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자활공동체가 성공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었음.
 - 또한 전환과정에서 실무자들로부터 소득향상에 대한 전망,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실무자들의 독려와 지원으로 힘을 얻기도 했음.

나) 실무자

- 자활공동체 전환 과정에서 참여여성들이 토로하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음.
 - 자활공동체 전환을 위해 사업 성공 가능성, 전환 가능 인력규모 등을 타진하고, 참여자들과의 회의 및 상담을 통해 사업전망과 성공가능성 등을 제시하면서 전환을 독려함. 그러나 많은 경우 사업단 운영기간 종료되었다는 식의 이유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었음.
 - 현행과 같은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 어렵다고 봄. 자활공동체 전환에 따른 실제적인 소득상승 효과 및 안정된 사업기반 구축 등과 같은 전환을 독려할 만한 유인 도구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임.

3)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 경험

가)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임금과 노동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임금수준이 상승되지 않았고, 조건부 수급자를 유지하거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수입 유지, 이에 대한 불만과 자괴감이 큼.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에 있으며, 수익을 남기기 위해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함.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돌봄과 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 있음. 건강 악화됨. 시장내 다른 경쟁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 지원이 끊겨서 부담감이 가중됨. 인건비 지원 기간이 부족함. 영업 및 홍보 비용이나 전략이 부재함.
기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 초기에는 기관으로부터 홍보, 영업,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러한 기관의 지원에 대해 만족, 필요성 있다고 봄. 그러나 점차 그 관계를 분리하면서 회계, 임금배분 정도의 선에서만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음. 기관의 지원을 받을수록 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과의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일'이라는 생각에 의욕을 느끼고 있음. 불안정한 소득과 건강 악화로 불안감 가지고 있음. 자활공동체로 전환했으나 자활근로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음.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갖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함.
실무자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진입형 소규모 공동창업 형태의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함. 참여자의 인적자본이나 제도적 지원의 총량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나)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	
임금과 노동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급제 형태로 운영됨. • 노동강도가 자활근로사업 때 보다 강화되었으나, 일자리 및 소득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만족함. •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 만족함.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역할과 일과의 갈등, 가사일과의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건강 악화됨. •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간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진통과 갈등이 있기도 함.
기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 세팅을 하는 경우로 구분됨. 후자의 경우에는 기관을 든든한 후원자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함.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전환 당시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로 생각하며 곧 안정감을 가짐. • 모두가 열심히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낌. • 수익내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보람이 있음. •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재는 노동시장에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있음.
실무자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회적 기업은 자활공동체의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이 적절하며,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봄. -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의 상에 대한 논의 없이 도입할 경우 자칫 일반기업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다)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임금과 노동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일한만큼 소득을 갖고 가는 형태 ● 공동체 전환 이후 노동강도는 강화된 반면, 소득수준의 향상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자활근로사업 때 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짐. ●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 소득이 나아지는데, 자녀양육이나 가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 있음.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돌봄 역할간의 갈등, 특히 12시간, 24시간의 근무형태로 인해 일과 돌봄 역할간의 갈등이 심각함. ● 가사노동과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 부담으로 힘들. ● 건강 악화됨. ● 낮은 사회적 인식, 매번 낮은 파견처로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 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노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큼. ● 적립금 사용에 있어서 인력파견형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함. ● 교육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받을 경우 하루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기 힘들.
기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상에 따라 시장진입형과 제도화형으로 구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형: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대표)를 세우고, 기관과의 분리 계획을 통해 운영주체(대표)에게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분리 시도함. - 제도화형: 기관에서 직접 관장. 참여자들은 운영회의, 월례회의 등을 통해 기관과 의견교류 및 의사결정을 함.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및 소득수준에 대해 불안함. ● 현재 시장의 수요가 많지만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음. ● 노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을지 걱정임. ● 현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함.
실무자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여성의 인적자본 등 현실적 여건이나 향후 사회적 수요를 고려할 때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사회적 인식도 낮고, 노동강도도 쉼고, 저임금 노동시장에 속해 있고, 파견업이므로 노동환경에 대한 통제나 개입이 어려우며 재해나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어려움이 많음. ● 조선희, 남성 도우미 등 다른 집단들과의 시장 경합, 소비자들의 고급화된 서비스 요구에 대해 참여여성의 인적자본이 갖는 한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제약이 있음.

4) 현행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참여여성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 지속, 각 자활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 필요 - 전문적인 창업 지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필요 - 다양하고 미래 발전 전망이 있는 업종 개발, 운영 및 경영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지급보다 더 연장하는 등 실전 경험을 높이는 방식의 지원 필요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사업의 경우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제도화 -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강도 완화되는 형태로의 근무형태로 재편 필요 ●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을 위한 인간관계 프로그램 필요 ●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심리정서적인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의 여건 개선 및 참여여성의 인적자본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파견형의 경우 노동시장의 강도 높은 근무여건 개선 필요 - 기술과 지식 습득과 함께 비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시장진입형 소규모 공동창업 형태의 자활공동체 탈피, 다양한 자활공동체를 반영하는 정책적 상 재정립 ● 빈곤여성의 자활 저해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 및 이를 위한 자활인프라 확충 ●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빈곤여성을 위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직종 개발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 마련 ● 자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자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 참여여성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

□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자활공동체 유형별 참여여성의 자활경험 비교

- 자활공동체의 유형별로 현재의 임금/소득수준, 향후 전망(특히 시장지향성 여부), 일의 내용 등에 따라 참여여성이 느끼는 자활경험에서 차이점이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도 있었음.

-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 시장내 일반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이 큼. 실제 자활공동체 전환 후 시장에서의 소득은 기대 이하였고 이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이 큼. 전환당시에도 소득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는데 기대 이하의 소득으로 인해 이것이 현실화됨.

- 시장내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기술력이나 자본력 등에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하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이라는 자부심 속에 이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도 함.

-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 참여여성이 직접적으로 시장경쟁에서의 생존여부에 대한 부담이 적음. 노동강도는 강화되었지만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로 평가함. 자활공동체 전환 당시의 불안감이 만족감, 안정감으로 전환됨.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간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내부갈등도 있었음.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 현재 시장진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조합형 공동체와 유사하나 공동생산, 분배가 아니라 본인이 일하는 만큼 소득을 벌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 있음.

- 12시간, 24시간 일하는 강도 높은 근무여건과 계속적으로 일감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서 오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있음.

- 일을 하면서 다른 유형과 달리 가사, 간병 등의 일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면 낮은 일자리로 파견된다는 두려움, 사고 발생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큼.

-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요가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근무여건의 특성상 노후에도 계속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음.

• 이렇게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자활경험의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 높아진 노동강도, 이로 인한 건강문제 악화, 일과 돌봄역할간의 갈등 등의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음.

2) 자활공동체 개선을 위한 참여여성과 실무자의 정책 수요 비교

• 참여여성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개선의 초점을 두는 쪽에 비중을 둔 반면, 실무자들은 제도 전반, 자활공동체 전반에서부터 실천전략에 이르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 언급함.

• 참여여성의 경우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집중됨. 창업지원, 업종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경영/회계 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 습득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 등이 제안됨.

- 인력파견형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근무여건 개선과 공공영역에서의 제도화를, 사회적 기업형의 경우 구성원간의 스킨십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다고 했음.

• 실무자들의 경우

- 첫째, 시장진입형 소규모 공동창업 형태의 현행 자활공동체는 탈피해야 하고 새로운 자활공동체의 정책적 상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함. 현행 자활공동체가 시장 진입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탈수급을 유도하기 보다는 재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대안적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공존함.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과 도입이전에 심도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공존하였음.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요와 일자리 창출의 용이성 등 시장성에 대한 가능성과 사회적 인지도, 노동여건의 열악함, 성별분업 고착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일자리로서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교차하고 있었음.

- 둘째, 빈곤여성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가족안에서의 역할로 인한 이중부담, 심리정서적인 문제 등 빈곤여성들의 자활을 제약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개입과 이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사례관리인력 등 자활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보다 전문적인 단위에서 빈곤여성의 특성, 사회적 수요가 창출되는 경쟁적이지 않은 영역에서의 직종 발굴의 필요성 제기함.

- 셋째, 자활공동체 운영을 위한 제반 인프라-전문적인 사후관리체계, 자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자활공동체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범부처차원의 협력체계 마련 등-을 제안함.

□ 정책제언

1)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사례를 통해 본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 정책 개선방향

- ▶ ‘자활공동체 = 빈곤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조성을 위한 자활공동체의 생성 경로 다각화 및 맞춤형 자활공동체 지원 정책 수립
-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생산자 역할과 재생산자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하기 위한 지원 정책 추진
-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반 기초여건 조성 및 자활공동체 지원인프라 역량 강화

2) 세부 정책과제

<p>자활공동체 모델의 다각화 및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특성 고려한 자활공동체 운영지침 마련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안정적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와 간병, 보육 등의 공공영역 제도화와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모색
-------------------------------------	---------------------------------------------------------------------------------------------------------------------------------------------------------------------------------------------------------------------------------------------------------------------------------------------------------------------------------------------------------

<p>자활공동체 모델의 다각화 및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입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관련 해외사례의 빈곤여성에 대한 자활 효과 분석 실시 - 현재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성인 지적 분석 실시 ●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형 공동창업을 고려한 여성 적합 업종 개발 - 광역자활, 사회연대은행 등을 활용한 공동창업형 자활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지원 및 성인지적 접근 강화 - 인건비 지원등 현행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및 성인지적 제도 보완책 강구
<p>돌봄역할 등 빈곤여성의 자활 여건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등 돌봄역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화 ● 빈곤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 강화 ● 개별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을 통한 기초보장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활용한 빈곤여성 자활지원네트워크 구축
<p>자활공동체를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지원 위한 성인지적 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공동체 관련 성별 분리 통계 구축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인력의 빈곤여성 자활 지원 위한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빈곤여성 자활을 위한 지원 확대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6	
가. 문헌연구 / 6	
나. 조사연구 / 7	
다. 전문가 자문 및 정책개발 워크숍 / 9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0	
II. 선행연구	15
1. 자활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 17	
가. 국내 자활사업과 여성 관련 논의 / 17	
나. 국외 자활사업과 여성 관련 논의 / 19	
2.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및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 / 24	
가.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24	
나. 자활공동체 관련 최근 정책 동향 / 35	
다. 자활공동체 및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 / 40	
3. 소결 / 59	
III. 조사결과 분석: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 경험	63
1. 조사결과 분석 개요 / 65	
2. 빈곤여성의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활 경험 / 66	
가.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6	
나.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활 모색 / 68	
다.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 경험 / 79	

3. 현행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 129	
4. 소결 : 요약과 논의 / 156	
가. 조사결과 요약 / 156	
나. 논의 / 166	
IV. 자활공동체를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73	
1. 정책방향 / 175	
2. 세부 정책과제 / 180	
참고문헌	189
V. 부록	195
부록 1. 부표 / 197	
부록 2. 질문지 / 198	
부록 3. 연구참여 동의서 / 203	

표 목 차

<표 II-1>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연도별 변화 내용	36
<표 II-2> 최근 자활 관련 제·개정 법률안 중 자활공동체 관련 내용	38
<표 II-3> 업종별 자활공동체 사업단 및 참여자 수(인정, 미인정 포함)	42
<표 II-4> 2003년 상반기 자활공동체 업종별 운영 적자	45
<표 II-5> 2004년 하반기 주요사업 1인당 월평균 인건비	46
<표 II-6> 자활공동체 현황(2005년 9월 30일 현재)	56
<표 II-7>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현황(2005년 9월 30일 현재)	58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7
<표 III-2>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조사결과 정리	93
<표 III-3>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 조사결과 정리	109
<표 III-4>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조사결과 정리	128
<표 III-5> 현행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175
<표 IV-1> 자활공동체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188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자활공동체 추이	41
<그림 II-2> 2003년 상반기 자활공동체 업종별 영업매출수입 총액	44
<그림 II-3> 업종 중분류별 자활공동체 참여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	46
<그림 II-4> 연도별 자활공동체 참여자 구성	47
<그림 II-5>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참여자 분포(2004년 하반기)	48
<그림 II-6> 자활공동체 업종별 참여자수 비율 분포와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 분포 비교	50
<그림 II-7>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 참여여성 수	51
<그림 II-8> 2003년 대비 2005년의 자활공동체 전체 참여자와 여성 참여자의 감소 추세선 비교	52
<그림 II-9> 연도별 자활공동체 참여자 성별 추이	53
<그림 II-10> 업종별 여성 참여자 분포	54
<그림 II-11> 주요업종 남녀 구성비(2003년 상반기)	54
<그림 II-12> 주요업종 남녀 구성비(2004년 하반기)	55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근로연계복지, 일을 통한 복지의 정책기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사업이 이를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5).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시행초기부터 여성 참여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빈곤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 도구로 주목을 받았고, 실제 자활사업 시행과 함께 빈곤여성과 자활사업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행 자활사업은 단계적인 자활경로를 설정하고 그 마지막 단계로 자활공동체를 위치지으면서 자활근로를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탈수급, 자활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 중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적 일자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노대명 외, 2001).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60-70%가 여성이고 현행 자활사업 안에서 자활근로를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탈수급, 자활을 도모한다고 볼 때, 자활공동체가 보다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자활공동체는 시장진입을 목표로 시도되었던 1970년대 생산공동체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김영삼 정부때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제안되어 시범운영되었던 자활지원센터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자활지원사업의 형태로 제도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로 제도화되면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도화된 자활공동체가 빈민지역주민들의 의식화·조직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빈곤층의 자활

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였던 생산공동체의 이념적 지향, 역사적 기원과 무관하게 조건부수급자가 일정 정도 참여해야 하는 공동창업의 형태로 자활공동체를 규정함으로써 이전의 생산공동체 개념에서 형식적인 측면만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현행 자활공동체 역시 공동체의 기술수준, 경영능력, 자본력 부족 등 오랫동안 생산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제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까지 복합적으로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신명호·김홍일, 2002;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3).

이러한 자활 현장에서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입이 어렵고 대다수의 빈곤층이 저학력 비숙련노동자란 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활공동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자활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을 위한 움직임까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가 빈곤여성들이라고 할 때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의 논의는 이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고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빈곤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는 현재 어떤 모습이고, 지금까지 자활공동체가 실제 이들의 자활에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실제 제도가 목적하는 탈수급, 자활을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적어도 가시화되고 있는 논의의 중심은 자활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험과 인식, 이들에게 미칠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경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자활공동체가

빈곤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정책 도구로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활공동체에 참여해서 자활을 시도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실제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활공동체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자활공동체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빈곤여성의 자활을 도모하는 정책도구로서의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빈곤여성들의 자활공동체 참여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자활을 위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활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결과 검토를 통해 자활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현행 자활공동체 정책 내용과 문제점,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을 정리하였다.

자활공동체에 초점을 둔 여성주의적 논의는 없었지만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성주의적 논의를 통해 자활공동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활사업안내를 토대로 현행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에서 발간한 자료, 자활공동체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발간된 자료들 중심으로 각각의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활공동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였다.

자활공동체 및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보건복지부, 자활정보센터 등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근거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자활공동체 관련 현황과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현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들과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담당 실무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자활공동체에서의 경험을 조사하고, 해당 자활공동체 실무자의 조사결과를 통해 이들의 경험을 보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활공동체 담당 실무자들을 통해 현행 자활공동체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자활공동체를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자활지원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빈곤여성과 실무자에 대한 면접조사결과를 토대로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활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활공동체 개선을 위한 자활지원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전반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활공동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여성의 실태 및 정책제안을 다루고 있는 자료들과 자활사업 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 한국자활후견기관 협회, 자활정보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활사업안내 등 자활공동체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참여하여 정리하였다.

나. 조사연구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담당 실무자를 면접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조사인력 및 조사기간 등을 고려

하여 서울 경기지역으로 한정했다. 조사 규모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우 한 자활공동체 당 2-3인을 면접조사해서 총 19명의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2명을 제외한 17명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자활공동체 실무자는 담당 자활공동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총 8명의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 표집 방법

본 연구에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발간하는 자활공동체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실무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학계 등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대상 표집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서 조사대상을 표집하고자 했다.

첫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발간하는 자활공동체 현황 자료 검토를 토대로,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중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여성들이 많은 자활공동체를 우선적으로 표집할 경우 특정 업종, 특정 유형의 자활공동체로 집중될 수 있고, 이미 자활현장은 다양한 자활공동체 유형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여러 자활공동체의 유형을 보여주고 각 유형별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의 자활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있는 자활공동체 분류방법을 적용하여 표집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류방법은 엄태영(2004)와 이문국(2004)이 제시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분류방법으로, ① 생산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활공동체 A형, ② 간병/가사 도우미 등 준전문직 집단의 사단법인 형태를 띠는 자활공동체 B형, ③ 영농/폐자원재활용 등 서구사회적 기업모델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외부시민단체 혹은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의 법적·실질적 책임자가 되고 다수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자활지원기업형, ④ 식당/홈패션 등 점포창업의 형태를 띠는 개인자활창업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서 전문가로부터 자활공동체를 추천받아서 목

록을 작성한 후 자활공동체가 속해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연락해서 조사 협조를 부탁했고, 그중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담당 실무자 면접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자활공동체에 한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방법

가)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3명의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5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2005년 2-3월에 걸쳐서 이뤄졌다. 사전조사에서는 문헌검토를 통해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현황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내용 구성 등을 검토하였다. 일대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우 2인 이상을 동시에 면접하기도 했다. 조사대상자들이 편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면접결과는 녹음하였다.

나) 본조사

본조사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담당 실무자의 조사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조사순서는 참여여성을 실무자보다 먼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자활공동체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현황 및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본 조사는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이뤄졌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참고로 해서 조사 당시의 여건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며 조사대상자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면서 진행되었다. 또한 조사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 비밀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조사는 주로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 사무실에서 진행했으며 되도록 면접자와 면접대상자가 조용하게 면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사무실 혹은 파견처에서 조사한 경우 일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조사를 진행해서 간혹 조사의 흐름이 끊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한 사례당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였다.

본 조사는 별도의 조사원을 고용하지 않고 연구진에 의해서 직접 이뤄졌다. 조사에 앞서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지침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고, 조사진행 과정에서도 수시로 조사 진행 상황 및 조사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점 등을 나누는 회의를 가지면서 조사의 일관성과 엄격성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

4) 조사내용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담당 실무자 각각에 대해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참여여성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참여자 카드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에게는 자활사업 참여 과정, 자활공동체로의 준비 및 전환 과정, 자활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자활공동체 준비/전환/운영 과정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의 내용과 이에 대한 만족도,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담당 실무자에게는 자활공동체 준비/전환/운영 과정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현행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공동체의 향후 방향 및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 및 정책개발 워크숍

전문가 자문은 회의와 개별 방문 자문, 서면 자문 형태로 이뤄졌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사회학, 사회복지학, 자활 현장의 실무자 등을 모시고 전반적인

연구 방향과 내용,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분석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개별 방문 자문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선정 기준 및 조사대상 추천, 최근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쟁점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자활 현장의 실무자 및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면 자문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계 등 연구자와 정부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정책개발 워크숍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활공동체를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등 연구자 및 현장 실무자를 모시고 이뤄졌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빈곤여성의 자활공동체 참여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져 왔지만 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여기에서 자활공동체를 별도로 다루어 심도있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연구도 대다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현재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현황 자료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나 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초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에서도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활공동체 참여자 중 여성들에 대한 자료는 자활공동체 전체 참여자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정도이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참여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 이들의 자활 경험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경험과 인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다양한 자활공동체 유형별 참여여성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의 입장에 초점을 둔과 동시에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과 담당 실무자 양측을 통해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한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자활공동체 관련 논의는 주로 제도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져 왔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과 이들에게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가 달성하려는 탈빈곤, 자활의 목표가 정책대상인 참여여성의 경험과 정책 수요에 근거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자인 실무자의 현장 경험과 유리된다면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때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담당 실무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자활지원정책을 수립할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선정에 한계점을 갖는다.

엄태영(2004)은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연구는 보다 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질적방법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아직 이들에 대한 기초 자료도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적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질적이고 깊이있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한된 연구조건에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험을 최대한 많이 도출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의 다양한 자활공동체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자활 현장에서 대표

적인 전문가에게 조사대상을 추천받기는 했으나, 충분히 포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참여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선행 연구의 분류기준을 적용해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실제 자활현장에서는 유형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사례수에 제한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활공동체 유형구분을 활용해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경험을 분석하였는데, 조사결과를 통해 파악된 바에 따르면 실제 자활현장에서는 자활공동체 유형간에 완전한 구분이 어려웠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자활공동체가 하나의 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는데, 향후에는 보다 많은 수의 사례를 확보해서 자활현장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 세분화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경험에 대한 질적 정보를 축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유형별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서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 경험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시간적 흐름과 함께 하는 동태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자활근로에서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데 제도적으로 약 1-2년 정도의 소요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나 감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에서부터 자활공동체의 생성, 변화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한 동태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면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겠지만 연구기간이나 연구인력 등의 물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제한점이 있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험을 종단적으로, 횡단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넷째,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양적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분석 자료의 한계로 충분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연구수행기간 및 연구인력, 연구비 등 물적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통계자료를 통한 2차 자료분석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관련 데이터(2002, 2003) 자료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데이터에 포함된 자활공동체 참여자 수가 미미하여 분석대상으로 적절치 못하여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최근에 자활공동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조사결과 발표 및 자료공개 시점이 맞지 않아서 이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활정보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들과 사회연대은행의 여성가장가구주 창업지원사업에 포함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현황 등을 토대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현황을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II



선행연구

1. 자활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17
2.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및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	24
3. 소결	59

Two horizontal decorative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r is a thin line with a fine grid pattern. The bottom bar is a thicker, solid black bar with a dense grid pattern.

선행연구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를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 검토를 통해 정리하고,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및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1. 자활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가. 국내 자활사업과 여성 관련 논의

그동안 자활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였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전무하다시피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여성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그동안 전반적인 자활사업과 여성빈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60-70%가 여성이고, 참여여성들의 대다수가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들로 인해 생활이 안정되고 본인들의 건강상태나 자녀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일자리를 찾기 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남식 외, 2001; 박영란 외, 2002; 채혜영, 2002). 이들은 급여액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는 가능하고,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것 보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통해 얻는 금전적 보상 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란 외, 2002). 또한 자활사업 참여여성의 연령대에 따라 중고령층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자활사업을 안정된 일자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30-40대 참여여성의 경우는 보다 나은 기술과 경험을 습득해서 보다 확실한 생계수단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실제로는 본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도적 지원이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유인책이 미흡해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해영, 2002).

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행 자활사업에 대해 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자활사업안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여성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가운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숙진 외, 2001; 이숙진, 2002; 강남식·백선희, 2001; 강남식 외, 2002). 이숙진(2002)은 자활사업이 빈곤계층에게 일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생계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그동안 노동영역에서 가치절하된 혹은 평가되지 않았던 일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자활사업의 성별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즉, 자활사업이 시장영역에서의 틈새시장으로 전통적인 돌봄과 보살핌 노동의 영역에 여성들을 재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역할의 연장으로 비춰져서 여성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결과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성별분업과 여성노동의 질적 저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활사업 안에서 여성의 비가시적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남식·백선희(2001)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업단이 간병인, 봉제, 도시락 등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저학력, 저기술, 중년층이 많은 빈곤여성에게 특별한 인적자본 개발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연장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을 고착화시키고 가정에서 하는 역할을 가정밖에서도 강요받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연속선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벗어나 미래의 노동수요나 시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박영란 외, 2002, 재인용). 김영미(2002) 역시 여성들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숙진(2002)은 또한 자활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가족내 역할이라는 현실적 조건에 의해 일할 권리가 배제되고 있고, 양육과 간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참여여성들의 일할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들이 수행해

왔던 가족내 역할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통해 자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황미영(2002) 역시 여성자활의 전략은 자녀양육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 자녀의 보호비용이 노동시장에서 빈곤여성들의 임금을 상쇄시키지 않도록 최저임금제와 모성보호 정책의 연계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미숙(2001)도 자활의지와 노동능력이 있으나 직업경험이 없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큰 30대 여성에게는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활사업이 일자리로 자리매김함에 있어서 참여여성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채혜영(2002)은 30,40대에게는 빈곤여성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실제적인 자활지원,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 복지지원체계 정비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장년층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연령이외에도 여성이라는 단일 범주가 아닌 학력, 소득활동 경험, 자녀양육 및 가구내 여건, 건강상태 등 다양한 범주로 나뉘어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종합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김수현, 2001; 국미애 외, 2001; 김영미, 2002). 빈곤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는데(강남식 외, 2001; 채혜영, 2002; 박영란 외, 2002), 강남식 외(2001)에서는 자활사업이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수행과정, 사회적 인프라측면에서 빈곤여성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대한 성분석, 성인지적 교육, 성통합적 관점에서의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 조건부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 국외 자활사업과 여성 관련 논의

근로연계프로그램에 빈곤여성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포커스

그룹이나 일대일 면접조사를 활용해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voice)를 이해하고 빈곤여성들의 자활과 제도의 역할을 이들의 입장에서 보고자 했다. Younes(1996)은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복지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며 긍정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남은 선택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진입하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상황을 고려해서 자활프로그램에 잔류하려는 실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제도 잔류와 탈피를 고려한다는 것이다(Nicolas, 2001; Seccombe, 1999). 그러나 근로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제도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며 현재의 삶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 탈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제공받는 각종 혜택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탈출할 때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탈출과 수급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Nicolas, 2001). Seccombe(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용형태가 주로 저임금 구조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해서 수급자일 때보다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특히 자녀보육을 위한 비용지출이 커서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일을 하면 수급자로서 받던 혜택들이 없어지는 점, 새로 발생하는 재정적인 비용(아동양육, 교통비, 세탁비 등), 본인의 건강문제 등을 고려해서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최소한 자녀들이 더 자라거나, 직업의 기회가 향상되거나, 다른 구조적인 장애물들이 제거되거나, 자기확신감이 향상될 때까지는 제도에 남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황정임, 2005, 재인용).

이들은 자활프로그램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면서도 수급자로서의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Nicolas, 2001; Seccombe, 1999; Strother, 1995). 공공부조를 받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고,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즉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등의 인식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다른 수급자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자존감, 우울증, 두통, 불면증, 신경증 등의 질병도 갖고 있기도 하다(황정임, 2005, 재인용).

이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Nicolas, 2001; Seccombe, 1999). 자녀에 대해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삶의 목표를 갖게 하는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에게 좋은 엄마이기를 원했고, 이들이 제도를 탈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자녀에 대한 부분이 커서, 좋은 엄마가 되려면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상시 고용형태의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들에게는 또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다(황정임, 2005,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에서 여성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차별적인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이었다. 가족을 부양하고, 용기를 주고 이들에게 투자하고, 자녀를 위해 자신의 의무와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급여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임금, EITC, 건강보험, 파트타임에 대한 허락,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노동을 통해 안정된 삶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임금이 아닌 탈수급이 빈곤탈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업을 갖더라도 짧은기간이나 마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랐다. 직업을 갖자마자 복지혜택이 단절되어 주거비, 식비, 자녀양육비, 교통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 안정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취업하게 될 직종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medical benefit)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적 혜택이 계속되기도 희망했다(Seccombe, 1999).

이렇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연구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탈수급 단계에 있는 빈곤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수급지위를 탈피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면서 실제 복지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복지탈출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인해 복지 수급자는 줄어 들었지만, 이들은 실제 더 열악한 삶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Rice, 2001; Cancian 외, 2002). Rice(2001)는 탈수급 우선 전략으로 인해 수급자들이 탈수급 이후에 저임금 형태로 취업하게 되어, 임금수준으로만 보면 도리어 빈곤선 아래에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아서 정규직에 취업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임금, 남성보다 직업 안정성도 거의 없고, 의료보험, 교통비, 보육비 등의 혜택이 거의 없는 일에 고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Cancian 외(2002)도 일로의 탈피를 우선하는 전략이 빈곤여성들을 저임금 또는 임시직에 취업을 하도록 강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임금 업종에 대한 취업율은 낮은 반면 식당이나 소매유통 등 저임금 업종에 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탈수급 이후 개인적인 임금수준은 향상되지만 공공부조에서 제공하는 다른 혜택들의 손실분을 보충하기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수준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Johnson 외(2001) 역시 대다수 탈수급한 빈곤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고용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저임금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시간이 지나고 기술을 익히면 고임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제했던 고용유인 정책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안은 주로 여성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켜서 노동시장에서의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Edin & Lein, 1997; Johnson 외, 2001; Huang 외, 2002). 그러나 Rice(2001)은 보육, 교통비, 의복 등의 지원, 취업알선, 취업준비, 취업훈련,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의 정책이 빈곤여성을 일할 있도록 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빈곤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저임금, 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최소한도의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일

노동, 동일임금, 성별 분리된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보육지원 강화, 공보육 강화 뿐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가정폭력 문제, 학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며 건강 지원 확대,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보호 등이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황정임, 2005, 재인용).

근로연계복지 중심의 복지개혁에 대한 여성주의적 평가는 각국의 제도의 특성이 갖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Jimenz(1999)는 미국의 복지개혁에 대해 빈곤여성을 계도, 제재하는 쪽으로 설계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제도가 퇴행했다고 평가하였다. Lichtenwalter(2005)도 2000년 인구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의 복지개혁의 결과가 여성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고하였다. 오히려 엄격한 근로강제, 교육지원의 결여, 아동양육지원의 축소 등 복지수급 여성 및 그들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빈곤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고용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보았다. 캐나다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Breikreuz(2005)도 노동시장 진입을 강제하는 것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빈곤여성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들에게 더욱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과 여성이 어머니로서 수행해야하는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성인지적인 관점에서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Ezawa · Fujiwara (2005)는 미국과 일본의 복지개혁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복지수급자의 수가 감소하고 독신모들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복지개혁의 성과로 단정짓는 것을 경계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탈빈곤과 자립을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복지수급에서 탈피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으로 인해 실제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고, 근로연계복지정책이 남성근로자를 모델로 한 경제적 자립을 가정하고 있어서 일과 돌봄이라는 이중역할을 수행해야하는데서 오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Rake(2001)도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빈곤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는 기회비용(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한 양육비용의 증가 등)을 증가시키고 돌봄노동과 병행함으로 인한 소득불이익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간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장기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유급노동시장에 대한 근로유인 효과를 평가하고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및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

기존의 자활공동체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현행 자활공동체 정책내용과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최근 자활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동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회연대은행, 자활정보센터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을 살펴 보았다.

가.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현황

가) 자활사업과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사업 중 하나이다. 자활사업안내(2005)에 따르면, 자활공동체 사업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능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의 자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업의 비숙련도 및 창업 경험이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활근로를 거쳐 공동체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의 경우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사업단 구성을 2년까지 허용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역시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이렇듯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고 일용 및 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 경우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등에 참여하게 되고, 보장기관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의 기술 향상 및 경험 축적 등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기존 공동체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활공동체로 육성 및 지원해야 하며, 최소 3개 이상의 자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들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5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2005년 270개의 자활공동체와 1700명의 자활공동체 참여인원을 목표로 두고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의 수익금 창출 의무비율을 10%에서 20%로 강화하면서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자활공동체로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며, 자활후건기관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자활사업 참여인원의 30%를 시장진입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를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자립하는 단계적 자활경로를 설정하고 있는 현행 자활사업내에서,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한 최종 단계로서의 제도적 도약대로 위치지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활공동체를 취업잠재력이 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일종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노대명 외, 2001).

나) 자활공동체의 법적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 자활공동체 인정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 성립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와 미인정공동체로 구분된다. 정부는 2002년부터 자활공동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득이 낮고 수급자 비율이 미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자활공동체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전·출입 등의 변동요인에 의해 기존 공동체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비율을 1/5까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자활공동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해야 하며 사업특성상 사업자 등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 형태로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시한을 정해 유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2004년부터 자활공동체는 1인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창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¹⁾.

셋째,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50만원 기준)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활근로사업단이 공동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3개월의 수익금 발생 현황을 기준으로 전환 후 월 5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자활근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고 지속성이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2004년도부터는 자활사업단에서 전환되지 않고 신규로 구성되는 공동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신규공동체의 경우에는 구성 후 3개월 이내에 평균 5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한다.

넷째,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한 자활공동체는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을

1) 2005년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자활공동체 요건을 확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창업에서 1인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활근로사업단이 수행한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해야 하며,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이전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은 공동체 전체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2004년부터는 신규로 구성되는 공동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신규공동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라) 현행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①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원

인정 자활공동체에 한해서 정부는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공동체의 설립, 운영, 판로개척 등 공동체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지원 등과 같은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둘째, 자활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해 국·공유지를 우선 임대하도록 지원하는 국·공유지 우선 임대, 셋째, 자활공동체의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공동체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넷째,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을 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다섯째,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5년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위탁과 우선구매, 수익계약 허용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②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전환시 최대한 많은 수급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인건비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를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하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원한다. 지원이 결정된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만 한정된다. 인건비 지원기간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활공동체는 인건비 지원을 받는 대신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전체 구성원이 수급자 자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자활근로임금기준(5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타 자금 관련 지원

일정 수준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등을 자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독립된 기업으로서 공동창업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자활공동체 창업시 또는 운영과정에서 점포나 부지, 차량, 장비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자활근로사업의 수익금 : 자활근로사업의 수익금이란 자활공동체를 제외하고 자활근로사업 예산으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수익금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금의 적립 및 관리는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하고 수익금은 사업참여자 개인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정한 사용범위와 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우선 사용원칙을 살펴보면, 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의 직접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직접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계획서에 의한 소요예산(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익금의 사용범위 중에서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첫째, 수익금은 자활공동체 창업에 소요되는 점포임대,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수익금 사용이 가능한 공동체 창업이란 자활근로사업단의 업종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사업단 구성인원의 1/2이상이 공동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적립액의 70% 이내에서, 1/2미만인 경우에는 50% 이

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자활공동체 창업 이외의 사유로 자활근로사업이 종료된 경우의 수익금이나 초기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공동체가 해체된 경우의 자활공동체의 수익적립금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수익금의 일부는 자립준비적립금으로 적립된다. 자립준비적립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립준비적립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자립준비적립금: 자립준비적립금제도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고 이를 창업시 초기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때 수익금의 적립은 당월 발생하는 사업단의 수익금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립되어 있는 사업단의 수익금에서 매월 정해진 비율만큼 개인별로 적립한다. 적립방법은 참여자가 월 자활급여로 수령하는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별도의 자립준비적립금 계좌에 적립해, 수익금이 적립할 금액보다 많은 월에만 자립준비적립금을 적립한다. 자립준비적립금은 기존의 수익금관리계좌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함이 원칙이며,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통합계좌(1계좌)로 관리하되 개인별 적립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는 참여자 개인별 적립금 액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적립금은 최소한 1년(12개월) 이상 적립 후 참여자가 사업단을 퇴직(사업종료)하고 자립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제도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용하는 기금이다.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

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 지출의 20% 이하) 등에 기금이 사용된다.

2) 현행 자활공동체 지원 정책 문제점

가) 제도 및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

①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개념과 현실간의 부적합성

생산조합공동체를 모체로 설정되어 시장진입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현행 자활공동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류정순(2003)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설정된 생산공동체를 통한 시장진입이라는 이상적인 목표가 사업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어서 투입에 비해 성과가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활공동체가 찾을 수 있는 틈새시장은 의외로 좁고 자유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은 제한되어 있어서 시장에서의 성공이 자활의 성과 목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자활공동체는 시장진입을 통한 탈빈곤 보다는 근로능력 유지를 주된 목표로 하는 사업체들이 나타나고 있고, 공동체적이기 보다는 참여자들이 피고용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거나 개인 자영업자로서의 위상을 갖는 사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의 있으나, 자활공동체로 불리기에는 적절치 않다(이문국, 2004, 재인용).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 최근 들어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공동체로 나가는 단일적인 자활경로에서 다원화된 자활경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자활 유인과 함께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는 단일 경로에서 보다 다면적이고 다원적인 자활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문국, 2004).

② 제도적 위상의 불확실

자활공동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정의되고 있으나, 자활공동체의 성격을 둘러싸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자활공동체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활공동체는 별도의 법적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화 및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일종의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로 간주되어 상법에 의한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사업자(개인명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활현장에서는 공동체 참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나 기관장이 법적책임자로 되어 있는 등 자활공동체들 다양한 방식의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간병, 가사, 산모도우미 등 여성참여자가 많은 인력파견업종의 비중이 큰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거나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경우 4대 보험 가입, 재산소유권 등 다른 제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제도적 지위는 자활공동체의 추진주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후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 대상, 내용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립하는가가 중요하다.

③ 자활공동체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 미비

자활공동체는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수급자와 차상위층이 공동창업의 방식을 통해 탈수급·탈빈곤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활공동체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첫째,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 사업초기 운영자금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자활공동체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활공동체 창업시 또는 운영과정에서 점포, 부지, 차량, 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창업분야가 대부분 초기 투자자금이 적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창업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수익발생 시점까지 지탱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제도가 있지만 융자조건이 문제, 개별수급자들의 변제능력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업 참가자들이 생업자금을 용

자본이 공동체 자금으로 활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노대명, 2003).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에 적립된 기금의 50% 내에서 자활사업 수행재원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일반적으로 시·도에서는 특정 시기에 공모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받기가 곤란한 실정이다(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2004). 자활근로사업 수행 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하는 것 역시 사업단 구성인원의 1/2 이상이 공동체로 전환하는 경우에 수익금 적립액의 70% 이내에서, 1/2 미만인 경우에 50% 이내에 사용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노대명, 2003).

둘째,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활공동체의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위탁, 우선구매 등의 부진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특히 사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활공동체가 일반시장의 경쟁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 공동체가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등과 같은 사회적 판매·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활공동체의 생산품에 대한 수익계약, 우선구매 등 자활공동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④ 자활공동체 유지에 대한 전문적 지원 미흡

자활공동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자활후견기관은 2년 동안 자활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 중 창업에 대한 전문경험을 가진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여 개별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자활공동체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 이로 인해 자활공동체의 창업 시 경제여건과 사업전망을 감안한 업종 및 입지의 선택에서부터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영, 마케팅, 세무, 회계 등에 이

르기까지 전문적인 교육 및 정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적인 지원이 중단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자활공동체들이 많은 상황이다. 많은 경우 자활후견기관과 담당 실무자들이 공동체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은 그들대로 자활후견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형식적, 실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와 관련해서 볼 때 자활공동체 구성원 전부가 공동 창업자라는 전제와는 달리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나 기관장이 법적책임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재정 집행 판단, 회계집행, 행정업무, 영업 및 홍보, 회의주제 등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3).

나) 자활공동체 참여자 측면의 문제점

㉠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의 부족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 측면에서 볼 때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전문적인 직업능력 및 경영능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 대한 적응력도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우선,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은 대부분 노동능력이 취약하고 기술수준이 낮다. 이는 자활공동체들의 창업분야가 간병사업, 음식사업, 청소사업, 재활용사업, 건설업 등 특별한 설비투자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우 연령이 높고 건강상태가 취약하며 학력과 기술수준이 낮아 특정한 기술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종 기술자에 비해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교육이나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더라도 전문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담보하기는 힘들며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자활공동체의 사업분야가 기존의 직업경험 혹은 가사경험을 살린 몇몇 업종으로 제한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

이다. 요컨대, 자활공동체의 낮은 기술수준은 곧 고부가가치를 가진 상품의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적인 기술수준의 부족 외에도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회계, 세무, 영업, 홍보 등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기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자활공동체 운영 측면에 있어서 실무자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가 2003년에 74개의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재정집행 판단, 회계집행, 행정업무, 영업 및 홍보, 회의주제 등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주요한 조직의 기능이 실무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활공동체의 창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참여자 외에 일반 전문가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자활공동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능력이 있는 사업 경험자의 참여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수익 분배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정 정도 이상의 기술을 가진 인력이 자활공동체에 참여할 경우 자활공동체의 낮은 수익구조상 시장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도 자활공동체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드문 일이다.

② 근로의지 및 주체성의 부족

직업능력이나 경영기법과 같이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전문적인 기술, 역량 측면 뿐만 아니라 공동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및 주인의식도 자활공동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참여에 대한 비자발성과 근로유인효과의 부재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해당 사업체가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 없이 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발전가능성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동체로의 전환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전환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고 인센티브 등 공동체 전환을 위한 동기유발 장치가 미약하여 공동체 참여자들은 사업운영에 대한 관심과 자기 책임성이 낮으며 이로 인해 창업의 성공을 이루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체적으로 결여되게 되는 것에도 관련된다. 실제로 공동체 참여기간 중 일한 것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로서의 혜택과 비교하여 쉽게 공동체를 포기하고 수급권자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2004).

③ 참여자들에 대한 조직 관리의 어려움

자활공동체가 경제성과 연대성의 균형을 강조하는 만큼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협동심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참여시 함께 하고자 하는 의식의 부재로 공동작업 및 공동분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익발생시 공동체 사업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며, 공동작업시 개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2004). 더군다나 많은 경우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유대감과 협동심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과 연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관계를 조율하는데 있어서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여부와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만 반면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기술능력보다 인화를 중시하며 참여자가 기술이나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그를 수용한다. 또한 자활공동체는 참여자 모두가 사업체의 대표라는 점에서 조직관리가 더욱 어려우며 이러한 점에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자활공동체 관련 최근 정책 동향

생산적 복지의 구상에 따라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사업에 참여 및 급여수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복지, 탈빈곤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도

구 중 하나로 공동창업 형태의 자활공동체²⁾가 제시되었다.

자활공동체는 2002년부터 실제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II-1>에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의 연도별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II-1>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의 연도별 변화 내용³⁾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자활공동체			별도지침으로 명확화	
자활공동체 인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공동체 성립요건 명확화 자활공동체 인정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구성 공동체 불인정 자활공동체 인정신청 사례 수록 사업단에서 전환되지 않고 신규로 구성되는 공동체 규정 	-
운영·관료 개척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부터는 지원내용, 지원기간, 기타 행정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공동체중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활이 가능한 경우로 참여 수급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지원 공동체 참가자의 기술정도에 따라 공동체 수익금으로 추가임금 지급 기존 자활근로 사업단이 자활공동체 (인건비지원공동체 포함)로 독립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한 수익금으로 3개월간 인건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그러나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공동체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소득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에 대한 10%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30% (2002. 9월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금 : 2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30% 추가지급 	-

2) 본래 자활공동체란 1996년 설립된 자활지원센터가 지역사회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설립했던 생산자협동조합의 다른 이름이었으나,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공동체라는 표현이 적시되면서 자활공동체는 기존의 다양한 생산공동체 혹은 생산자협동조합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노대명, 2001).

3) <표 II-1>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이후 변경된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에 대해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2004년 11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자활공동체 지원 정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활공동체에게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일거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자금을 출연하여 창업단계부터 독립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화가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활공동체의 모태가 되었던 생산공동체가 갖고 있던 기술수준, 경영능력, 자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제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까지 복합적으로 갖게 되었다(신명호·김홍일, 2002). 참여자의 특성도 대부분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관계로 노동능력이 미약하여 실제 자활공동체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노대명 외, 2001).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창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 제도화 등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와 관련해서 2개의 의원 입법 형태의 법률안과 정부에 의해 제안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의원 입법 형태의 법률안을 보면 안명옥의원과 진영의원은 2005년 8월 10일에 양극화 시대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시하였고, 고경화의원은 2005년 9월 21일에 근로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지원법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체계 강화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표 II-2>에 정리하였다.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안의 경우 기존의 틀 안에서 차상위까지 제도적으로 포괄하면서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활기업인정제도 도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안은 전반적인 자활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창업지원 확대, 공익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안명옥·진명희 의원은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층까지 포괄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표 II-2> 최근 자활 관련 제·개정 법률안 중 자활공동체 관련 내용

구 분	정 부 안	고 경 화 의 원 안	안 명 옥 · 진 명 희 의 원 안
법률 명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자활지원법안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현상태	2005년 9월 13일 입법예고 완료	2005년 9월 21일 발의	2005년 8월 10일 법률안 공개
제안 배경	그동안 자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층적인 제도로 분화·발전될 필요성이 있음에 주목함.	고용없는 성장속에서 대규모 고용창출 및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함.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체계 강화	근로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지원법 제정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제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에 따른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함.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근거 신설함.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수급자 등의 창업 및 취업 기회 확충을 위하여 자활 기업 인정제도 도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의 소득 증가로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 시 일정기간 연장하여 자활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함. -자활전담공무원 배치하도록 함.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상담, 창업자금 융자 알선, 창업을 위한 기술·경영지도, 그 밖에 창업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은 융자, 국·공유지 우선임대, 사업의 우선 위탁, 생산품의 우선구매, 사회보험료 분담금에 대한 지원 등을 행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기업 육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사회보험료 및 금융지원 등을 제도화함. -기업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참여를 가능케 함.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세 개의 법안 모두 자활제도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법률안을 개정 혹은 제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각자 그 맥락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3개의 법안들 모두 공통적으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자활사업의 강화, 보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틀 안에서 자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반면 고경화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별도로 법안을 분리해서 자활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자활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안명옥·진명 의원은 자활 현장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보다도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세 법안 내용에서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혹은 자활기업은 현재 자활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는 공동창업 형태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시장 진입을 위해 빈곤계층을 내몰기 보다는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에 대해 합의된 정의나 정책적 상이 있는 건 아니나, 일반적으로 공익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사회 환원을 골자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업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활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자활공동체의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적 상황에 도입했을 때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안명옥·진영의원의 법률안 관련 공청회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과 업종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의 목적 중 하나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라는 점에서 빈곤층 외에도 청년실업자나 장기실업자로의 구성원 확대여부에 관한 논의, 사회적 기업을 개인사업자나 상법상의 법인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제3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사회적 기업의 설립자격에 관한 논의,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담은 기업구조형성과 관련된 논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행정절차에 대한 논의, 세금감면이나 사회보험료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한 논의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자활공동체 및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

1) 자활공동체 현황

가) 연도별 자활공동체 추이

<그림 II-1>은 연도별 자활공동체의 수와 자활공동체 참여인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2000년 64개에서 이후 2001년 130개, 2003년 231개, 2004년 하반기에는 287개로 증가하다가 2005년 하반기에 243개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000년 시행 직후 매우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1,522명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였는데, 그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하반기 대비 2005년 상반기에 자활공동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인정자활공동체와 미인정자활공동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정자활공동체⁴⁾의 경우 2004년 하반기 217개에서 2005년 상반기 198개로 줄어 전년대비 8.8% 감소하였고, 미인정자활공동체⁵⁾도 2004년 하반기 70개에서 2005년 상반기 45개로 큰 폭으로 줄어 전년대비 36%나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를 지향하는 것과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속에서 배출된 이후 생성된 자활공동체의 대다수가 시장진입형이었고, 시장진입 자체에만 중점을 두고 유사한 영역에서의 자활공동체 전환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동일 시장 안에서 경쟁하

4) 인정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동체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성립해야 한다(2005년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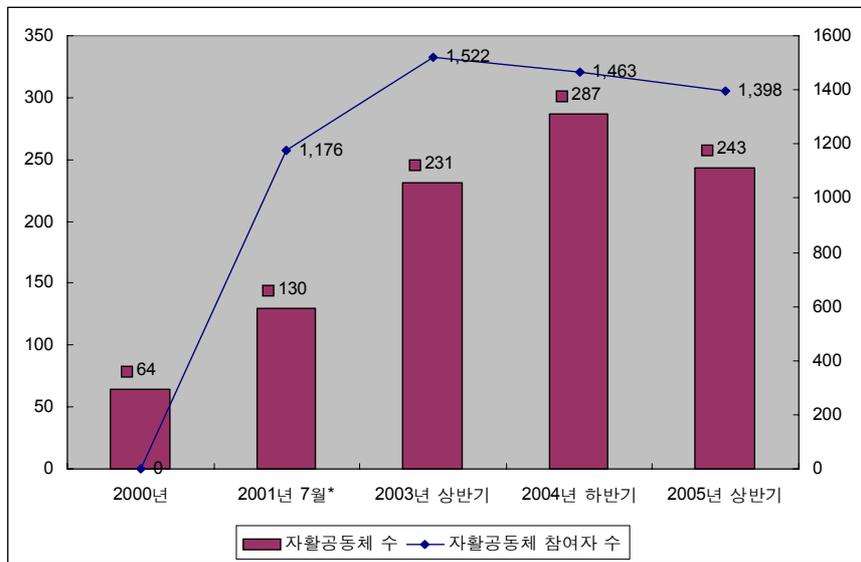
- ① 자활공동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②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해야 함
-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월 5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함
- ④ 자활근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함

5) 미인정자활공동체는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으로 설립된 사업단이나 성립요건 등의 문제로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필요한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공동체를 뜻한다.

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초반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던 자활공동체가 시장 안에서의 자체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1> 연도별 자활공동체 추이

(단위: 개, 명)



나) 업종별 자활공동체 분포

업종별 자활공동체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I-3>.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의 변호추이를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늘어났고,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약간의 감소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업종별 자활공동체 분포와 참여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활공동체의 수와 참여자의 수가 정(+)의 관계임을 볼 수 있다. 한 업종에 자활공동체가 한개 생성할 때마다 이 업종으로 유입되는 참여자의 수 증가정도 즉 탄력도는 업종마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가령 인력파견

형의 자활공동체가 많이 진입해 있는 가사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및개인 서비스업의 참여자 증가 탄력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2003년 상반기 대비 2004년 하반기에 3개의 자활공동체가 추가되었는데, 참여자수 증가분은 57명으로 나타났고 가사서비스업의 경우는 2개의 자활공동체가 추가되었는데 참여자수 증가분은 110명으로 나타났다.

<표 II-3> 업종별 자활공동체 사업단 및 참여자 수(2004)

(단위: 개, %)

업종명	2003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자활공동체 사업단 수	참여자 수	자활공동체 사업단 수	인정	미인정	참여자수
합계	231 (100)	1,522 (100)	287 (100)	217	70	1,463 (100)
A. 농업 및 임업	12 (5.2)	72 (4.7)	10 (3.5)	4	6	60 (4.1)
B. 제조업	31 (13.4)	119 (7.8)	44 (15.3)	35	9	154 (10.5)
C. 건설업	36 (15.6)	141 (9.3)	65 (22.6)	55	10	242 (16.5)
D. 도매 및 소매업	14 (6.1)	39 (2.6)	15 (5.2)	10	5	31 (2.1)
E. 숙박 및 음식점업	6 (2.6)	17 (1.1)	13 (4.5)	12	1	48 (3.3)
F. 운수업	1 (0.4)	2 (0.1)	1 (0.3)	1	-	2 (0.1)
G. 사업서비스업	30 (13.0)	134 (8.8)	43 (15.0)	34	9	191 (13.1)
H. 교육서비스업	-	17 (1.12)	-	-	-	-
I.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n.a. (0.01)	1 (0.3)	1	-	1 (0.1)
J.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82 (35.5)	672 (44.2)	85 (29.6)	59	26	615 (42.0)
K. 가사서비스업	7 (3.0)	222 (14.6)	9 (3.1)	5	4	112 (7.7)
L. 공동부업장	12 (5.2)	n.a. -	1 (0.3)	1	-	7 (0.5)

자료: 자활정보센터, 『2004년 하반기 자활후견기관사업 현황보고서』, 『2003년 상반기 자활후견기관사업 현황보고서』 내용을 재구성함.

주: 위 표의 알파벳 A~L은 표준산업분류에서 사용된 기호를 부여한 것임.

표준산업분류에서 중복¹⁾되어 나타나는 자활사업에는 새롭게 업종코드를 부여하였음
참여자수는 인정, 미인정 공동체를 모두 포함함.

다) 자활공동체 재정상황

① 자활공동체 영업수입

자활공동체의 매출 즉,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해 영업수입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II-2>과 같다.

2003년 상반기 전체 자활공동체의 영업수입⁶⁾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각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수가 많은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21억), 건설업(13억), 제조업(7억)의 순으로 영업수입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자활공동체별 영업수입을 보면 건설업(3,693만원), 가사서비스업(2,854만원),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2,6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업종들의 자활공동체의 생산성이 타 업종의 자활공동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업종별을 살펴보면 건설업 중에서도 단독및연립주택건설업에 진입한 개별 자활공동체의 평균이 3,811만원으로 가장 높고, 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의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에 진입한 개별공동체가 3,629만원,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이 3,15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사서비스업에서는 가사서비스업이 2,85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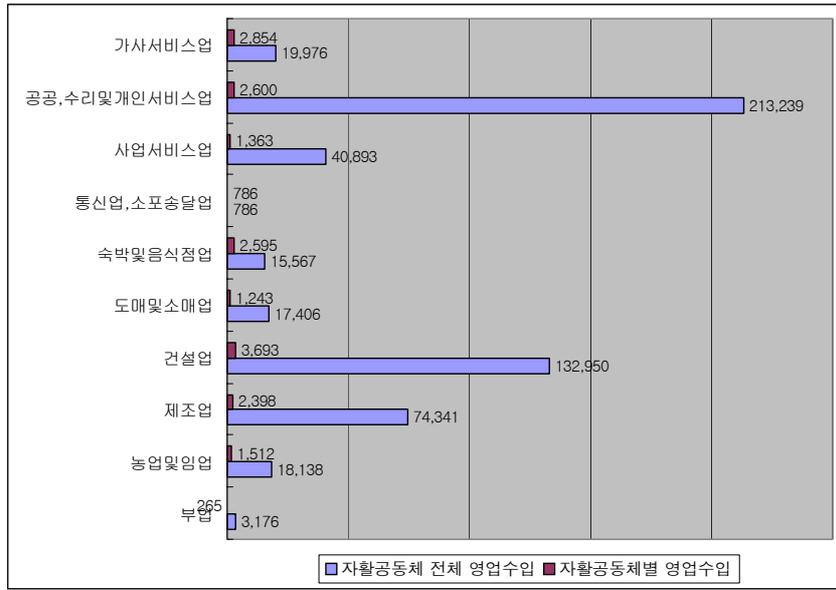
② 자활공동체 재정적자 현황

업종별 개별 자활공동체의 영업매출수입을 살펴보면 2003년 상반기 총 영업수입을 보면 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이 213,239만원으로 가장 높고, 건설업 132,950만원, 제조업 74,34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자활공동체 영업수입은 건설업(3,693만원), 가사서비스업(2,854만원), 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2,600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2,595만원), 제조업(2,398만원) 순이었다<부표>. 그러나 <표 II-4>에 나타난 총영업수입 대비 지출액규모를 통해 본 적자액을 보면 업종구분 없이 모든 자활공동체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영업매출수입은 7.4억이나 지출비용이 8.4억으로 자활공동체의 재정적자가 1억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

6) 영업수입이란 자활공동체의 경제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차입금이나 지원금, 자활후견기관이나 지자체의 보조금수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II-2> 2003년 상반기 자활공동체 업종별 영업매출수입 총액

(단위: 만원)



서비스업의 경우도 수입대비 적정인건비 비용이 커서 자활공동체가 재정적자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업, 숙박및음식점업, 가사서비스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 업종의 자활공동체에 비해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활공동체의 수익 창출을 위한 발전적 모델의 제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③ 업종별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수준

월평균 1인당 인건비는 개별 자활공동체별로 참여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소득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이다. <그림 II-3>을 보면 전반적으로 2003년 상반기 59.3만원에 비해 2004년 하반기에는 76만원으로, 참여자 소득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업과 도매·실내장식및내장공사업, 도시락·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매·실내장식및내장공사업, 도시락·

<표 II-4> 2003년 상반기 자활공동체 업종별 운영 적자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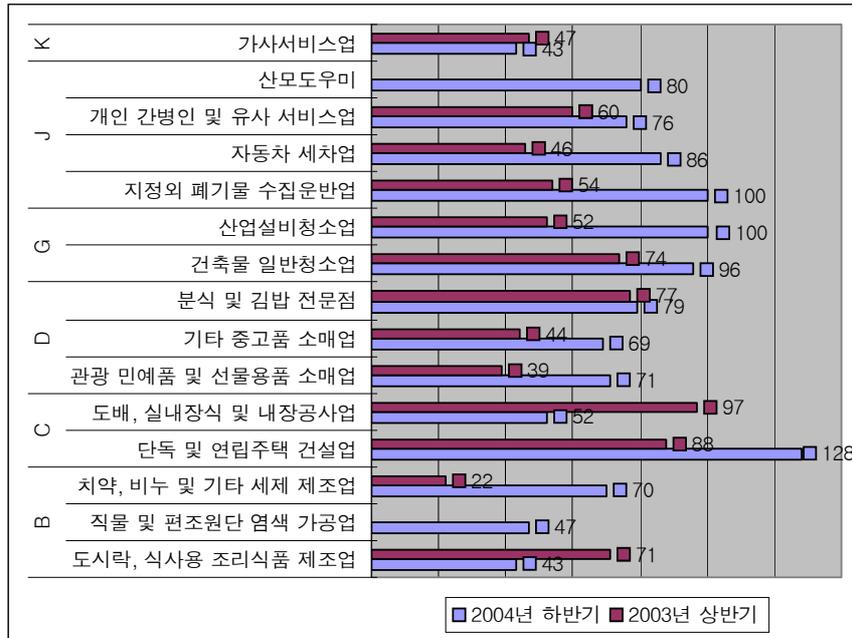
업종	총영업수입 (a)	지출총액(b)		적자총액 (c=a-b)	
		인건비총액	인건비/지출 (%)		
부업	3,176	4,022	2,915	72.5	-846
농업및임업	18,138	17,964	10,082	56.1	174
제조업	74,341	84,779	33,621	39.7	-10,438
건설업	132,950	133,026	41,670	31.3	-76
도매및소매업	17,406	19,002	8,300	43.7	-1,596
숙박및음식점업	15,567	16,163	4,367	27.0	-596
통신업,소포송달업	786	1,302	620	47.6	-516
사업서비스업	40,893	47,861	27,292	57.0	-6,968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13,239	223,141	188,133	84.3	-9,902
가사서비스업	19,976	19,997	19,602	98.0	-21

식사용조리식품제조업의 하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임금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해 노동부의 산업별임금(10인 이상)자료를 활용하여 자활공동체의 급여수준과 비교해 보았다. 일반노동시장의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제한적이지만 비교해 보면, 2003년 업종별 자활공동체 급여수준이 노동부의 직종별 평균임금(2003년) 중 단순노무종사자의 평균임금인 97만원을 상회하는 업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 전체 업종의 자활공동체 참여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가 평균이 76만원인데 비해 주요사업의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85만원으로 주요사업의 인건비가 타 업종이 비해 비교적 높았다<표 II-5>.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그중에서도 간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 업종 중분류별 자활공동체 참여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단위 : 만원)



<표 II-5> 2004년 하반기 주요사업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단위 : 개, 명, 만원)

업종명	공동체수	총 참여인원	1인 평균
집수리	6	173	109
청소	9	171	97
폐자원 재활용	5	215	100
간병	10	1,038	76
합 계	30	1,597	85

자료: 자활정보센터(2005), 「2004년 하반기 자활후견기관사업 현황보고서」.

라) 연도별 자활공동체 참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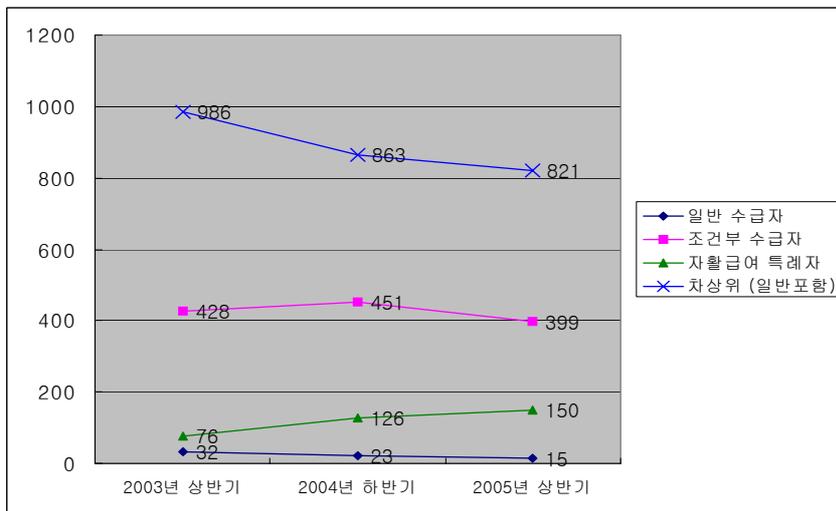
연도별 자활공동체 참여자수는 앞서 <그림 II-1>에서도 보았듯이 2003년 상반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감소

추세는 연도별 자활공동체 구성원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II-4>를 보면 자활급여특례자만이 약간 증가했을 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2003년 상반기 32명에서 2005년 상반기에 15명으로 53%나 감소하였고, 조건부수급자의 경우는 428명에서 407명으로 5%정도 감소하였다. 일반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은 2003년 상반기 986명에서 2005년 상반기에 823명으로 17% 감소하였다.

<그림 II-4> 연도별 자활공동체(인정, 미인정) 참여자 구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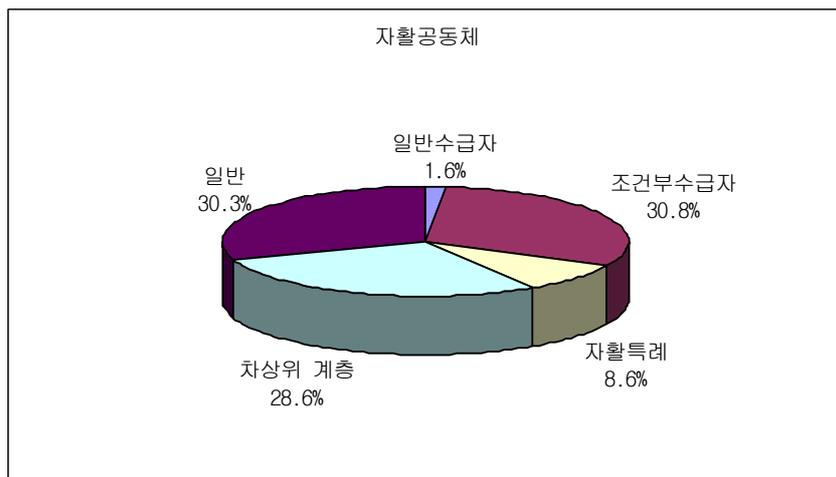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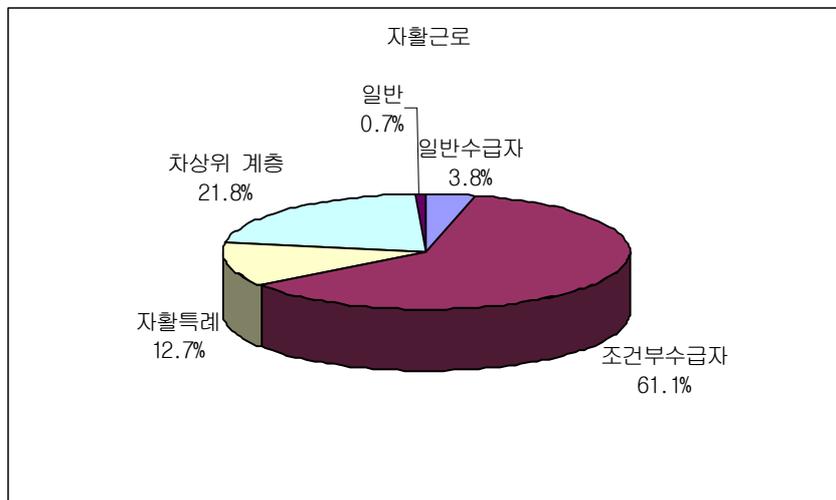
주 : 자활급여 특례자는 조건부수급자나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중지된다. 그러나 자활급여(3년간),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지속된다.

이러한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구성분포를 자활근로사업단의 구성분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활근로의 경우 조건부수급자의 비중이 61.1%인데 반해, 자활공동체는 30.8%로 1/2수준으로 줄고 일반인의 비중은 1.6%로 자활근로사업단의 0.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일

반인과 차상위계층의 비중은 22.5%인 반면 자활공동체는 58.9%로 약 2배정도 차이가 났다. 이는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면서 조건부수급자를 탈피하거나, 일반 혹은 차상위계층을 참여자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5>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참여자 분포(2004년 하반기)

(단위 : %)



자료: 자활정보센터(2005), 「2004년 하반기 자활후견기관사업 현황보고서」.

마) 업종별 참여자 분포

<그림 II-6>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현황⁷⁾과 자활공동체의 업종별 참여자 분포를 비교해 본 것이다. <그림 II-6>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자활공동체는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농임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중에서도 폐기물수집운반업, 자동차세차업, 가정용세탁업, 개인간병및유사서비스업에, 사업서비스업 중에서도 청소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들은 사회적 수요에 비해 현재 종사자수 분포상 적은 수의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 노동집약적인 업종, 추가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할 업종,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⁸⁾가 높은 업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큰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대부분 특별한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쉽게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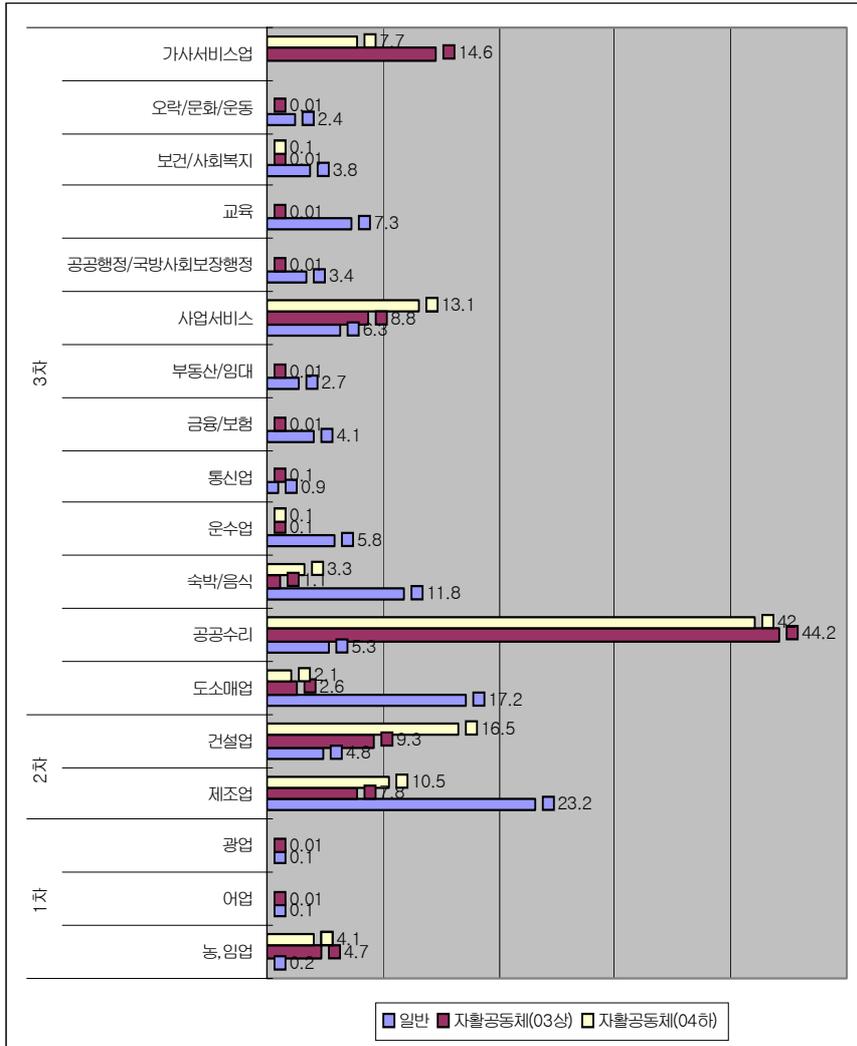
2003년과 2004년 업종별 참여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의 청소업과 건설업에서 자활공동체 참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자활공동체로서 성공적으로 자립한 사례가 있어 많은 후견기관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물량확보 여하에 따라 자립이 가능한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노대명, 2001). 이외에도 기존의 일반노동시장 근로자들이 대거 종사하고 있는 업종인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산업으로 유입하고 있는 자활공동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자활공동체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의 참여인원이 약간 감소한 반면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구성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7)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자료를 도출하였다.

8) 각 산업별 취업계수(1995년 기준)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26.03, 건설업의 경우 16.33으로 여타산업에 비해 높다.

<그림 II-6> 자활공동체 업종별 참여자수 비율분포와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 분포 비교

(단위: %)



주1 : 우리나라의 총 종사자를 100%로 놓고 각 산업별 종사자수의 비율을 계산하고, 자활공동체 총 참여자를 100%로 놓고 각 업종별 참여자수의 비율을 계산하였음.

주2 : '일반'이라 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있는 일반산업을 말함.

자료: 통계청(2003),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활정보센터(2003), 「2003년 상반기 자활후견기관사업 현황보고서」.

자활정보센터(2005), 「2004년 하반기 자활후견기관사업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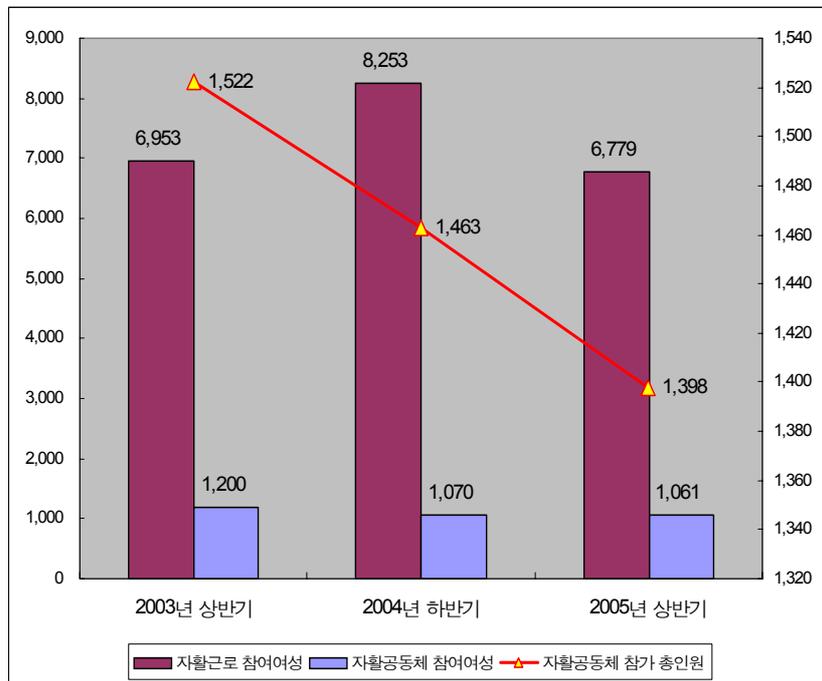
2)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현황

가) 자활공동체 연도별 성별 참여자 추이

<그림 II-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참여자 수는 2003년 상반기 1,200명, 2004년 1,070명, 2005년 상반기 1,061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2003년 상반기 대비 2005년 상반기에 11.6%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자활공동체에 참가하고 있는 총인원의 2003년 상반기 대비 2005년 상반기 감소율인 8.2%보다 높은 수치로, <그림 II-8>에서 볼 수 있듯이 자활공동체 전체 참여자 수의 감소비율보다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감소비율이 동기간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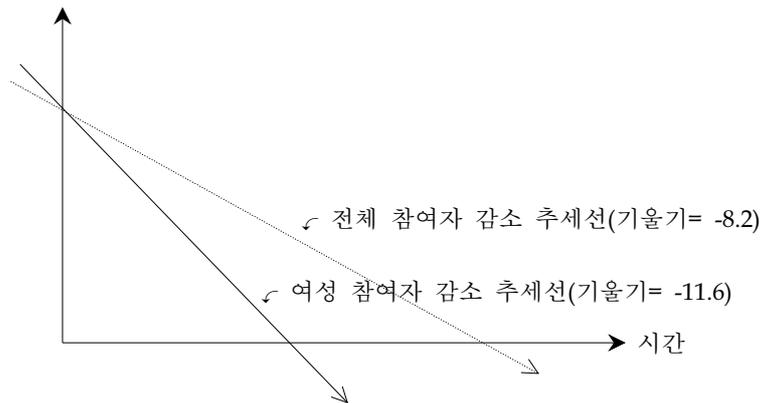
<그림 II-7>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 참여여성 수(월평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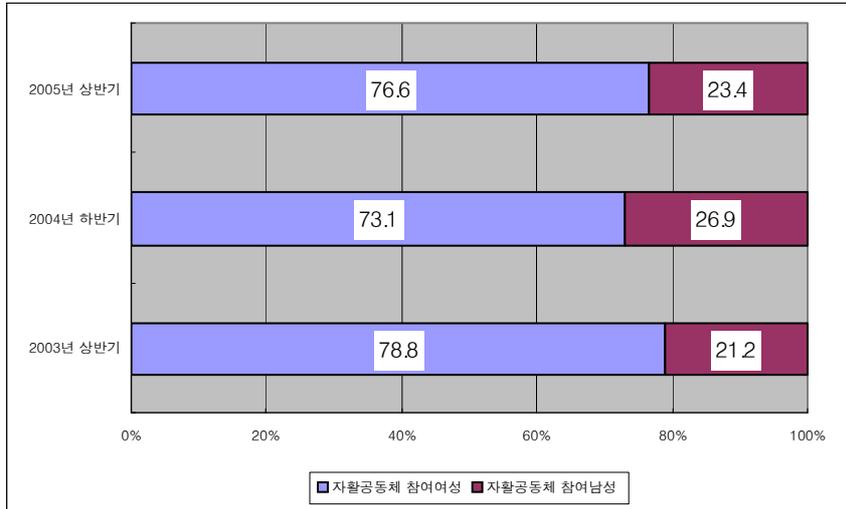
자료 : 자활정보센터(2004, 2005) 자료를 가공함.

<그림 II-8> 2003년 대비 2005년의 자활공동체 전체 참여자와 여성 참여자의 감소 추세선 비교



자활공동체 참여자를 성비로 비교해 보면 <그림 II-9>과 같다. <그림 II-9>는 각년도의 자활공동체 전체 참여자수를 100%로 놓고, 성별로 해당년도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시도한 것은 자활공동체가 진입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여성 참여 비중이 월등히 높고 남녀 참여자 수(절대값)의 차이가 커서 연도별 성별 참여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큰 변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2003년보다 2005년에 여성참여율은 줄어든 반면 남성참여율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활공동체의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과 연관지어 볼 때, 다른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거나 혹은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자활공동체 보다는 자활근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들이 저학력, 고연령, 실질적인 여성가구주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기 보다는 자활근로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에 비중을 둘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들의 자활공동체를 통한 탈빈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9> 연도별 자활공동체 참여자 성별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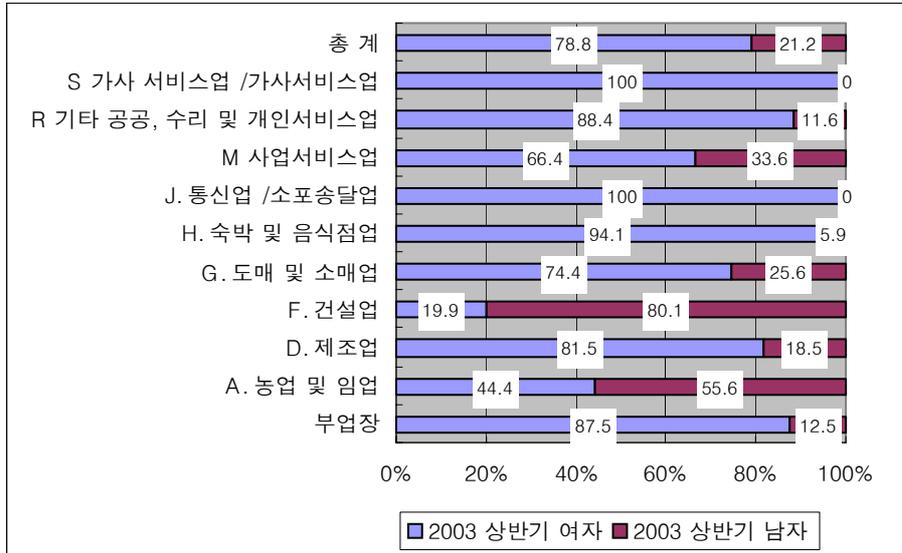
나) 자활공동체 업종별 여성 참여자 분포

<그림 II-10>에서 자활공동체 업종별 여성 참여자 성비를 살펴보면 2003년 상반기 자활공동체 구성원 전체 중 여성 비율은 78.8%이었고, 건설업이나 농업 및 임업의 경우에 한해 남성 참여자가 각각 80.1%, 56.2%로 많이 분포해 있으나, 대부분의 업종에서 여성참여자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종의 여성분포도 높지만 소위 남성직종으로 불리우는 업종에서도 여성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주요 업종별 자활공동체 남성참여자가 대비 여성참여자의 분포를 <그림 II-11>와 <그림 II-12>에서 보면, 2003년 상반기에 비해 2004년 하반기에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건축물 일반 청소업에 여성참여자의 증가를 볼 수 있다. 남성참여자들이 많이 있는 건설업 공동체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의 경우 2003년 상반기 17.6%에서 2004년 하반기 25.6%로 8% 증가하였고, 건축물 일반 청소업의 경우는 6.5%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남성직종으로 여겨지던 노동강도가 센 업종으로, 생계활동을 위해 여성참여자들도 고된 업종에 종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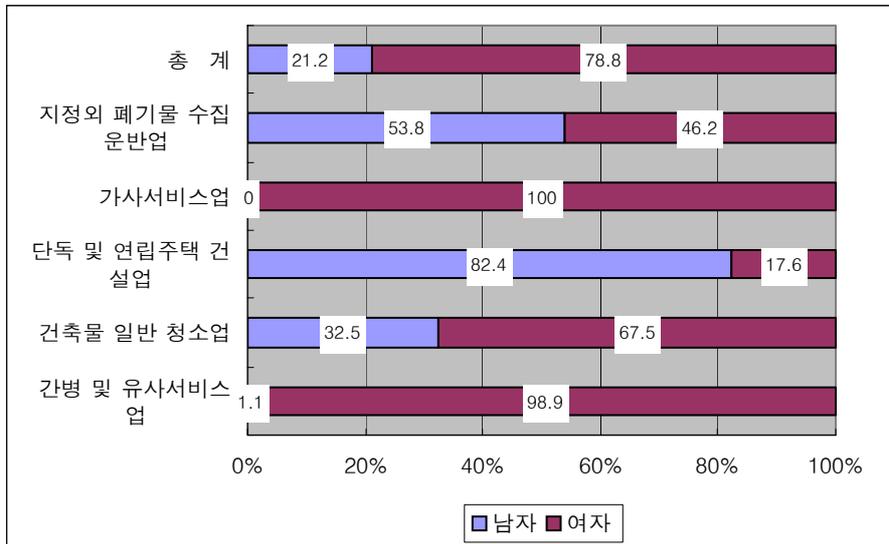
<그림 II-10> 업종별 여성 참여자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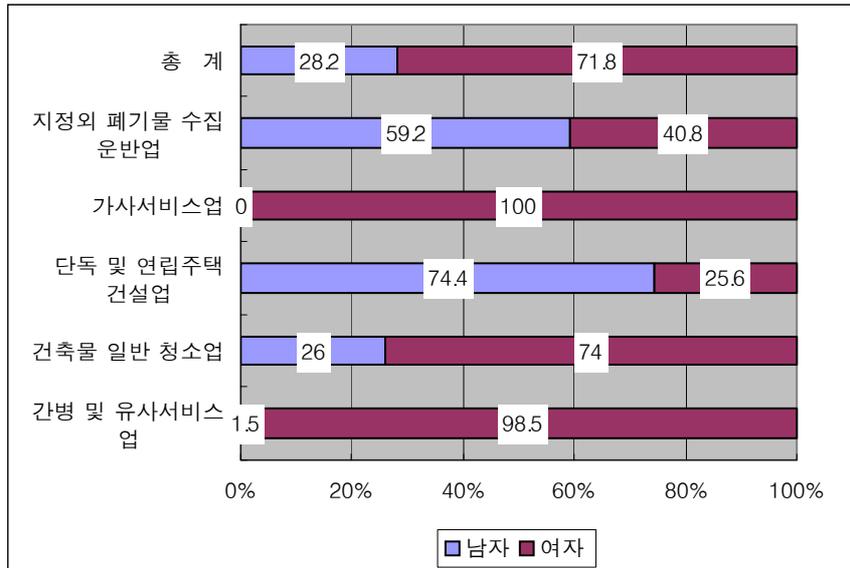
<그림 II-11> 주요업종 남녀 구성비(2003년 상반기)

(단위: %)



<그림 II-12> 주요업종 남녀 구성비(2004년 하반기)

(단위: %)



3) 사회연대은행의 자활공동체 여성참여자 현황

자활정보센터의 통계자료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은행의 저소득층여성가장에 대한 창업자금을 통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28개의 자활공동체에 105명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자활공동체 현황

자활공동체의 인적규모는 2명(28.6%)인 공동체와 3명(28.6%)인 공동체가 57%이상으로 대다수가 소규모 형태였고, 업종으로는 음식점업(분식점, 제과점 포함)(39.3%)과 도시락 및 식품제조업(21.4%)인 공동체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자활공동체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2002-2003년에 71.5%의 공동체가 설립되었고 특히 2003년에 현재 지원받고 있는 53.6%에 대한 자활공동체 지원이 이뤄졌다.

자활공동체의 총사업금액은 5천만원 미만 46.4%, 5천만원-1억원미만 42.9%로 1억 미만인 경우가 89.3%로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이었다. 매출은 93%가 5천만원 미만이었는데, 천만원 미만 39.3%, 5천만원이상이 7.1%인 2군데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6> 자활공동체 현황(2005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개, %)

구 분		공동체 수 (개)	비중(%)
자활공동체 총 참여인원수	2인	8	28.6
	3인	8	28.6
	4인	5	17.9
	5인	2	7.1
	6인	1	3.6
	7인	3	10.7
	8인	1	3.6
업종	음식점업(분식점, 제과점 포함)	11	39.3
	도시락 및 식품 제조	6	21.4
	애견의류제조	2	7.1
	도매	1	3.6
	청소서비스	1	3.6
	세탁서비스	1	3.6
	복사편집서비스	1	3.6
	재활용	1	3.6
	공예	3	10.7
	농업	1	3.6
설립시기	00년	1	3.6
	01년	2	7.1
	02년	5	17.9
	03년	15	53.6
	04년	3	10.7
	05년	2	7.1

(계속)

구 분		공동체 수 (개)	비중 (%)
총사업금액	5천만원 미만	13	46.4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12	42.9
	1억 이상-1억 5천 미만	2	7.1
	1억5천이상-2억 미만	1	3.6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	1	3.6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4	14.3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0	35.7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9	32.1
매출현황	4천만원 이상	4	14.3
	천만원 미만	11	39.3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7	25.0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8	28.6
	5천만원 이상	2	7.1

자료 : 사회연대은행(2005), 『저소득층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현황』, 내부자료(2005.9.30 현재)

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현황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55.2%로 가장 많았고, 50대 20%, 30대 16.2% 순이었다. 학력으로 보면 고졸 35.2%, 중졸 2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장이 된 원인으로서는 사별 23.8%, 이혼 18.1%, 남편의 경제능력부족·근로능력상실 13.3% 순이었다. 부양가족수를 살펴 보면 2인인 경우(43.8%)와 3인 경우(24.8%)가 68%이상으로 나타나서 부양부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급지위를 살펴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66.7%로 전체 인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60%가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기 전의 사업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신용상태는 양호(92.4%)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7>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현황(2005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명, %)

구 분		빈 도(명)	비 중(%)
연령	20대	3	2.9
	30대	17	16.2
	40대	58	55.2
	50대	21	20.0
	60대	6	5.7
학력	대학교(졸업, 중퇴, 전문대 졸업포함)	5	4.8
	고등학교	37	35.2
	중학교	21	20
	초등학교	9	8.6
	무학	33	31.4
가장사유	사별	25	23.8
	이혼	19	18.1
	별거	7	6.7
	남편의 경제능력 부족(남편의 근로 능력상실·실직·행방불명·장애 포함)	14	13.3
	남편의 부채	1	1.0
	부모의 경제능력 부족 (부모의 근로능력상실·질병 포함)	4	3.8
	궁핍한 생활	7	6.7
	미혼모	2	1.9
	기타	2	1.9
무응답	24	22.9	
부양가족	0명	10	9.5
	1명	16	15.2
	2명	46	43.8
	3명	26	24.8
	4명	6	5.7
	5명	1	1.0
경제상황	일반	9	8.6
	차상위	15	14.3
	조건부수급자	70	66.7
	일반수급자	6	5.7
	자활특례자	4	3.8
	무응답	1	1.0
사업경험 여부	유	42	40.0
	무	63	60.0
신용불량 여부	유	8	7.6
	무	97	92.4

자료 : 사회연대은행(2005), 저소득층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업체 현황, 내부자료(2005. 30 현재)

3. 소결

본 장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자활공동체 관련 정책 및 최근 정책동향,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 등을 살펴 보았다.

자활정보센터에서 발표된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본 자활공동체 참여하고 있는 여성 수는 2005년 상반기현재 1,061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7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참여자 수는 2003년과 비교할 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3년 상반기 대비 2005년 상반기에 11.6%가 감소하였다. 이는 자활공동체 전체 참여자 감소율인 8.2%보다 높은 수치로, 다른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거나 혹은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자활공동체 보다는 자활근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들이 저학력, 고연령, 실질적인 여성가구주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기 보다는 자활근로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에 비중을 둘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들의 자활공동체를 통한 탈빈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자활공동체 업종별 여성 참여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여성참여율이 높았고, 건설업, 청소업 등 소위 남성직종으로 불리우는 업종에서의 여성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연대은행의 저소득층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40대였고 고졸 이하가 1/2였으며 실질적인 부양부담을 지고 있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가 2/3를 차지하고 있었고 2/3가 자활공동체 이전에 사업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는 2-3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1/2정도였고, 공동체수의 1/2정도가 5천만원 미만의 규모였다. 매출은 거의 대부분인 93%가 5천만원 미만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나 도식업 및 식품제조업이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주로 2003년에 많은 수가 창업을 했는데 이는 전체 자활공동체의 증가 추이와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는 탈빈곤을 위해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자활사업의 최종단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실제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빈곤여성들이 자활공동체에 참여해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자활공동체가 이들에게 안정된 소득원이자 일자리로 자리잡기에는 제한점이 많은 것을 엿볼 수 있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제한적인 분석이기는 하나, 아직도 참여여성의 다수가 조건부수급자로 탈수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활공동체의 매출규모도 크지 않았다. 이는 전체 자활공동체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대다수의 자활공동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활공동체를 통한 월급여 수준도 노동부에서 제기한 직종별 평균임금 중 단순노무종사자의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지 않았다.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등 주요사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간병의 경우 이들 업종보다 금액이 낮았다. 최근들어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보다는 사업단을 이동하면서 자활근로에 잔류하는 등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여성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자활공동체가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는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 속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보자면, 자활사업자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는 자활사업의 성별화에 대한 지적, 여성의 노동참여를 위한 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기해 왔다. 우선, 시장영역에서의 틈새시장으로 돌봄 및 보살핌 노동에 여성을 재투입하는 형태로 자활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인 성별분업, 여성노동의 절 저하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수요와 시장력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수행해 왔던 양육, 가사 등 가족내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자활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연령대별로 30,40대는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고령대는 노동권 보장차원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접근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빈곤여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종합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외국에서도 근로연계복지정책 중심으로 이뤄진 복지개혁에 대해 보다 빈곤여성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별로 제도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지만, 여성주의적 평가를 살펴보면 빈곤여성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복지수급자로의 여성수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빈곤여성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의 삶은 더 열악해졌고 실제 탈빈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리어 근로를 강제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강제했을 때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하지 못했고, 그 결과 여성들에게 더욱 차별적이고 열악한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했고 동시에 일과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을 적극적 고려하지 못하는 등 제도가 퇴행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여성주의적 논의를 토대로 자활공동체 참여 여성의 경험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천착한 자활공동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Ⅲ



조사결과 분석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 경험

1. 조사결과 분석 개요	65
2. 빈곤여성의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활경험	66
3. 현행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129
4. 소결 : 요약과 논의	156

Two horizontal decorative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r is thin with a light gray stippled pattern. The bottom bar is thicker with a darker gray stippled pattern.

1. 조사결과 분석 개요

본 조사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실무자를 모두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험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 역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실무자 조사결과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조사결과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 전환 과정,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 경험,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등의 순으로 기술하였고, 각 내용별로 맥락적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분리 혹은 병렬적으로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자활공동체로의 전환과정의 경우 참여여성과 실무자의 조사결과를 병렬로 배치함으로써 맥락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현행 자활공동체에 대한 문제점의 경우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자활공동체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정리할 때 포괄적으로 다루었고, 자활공동체 실무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보다 정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별도의 장으로 정리하였다.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 경험은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현행 정책상으로는 시장진입형 공동창업형태의 자활공동체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자활현장의 모습은 다양한 자활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자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을 시도했다. 기술 순서는 현행 정책이 모델로 삼고 있는 시장진입형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이러한 생산조합형 공동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적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자 수가 많은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등의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순으로 정리하였다.

2. 빈곤여성의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활 경험

가.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면접조사에 참가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총 17명으로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II-1>와 같다.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40대로, 40대가 71%였다. 실질적으로 여성가구주인 경우가 47.1%였고, 여성가구주가 아닌 경우라 해도 가계의 주요소득원이 여성참여자의 소득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59%,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24%,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 17%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2/3가 '중'의 상태라고 응답했고, '하'라고 응답한 경우도 3명이었다. 평균 자녀수는 2.1명이었고, 초등학교 학령기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다양했는데, 대부분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상태는 월세 65%, 전세 24%였다.

수급지위는 조건부수급자 59%, 차상위계층 24%였고,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된 기간은 5년차 45.5%, 6년차 27.3%, 4년미만 27.3%순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이 빈곤해진 원인 즉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원인을 보면, 응답자의 약 1/2에 해당하는 47%의 여성들이 남편의 직장부도나 사기 등에 의해 빈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남편의 질병으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 27%, 사별이나 별거 13% 순이었다.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이 자활사업단 이전에 노동시장 경험 여부를 살펴 보았는데, 69%가 일한 경험이 있었고, 전업주부는 19%로 나타나서 2/3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해 대략적으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40대의 학력수준이 높지 않고 건강상태는 중하 정도의 수준이며, 집안의 실질적인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양육과 교육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주로 남편의 소득중단으로 인해 빈곤해졌으며 공공부조 수급기간은 5-6년 정도

되었고, 현재 조건부수급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온 삶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회연대은행의 저소득여성가장 창업지원을 통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도 유사하며, 이전의 여성 빈곤 관련 연구들에서 볼 수 있었던 저학력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고 있으면 실제적인 여성가장의 역할을 하고 빈곤여성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자활공동체가 이러한 전형적인 빈곤여성들의 자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번호	연령	학력	결혼 상태	가족 관계	국기초 수급 시기	자활사업 참여시기	수급 지위	건강 상태	주거 상태	주요 소득원	자활사업참여계기	노동시장 참여 경험
1	47세	고졸	별거	아들20 아들19	2000년	2001년	조건부 수급자	중	월세	본인	남편의 사업실패 후 가출, 본인의 실직	직장생활했음.
2	48	중졸	기타	딸19	2000	2003	조건부 수급자	하	월세	본인	수술	자영업, 택시기사
3	43	고졸	유배우	남편45 아들15 딸12	1999	2001	조건부 수급자	중	월세	본인	봉제공장 도산/남편의 병환	95-99년 봉제공장 경리
4	42	고졸	유배우	남편 딸18 딸12	2000	2001	조건부 수급자	중	월세	본인	남편의 감옥생활, 병환	공장, 식당 근무
5	44	고중퇴	유배우	남편47 딸21 아들20	1999	2001	차상위	하	자가	본인	대출받아 집장만, 회사부도로 대출이 부채가 됨	전자회사
6	52	무학	사별	딸27 아들24	해당무	2001	차상위	중	전세	본인	남편의 술중독, 경제적 무능	전자회사 근무
7	41	고졸	유배우	남편46 딸17 아들12	1999	2001	자활 특례자	중	전세	본인	남편의 부채, 경제적 무능력	
8	41	고졸	사별	아들17 아들13	2000	2003	조건부 수급자	상	월세	본인	사별	영업직원
9	43	고졸	유배우	남편44 딸16 딸14	해당무	2003	일반	상	월세	본인	-	급식업체 근무
10	51	초졸	유배우 (병중: 2002)	남편56 아들23	해당무	2000	미기재	중	전세	본인	남편의 병환	전업주부
11	53	고졸	유배우	남편 딸28 아들25	해당무	-	차상위	중	기타	본인	남편의 사업실패, 이혼	

(계속)

번호	연령	학력	결혼 상태	가족 관계	국기조 수급 시기	자활사업 참여시기	수급 지위	건강 상태	주거 상태	주요 소득원	자활사업참여계기	노동시장 참여 경험
12	39	고졸	유배우	남편41 아들14 딸13 아들11	2003	2003	조건부 수급자	상	월세	본인	-	-
13	51	중졸	별거 (2000)	아들21 아들18	2002	2002	조건부 수급자	중	월세	본인	별거, 본인의 수술	가사도우미
14	48	-	별거 (1997)	딸17 딸12	2000	2002	조건부 수급자	중	전세	본인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별거	봉제공장 근무
15	46	중중퇴	이혼 (1995)	-	2001	2001	조건부 수급자	하	월세	본인	남편의 직장 부도, 남편사라짐, 이혼	기업체 영업사원 경험있음
16	40	고졸	유배우	남편45 딸6 아들4	해당무	2004	차상위	중	월세	본인	남편이 사기당하고 카드부채 생기고 돌려막고 차압당하고	전업주부
17	42	중졸	유배우	남편42 아들16 딸13 아들8 아들8	미기재	2002	조건부 수급자	중	월세	아님	남편 직장 부도	전업주부

나.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활 모색

1) 자활사업 참여 과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전업주부였던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경험을 갖고 있었다. 식당, 판매원, 보험회사, 가내 수공업, 아르바이트, 전자회사, 파출부, 빌딩 매점, 공장 경리 등 그 종류도 다양했는데, 이들은 IMF이후에 다녔던 직장을 잃기도 하고 남편의 실직, 이혼,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도 했지만 실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위사람들의 소개 혹은 동사무소 직원의 안내로 자활후견기관을 소개 받아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일자리를 찾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활사업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수급자, 영세민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주저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양육이나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자활사업은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했던 일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실제 이들에게 자활사업은 일자리로서의 의미 보다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계비와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주부조. 애들이나 보고 그랬죠. 아저씨께서 가정생계를 책임지시고 남편 직장이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직장이 막막한 거예요. 이런 자활후견기관이 있었다는거 몰랐죠 그 동네 사는 아줌마가 참 좋았어요. 그 아줌마가 도와줘 갖고 수급자가 됐어요. 가족도 많고 길에 내았었는데 머 근데 동사무소 가서 많이 울었어요. 서럽잖아요. 서러운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연락 왔을 때 고민은 했죠. 이걸해야 하는지. 애들이 머 애들이 그땐 어렸어요. 그리고 어려웠고 가르치는 유치원비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쌍둥이라 특히 더 했어요. 교제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내가 일을 할라면은 애를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저가 보조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 들어 왔어요. 혜택을 많이 봤죠. (16)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제가 뭐 생활비에 대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안했거든요. 제가 하루에 4시간씩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포장해 주고 그런거 해가지고, 제 용돈 벌어서 애들 학원비 정도 그정도 해줬거든요. 직장을 다녔을 때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거는 없었는데.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애들이 나한테로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장이 되니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는 거죠. (13)

그전에는 이제 뭐 회사도 다녀보고 했었는데 진짜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죠.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막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죠. 월급도 못받고 그동안 집안에 이런저런 쌓인 문제가 IMF 터지면서 집이고 뭐고 저희가 다 정리당하고 이랬었거든요. 정말 어떤 살길이 안보이는 때였어요. 그때는. 그때 그나마 제가 이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생계비가 조금 나오면서 다른 회사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게 고정수입으로 밀리지 않고 계속 나와주니까 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됐던거죠. (5)

이혼해가지고 남자애 둘만 데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40대되니까 어디 취직할데도 없더라고요. 몸까지 아프니까 근데 그 나이 엄마 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취직도 전혀 안되고 마흔이 넘으니까 공장 같은 데에도 취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애들 학비 줄 것도 없

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 길에 가다 현수막을 보니까 저소득 신고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영세민이라는 건 알았지만 무슨 이렇게 특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모르고 그냥 동사무소 가서 제가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일을 못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3)

이제 몸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만두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파출부를 했거든요. 그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팔이 빠지는 것 같고 진짜 체력이 너무 막 바닥이라 그게 안되더라고요. 일이 소득이고 뭐고 다 지금 이 훨씬 낫죠. 모든 것이 다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13)

자활사업 배치는 자활후견기관의 여건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생계를 꾸려야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배치해 주는 업종에 참여해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의 취미나 향후 업종의 전망, 자신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기도 했다.

그때는 다른 팀은 사람이 다 찾고요. 간병에만 일자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간병으로 들어갔거든요. 전에 해보지 않은 일이다 뭐다 라고 고민할 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애들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작은애는 중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먹고 사는게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13)

음.. 이제 청소 그때만 해도 청소사업이라는게 생소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전망이 있을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맞벌이 거의다 요즘은 맞벌이 하고 청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쓸고 닦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기계하고 약품으로 한다는거 그런거 교육받으면서 아 이게 앞으로 시장성이 괜찮겠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독립을 해야 하는데 나이도 있고 지금 내가 당장 사회 나가서 취직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독립할 마음도 있었고. (1)

내가 이 손뜨개를 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거는 내가 그거 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활근로해서 시간 때워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창업할만한거는 너무 이상한거만 많은 거예요. 그때 무슨 사업단이 있었더라 논문 복사, 컴퓨터 수리는 나중에 생긴 거고 하여튼 그 사업단이 그러니까 무슨

차량청소 그리고 집안 청소 하는거 침대 카페트 이런거 며칠 청소해 주고 이러는 거.. 이거는 개인적인 창업이 안되고 이거는 완전히 여럿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내가 나중에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닌 거 같아요.
(3)

2) 자활근로에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과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대다수는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 나갔다고 응답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정 기간이 있으면 자활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직 자활공동체로 전환될 여건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이 되었다’고 혹은 ‘이제 지원해줄 만큼 해줬으니 나가라’는 식의 전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전환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식당이나 공장 등과 같은 일반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기간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자활 사업단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고, 어느 정도가 되면 나가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사정했거든요. 난 내년까지만 자활에 있겠다 그랬더니 안된다, 자활을 해서 떠나라는 거지 뭐. 뭐 어느정도 돈 벌 수 있는 이제 기술이나 뭐 이런거 다 자활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소득을 올리라는 거지. 언제까지나 조건부에서 보조만 받지 말라고 이런 식이겠죠. 정부의 보조비만 받고 거기에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그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자활이니까 전 처음에 자활의 목적은 몰랐지만, 목적이 자활이니까, 다 했됐으니깐 니네 가서 돈벌어라. 그런 식이 아닐까요?
(13)

쫓겨났죠 쫓겨난 거죠. 그 저기 그 자활후견기관에 3년 처음에 3년이 되면은 공동체로 나가든가 아니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3년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협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력이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안해도 그만이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해야 되고 그게 있는거 같아요. 근데 일반은 막상 내가 돈을 벌래도 공장 같은데서 뭐 삼교대 몇교대 해가

지고 있는 다든가 식당같은데는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해야 된다든가 열두시간 근무해야 하거나. 근데 저같이 애들이 모 어리다거나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16)

직업을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절실하게.. 직업도 잠깐하다 말수 있는 건 아니고 나이도 53세니까 일을 막 찾아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생계에 곤란을 겪어왔고 내가 빼떡하면 우리 가정은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의지를 가지고 했지요. 처음부터 나는 잠깐 하려고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까지 하려고.. 이게 과연 될까 거기서 안되면 끝이에요 인제. 자활공동체라는 게 거기서 안되면 끝이야. (8)

이들이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이유는 자신들 스스로 노력해서 소득을 벌어야 한다는 점이였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후견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자활공동체는 각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버는 것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실제 이렇게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성은 있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준비하는데도 참 오래 걸렸어요. 일단 여기서 있을 때는 어떤 바람막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나가면 그후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사실 자의반 타의반해서 나간 거예요. 준비할 때 불안한게 제일 많았었고 나가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가 신분보장이 될까 그게 가장 크죠. 공동체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불안해요. 수급자도 아니고 머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없으니까 일단 나갔으니 공동체로 나갔으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면에서는 불안하죠. (16)

힘들고, 공동체 가면은..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딱 딱 나오는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되면 돈벌이도 안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언젠는 돈이 나오고, 안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거 한번도 없었어요. (9)

공동체로 넘어가면서 마음 속으로 걱정이 많이 있었죠. 하자 말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안되면 어떡하나... 그래도 해오는 몰량이나 정부에서 도와주고.. 안되면 말지 뭐 어떡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했거든요. 분명히 될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면 이거.. 이 컴퓨터라는게 쏘아지면 엄청 많이 쏘아지고 이거 하나의 고물상 같아.. 쓰레기 별거 다나오잖아요. 전자제품 돈도 안되는 거 전부다 그런 거.. 컴퓨터도 뭐 본체, 모니터, 가전제품 사실 이게 돈이 별로 안되거든요. 해보자 돈이 될거 같다.. 한편에서는 안된다 힘들다 못할 거 같다 막 의견이 분분했죠. (8)

참여여성들은 이런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과정에서 실무자들로부터 자활사업단 참여자들과의 상황 공유,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 발전가능성 등 자활공동체로 나갔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상당기간 동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자활근로사업단에 정체되어 있기 싫어서 혹은 실무자들의 독려와 지원을 믿고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결심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런 얘기도 해주면서 공동체로 나가면 분명 발전이 있을 것이고 수익성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것도 얘기해주죠. 그런데 그런 얘기랑 누가 뭐 100프로 다 믿진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각자 하는 거지 뭐. 그래도 뭐 저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 실무자가 뭐 저렇게 말해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테지. (8)

공동체로, 공동체로 오기 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공동체로 나가라고.. 공동체로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 9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지금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월급은 70만원 정도니까 손해라고 공동체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나오게 된 거예요. (15)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어느 선에서 해주는 거지 공동체로 나간 사람들이 2년 동안 도와줬어요. 국민세금을 거두어서 우리를 먹여살리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일한하고 받는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여기서도 자꾸 강요한다기 보다 자기가 일반에서 가서 일 안하려는 사람이 어딴어. 못 버니깐. 힘

이 없으니깐 그럴지. 국가에서 자녀가 이렇게 크니깐 영세민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벌어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만큼 벌어라 그러는 거죠. (14)

실무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꺼냐 하고 나가라고. 여기선 일단 여기 입장에 서는 여기 있는 것 보다 나가라 이게 더 낫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죠. 안 그러면 사업장이 없어지면 없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깐. 그리고 모 어느 정도는 이제 나가서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 앞으로 언니들이 모 언제까지 여기 후견기관에 있을꺼냐 나가자 나갔으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까 마음도 지금 이렇게 우리는 사실 모여서 힘들어 겁나 불안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봅시다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왔는데 이것 보다 나빠지지 않겠냐고 왜 겁을 먹느냐” 아니냐 이런식으로 많이 힘을 준거 같아요. 그래요 가봅시다 머 더 떨어질 나락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구요. 바닥에서 차츰 올라가는 일도 있겠지요. 그리고 말고 서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할래라고 했던 분들도 불안하다 막 이랬던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들 느낌에는 울타리가 없어졌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16)

자활공동체는 많은 경우 2년동안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인원에서 상당수가 빠져나가거나, 인원구성이 변경되기도 했다. 전환 당시 물적 조건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적절한 적립금, 사회연대은행 등의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2년전에, 2003년 9월부터 공동체 출발했거든요. 나오기전 2년동안은 준비과정이었어요 저희가 청소에 관한 교육도 받고 이론적인 교육, 실습도 받고, 장비라든가 여러가지 홍보 관련 이런거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동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유동적이었어요. 그 멤버가 확정되기까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 문제도 그렇고 그 기간 거쳐서 진짜 공동체로 나갈 사람만 걸러지는 거죠. 그 기간에는 최고 많았을 때가 15명까지 있었거든요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최종에는 걸려져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공동체 성원 3명하고 정식 정원 공동체 성원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들어오는 걸로 하고 해서 2명하고 5명이 추가되었어요. (1)

공동체로 열명이 왔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십 몇 명 거기서 이제 공동체로 갈사람을 이제 추스렸지요. 원하는 사람 해갖고 열명이 했었지요. 그래서 그만 두고 그만두고 하고 다시 한 사람이 오고 해서 지금 이제 여덟명이 된거예요. 이제 공동체가 되면 지금 하는거 하고 틀리다. 어 이제 일하는 것도 틀려질꺼고, 우리가 열심히 개척해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걸 미리 얘기를 했었죠. 기관에서 설명을 해줬죠. 그 다음에 본인이 판단을 해서 갈 사람들과 안 갈 사람들을 구분이 되고. (11)

저희 같은 경우는 나오기전에 그 준비기간 동안 일을 간간히 일이 들어올 때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로 일이 들어오는 데로 일을 했었거든요. 적립금이 있었거든요. 일하는 거는 다 적립했으니까 그때는 월급을 임금을 다 지원받았으니까 그 준비기간 동안 그럴기 때문에 수입은 다 적립을 했었어요. 그거 갖고 차도 구입하고 사무실 얻는데도 일부 들어가고 여러가지 그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으로 기계라든가 다 구청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출발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니까 가능했죠. 또 기존의 저희 인제 일을 했을.. 고객들이 있었고 출발하자마자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준비단계부터 서서히 저희가 그 어느정도 쉽게 말해 기술습득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론적인 거 습득했기 때문 홍보라든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좀 수월했죠. 그러니까 계속 또 사회연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사회연대은행에서 3명이 출발했기 때문에 한사람당 천만원씩해서 3천만원 받은 거는 사무실 임대하는데 전세 보증금으로 저희 적립금 일부하고 그 삼천만원 받은 거랑 합쳐갖고 보증금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개인이 하는 업체하고 일을 따라잡기가 저희가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고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지 저희 힘으로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1)

그러나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자활사업단에서 충분한 경험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장에 진입해 다른 일반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경우 현행 자활사업단에서 기술력이나 경영 및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사업단에서 배운 게.. 부족했죠. 교육받는 도중에 교육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너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체제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또 뭔가를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요. 뜨개질을 한다 그러면 스웨터

같은 걸 떠서 바자회 같은 델 나가서 그걸 팔아야 되고, 그 때 당시 그게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뭐 디자인이 예쁜 것도 아니고 전문가 선생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뜨개방 선생님이 잠깐 와가지고 갈켜 주는데 도리어 제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줄 저기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세시간 와가지고 차라리 전문가 반에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그거는 자비로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때 당시에 60만원 이렇게 낼 저기가 안되고 그 일종의 자활근로가 돼가지고 한달에 한 10만원 돈 정도 받은 거 같아요. 그거가지고 어디가 3개월 배울 돈이 어디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앉아가지고 열쇠고리 같은거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안되는 거예요.우리가 아직 기술이 모자라다 하면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술 지원을. (3)

준비라는 것은 일단은... 공동체가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지금 인식 속에 이곳에 있는 분들은 대개 보면 마케팅이 몬지도 모르고.. 영업이 몬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고 그냥 내보진단 말이에요. 그냥 침부터 해보십시오. 하면서 기술지원도 안되고, 어떤 회계지원도 회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자기네가 운영을 하려면..운영상의 어떤 룰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인건비 들어가고 모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되다보면 그냥 엄청난데다 처박고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업체하고 기존업체 보다 떨어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서비스 질과 그 맛에 대한 질이거든요. 아끼지 않을 땐 아끼지 않고 아낄 땐 아껴야 되고 그런걸 알아야 되는데 침에 몰란달 말입니다. 침엔 다 몰랐어요. 침부터 누가 가르쳐 준 사람들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4)

그리고 자활공동체로 나오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 생각에 그 공동체라는 게 말이 안되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까지 서로 너무 뭐라 그럴까 분란이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도 분란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이 장사하는 걸 보기도 해야되겠고, 어떤걸 파는지도, 시장마다 사람들 좋아하는 게 뭔지 그것도 봐야되겠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길 하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일당 2만원이나 나오

는데 뭇하러 발품을 팔고 사서 고생한다 쪽으로 제가 많이 욱을 먹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그 달 생활비 나오는데 뭇땀에 하려고 하냐. (3)

자활공동체 전환 과정에 대한 담당 실무자들의 이야기도 참여여성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담당 실무자들은 참여여성들이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소득유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분들이 하루 일을 안하시면 그러니까 하루 급여가 안 나오시잖아요. 그나마 자활사업단일 경우에는 여기 일이 없으실 경우엔 출근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급여가 기본 그 자활급여가 인정되지만 공동체로 나간 시점에서 이분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수급권자이실 경우에는 생계비가 보조가 되지만 아니신 분들을 가정했을 때 아직까지 현실은 이분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안 나가시면 인제 급여가 확연히 차이가 나시는 거죠. [1]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자활공동체 전환 과정은 업종의 특성과 수익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자활사업근로사업 참여여성 중 전환 가능한 인력의 규모, 전환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참여여성 존재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참여여성들과의 회의 및 상담 등을 통해서 사업전망, 성공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전환을 유도하고 있었다. 자활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많이 잡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로 나갈 때는 수익창출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타진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여성을 집중 설득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활공동체로 같이 전환하는 사람들간의 관계성 등을 고려하지 못해 전환 이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자활근로사업의 운영기간이 종료되었다',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식의 이유로 전환을 설득하고 있었다.

사업이라는게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할 때는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업의 예산 기준은 인건비 대 사업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규모를 크게 하고, 사실 4명이면 충분한 일이어도 그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15명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4명 일할거를 15명이 그렇게 해 갔고, 근로에서 공동체 가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동체로 갔을 때 그게 처음부터 그분들이 어느정도 이상의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몇 명규모로 가야될까랑 일하시는 분들 중에 몇 명정도가 가실려고 하는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4명 정도로 가는데 적당하다 생각이 들면 간담회나 사업단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런이런 규모로 공동체가 진행되면은 앞으로 어떤 식의 업무가 진행될 거고, 그런거 다 설명을 드리죠. 한달 별이가 얼마정도 될거다. 공동체로 가시겠느냐 이런거 진행해서 그리로 가겠다고 이제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해 갖고 가게 되거든요. 거의 뭐 안가실려는 분들 억지로 설득하는 것도 되게 많았었고, 자활근로에서 공동체는 무조건 간다 그러면 가는 걸로 알았는데 같이 가는 사람끼리의 맞추는 과정도 되게 중요 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많이 놓쳤었어요. [2]

전환과정에서 일단은 본인의 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활공동체라는거를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건비를 기관에서 다 부담을 했고 사업비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된다라고 하는거 자체가 이제 불안하시기 때문에, 가시길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단은 연령이나 노동능력 부분에서 실무자가 좀 집중해서 권하는...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시게 된다. 이제 회계적으로 부족한 부분만 실무자들이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컨트롤을 스스로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수입이 많아지면 인건비도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인데요. 호응이 그렇게 크지 않지요. 그러니 개인의 의지에 자활사업단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킬 수 밖에 없죠. [4]

자활공동체 실무자들은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 같기도 하지만, 현행처럼 자활공동체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가 유인책이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을 자활공동체로 전환유도할 설득력이 떨어지고, ‘일정기간이 되었다’, ‘사업단이 종료된다’는 말로 참여자들을 내모는 식의 전환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없

다고 지적했다.

돈에 측면에서만 말씀 드리면 별 차이가 없어서 어머니들이 그냥 공동체가 좋은 거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을 하시는거 봤을 때는 자활근로 때 보다는 확실히 열심히 하세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활근로는 참 이상한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줘도 그 돈을 받고 일을 가는게 일은 억지로 가는 거 같고, 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거 같고, 이상한 구조 더라고요. 그렇게 다 생각이 드시나봐요. 근데 자활공동체는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벌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거 같아요. 똑같은 분들인데도 자활근로 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던 분들도 공동체 가서는 그래도... 지금은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2]

그 의지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간이 오래 됐으니까, 참여하신지 오래됐으니까, 당신은 여기를 정리해야하니까 공동체를 나가십시오 하는 것은 상호작용할 때 아무런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그 분한테도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긍정적인 것도 주는 게 없고, 저희 기관도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5]

공동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 기반을 다 닦지도 않고 공동체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 분들한테 되게 거창한 미래를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게. [2]

다.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 경험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경험은 자활공동체의 유형별로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각 유형별로 참여여성의 자활경험이 보여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자활공동체에서의 참여여성의 자활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하고자 했다.

가) 생산공동체형

생산공동체형은 생산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업 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활공동체에 해당된다(엄태영, 2004 : 이문국, 2004).

㉑ 임금과 노동강도

생산공동체형은 생산협동조합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임금수준은 70-80만원 수준으로 자활 사업단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조건부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부족분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기도 했다. 임금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던 참여여성들은 각종보험금 등 지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남지 않아서 나아지지 않은 임금수준에 대해 불만과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너무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게 보이는거 같고 내가 그래서 빨리 배워서 빨리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8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달에 어떤 때는 집세를 내고 나면 3-40만원 수입밖에 안되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칠십 몇 만원 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만원 벌면 20 몇만원 나오고 50만원 수입을 가져가면 40만원 가져가면 30만원쯤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항상 80만원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도 80만원이에요. (3)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출발할 때도 관공서에서도 많이 하고 좀 많이 가져갈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7~80만원 가져가기 힘들어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까지 평균 수입을 따져보니까 600백선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출나가는 게 많아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타 고용보험료 나가지 자동차운행비 약품비 뭐 여러가지 지출 빼면은 저희 가져가는 순수 수입 월급은 일이 좀 있다. 싶을 때는 팔구십만원 가져가고요 요즘은 칠팔십, 칠십만원선 그렇게 되어요. (1)

생계비 지원은 거의 못.. 두 식구니까 우리가 그래도 7-80만원 벌어 가니까

안 받고 이제 거의 어쩔 때 물건 많이 사고 그럴 때는 부족하잖아 돈이. 그럴 때는.. 십 몇 만원씩 그런거 지원받지. (2)

특히 노동강도가 쉰 것에 비해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9-6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자활근로와 달리 밤샘작업 등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수익을 남기기 위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었으며, 자립하겠다는 의지로 버텨내고 있었다.

이렇게 내가 일한만큼만 솔직히.. 몇 가지 일을 하려면 몇 백 받아도 진짜로 뭐 양에도 안 찰 정도 진짜 잠 하루에 몇 시간씩 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밤새 하고 막 그래요. 저녁 다섯 시에 들어가서 아침 일곱시 까지 하고.. 이렇게 편하게 사업단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이끌고 나와서 더 힘이 들고 막.. 자활 사업은 그니까 여덟시간이잖아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시간만 여덟시간 지나면 딱 끝나니까 우리는 막 이런데 할 때는 열세시간 삼십분 이렇게 한 시간 자고서 막 일시키고 그래요. 일 맞춰서 끝내려고. 구청같은데 환경정비할 때는 삼사일 밤새야 되는데 밤새다가 사우나에서 재워. 집에 가면 못나오니까. 사우나에서 재우고 아침에 또 일시키고. 그렇게 까지 한다고요 우리가. (2)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녁 12시 새벽, 밤새도 그 당날 또 일 나가요. 모 일주일에 3번씩 밤새고 어쩔땐 3일 밤새고.. 잠을 한두시간씩 차에서 자고.. 주문이 밀렸을 때는 그래도 또 일 나와요. 그렇다고 더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게 슬 때까지는 할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여태까지 자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동체 2년 되었는데.. 바뀐 사람이 23명이에요. 그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후발주자로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의지가 있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나 아침에 애들 밥줘야 되고. 누군 아침에 밥줘야 되고 새벽에 못나와야 되고..이렇게 되면 일이 안되는 거예요. 합심이 안되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냥 동생들한테 얘기하든 누구한테 얘기하든 애들 맡겨놓고라도 이거 해야된다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 해야겠다. (4)

㉔ 애로사항

우선 자녀 돌봄과 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 자녀를 돌보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공동으로 생산하는 체계이므로 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양육이라는 비슷한 어려움에 대해 서로 배려하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했다.

아주 어린 애기엄마가 우리도 한명 있거든요 아주 애로사항이 많죠 그러니까 애 때문에 애 봐줄사람 없을 때는 아주.. 그래도 마침 친정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도 일 나가시는데 일찍 퇴근하시니까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하니깐 늦게까지 가능하지.. 애기들하고 시간보내고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게 힘들 거예요.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우리야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그게 상관없는데 애기 엄마 아직 어린 애기엄마들은 그게 힘들거예요. (1)

만약에 토요일날 애기 봐줄 사람 없으면 그냥 쉬라고 하고 딴 사람 데려가고. 어떻게 해. 애기들도 키우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인저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봐줘야지. 그리고 너무 늦게 끝나서 애기 봐줄 사람 없으면 먼저 가라 그러고 또 아니면 우리 새벽에 가면은 우리 먼저 가면 전철 타고 오라고 하고. 그런 건 다 봐줘요. 서로 그렇게 잘 이해하지. 애기 키우면서 살아야지. 그나마도 뽀뽀하게 굴면 안되잖아. (2)

둘째, 일하면서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몸이 아파도 무리해서 일을 하고 쉬는 동안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도 있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도 소득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일을 중단할 수 없다고 했다.

보기가 건강하지. 해 그리고 전 체력적으로 힘이 좋았는데 여기서 다 망가졌지. 힘든 일을 하면 힘줄이 늘어나 가지고 많이 상했죠. 우리들이 여기 기계같은 거를 다 움직여서 이 이게 대리석 광택기예요. 대리석 광택이 대리석 같은

거 하는 거는 남자들도 힘들어 하는데. 이런 거 하고 나면 팔이 마비가 되고 다리까지 마비가 오지. 잠잘 적에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버텨서 하지만은 더 아파가지고 이거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다리하고 손이 마비가 되니까 사실은 의사가 일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계속 하면 팔을 아예 못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고. 그래도 해야돼. 왜냐면 벌어서 먹어야 하니까. 지금도 막 몸이 아프니까 일을 힘들게 하지 말라니까 막.. 누워있을 때는 다리에 마비가 막 올 때는 그런 생각을 잠자면서 해요. 아휴 이걸 박차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2)

몸이 다들 힘든 일을 하니까 다들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 아프고 손마디가 아프고 쉴 때는 뼈마디가 옥신옥신 쑤시고 하니까 쉴 때는 주로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그래야 다음 일 또 하러 가니까 일할 때는 아픈줄 몰라요. 근데 이제 일 안할 때는 이제 온몸이 막 옥신거리고 그게 막 나타나요. (1)

셋째, 자활공동체로 나와서 일반 시장에 진출해서 생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장에 진입했다 해도 시장안에서의 경쟁력이나 업체 운영 능력 등 많은 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동체와 관련한 대출금 상환 등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로 전환해서 시장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이 끊겨서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자활에서 3년이라는 기간동안 그 경과 후에 어떤 시장형으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침 진입할 때는 참 힘들어요. 애로사항도 역수로 많고요. 제가 볼 때 이 공동체가 10이면 한 8개 정도는 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시장 진입형에 대한 어떤 미숙함도 있고 그리고 또 경험부족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기존 업체와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데서 아무래도 많이 뒤져요. 자본력에서도 거의 뭐 많이 뒤지고. 사실 그래요 여건들이. 그니까 일단은 글구 또 공동체 나오게 되면 일단 지원이 다 끊겨 버려요. 공동체 나오면 지원이 싹 끊겨버려요. 전에는 적립금이라고 3천만원씩 있긴 있는데. 지원해주는 걸로 기름값도 하고 도구도 사고 그러지만 그게 100% 쓰면 한 1800만원 쓰고 나면 나머지는 시에 반납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그 담부터는 자기가 기름값 대야지 할부금 내야지. 모든걸 다 여기 모 전부 그걸 운영비 같은걸 다 벌어서 충당을 해야 되고.. 인건비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같은 경우는 사

회연대은행에서 받은 거, 시에서 전세대출금 받은 거 그것도 이자 나가지 상환금 나가지 이러니까 시장성을 바로 잡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우리는 안주하려 하지 않고 우리는 시장형성 쪽으로 영업을 많이 했어요. 시장 쪽으로 왜냐면 여기서 기관에서 도움같은거 기관에서 하는거 이거로는 1년도 못버티고 쓰러져요. (4)

일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공동체 전환 후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 기간이 짧다고 했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선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지원되는 기간이 짧아서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이나 홍보 전략,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이 넉넉지 않아서 다른 일반 시장내 경쟁 업체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처음에는 공동체 나올 때 사람 3명 지원해 줘요. 무료로. 처음에. 그래서 여섯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일 시켜도 우리가 돈 안주고 거기서 다 하니까. 또 세 사람 일당 안주고 그냥 다 버니까 수입이 많은 거 같잖아. 그러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끼리 우리가 번 돈만 할래니까 다 일당들 주고 나면 없는 거지. 그게 마약이에요. 그게 어차피 그 사람들 꿈짜로 시켜가지고 막 하다보면 많이 버는 거 같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짤려 나가면 다른 사람들 돈 주려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애네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고 살아야지. (2)

일이 없을 때는 막 저기 홍보도 데리고 가지.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내가 인제 거래처들 했던 데는 거의 바닥 왁스 같은 거 6개월 7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 거기 또 인사하러 또 가고. 음료수도 사갖고 가서 얘기 하고. 힘이 없는 게.. 이게 인제 우리가 저 열루 들어가잖아. 우리나라 아직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 해도 그런 일같은 거 많이 주고 그러면요 솔직히 식용유라도 하나 사다주고 그런. 내가 보다시피 월급이 짝인데 개인돈 갖고 사줄 수는 없는데 그런 돈을 안된다고 이렇게 그거를 막으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거죠. 일반 청소 대행업체 개네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는 사과 한 박스씩 다 돌려. 자기네 인테리어에서 일을 하면 우리한테 일을 주는 거니까. 다 돌리고. 양말 한켠레라도

사려면 능력이 안되잖아. 그러면 누구는 일없다 그러고. 그러면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나한테 영업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청소 하는데 몇 백만원씩 이런 걸 주는 거 아니지만은 인사라도 양말이라도 선물 하나씩.. 오고가는 정이잖아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다 역제를 하고.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선물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답답한 거지. 그냥 식사도 한번씩 해야 되고. 이런 게 제일 답답한 거지. 어떤 때는 음료수도 내 개인돈으로 사다주고. 그럴 때는 인제 짜증은 나지. 원래 다른 곳은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비가 이렇게 줘요. 얼마씩 3프로, 5프로 몇 프로. 나는 그래도 식구들한테 같이 나눠 갖지 영업비 따지고 뭐 따지고 줄 거 다 달라 안그러거든. 그렇게 하면 가져갈 것도 없잖아. (2)

일반시장에서 진입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에서의 준비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기술력이나 업체 운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충분히 경험을 쌓지 못하고 와서 일반시장에 나와서야 비로소 직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하는 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자 중 일부는 자활공동체로 전환될 의지가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환 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단에서 배운 게 부족했죠. 교육받는 도중에 교육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너무 모질랐어요. 그래서 그 체제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면 또 뭔가를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요. 뜨개질을 한다 그러면 스웨터 같은 걸 떠서 바자회 같은 델 나가서 그걸 팔아야 되고. 그 때 당시 그게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뭐 디자인이 예쁜 것도 아니고 전문가 선생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뜨개방 선생님이 잠깐 와가지고 갈켜 주는데 도리어 제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줄 저기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세시간 와가지고 차라리 전문가 반에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그거는 자비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때 당시에 60만원 이렇게 낼 저기가 안되고 그 일종의 자활근로가 돼가지고 한달에 한 10만원 돈 정도 받은 거 같아요. 그거가지고 어디가 3개월 배울 돈이 어디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만 만드는 거예요. 열쇠고리 같은거. 이게 교육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해야되나 그러면 시장조사라도 나와야 겠다. 그러가지고 차비 얻어 가지고 시장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우선은 이 수공예를 한다는 거를 업종을 잘못 선택한 거죠. 선생님들이 또는 기관에서. 근데 나는 이거 배워준다 그 말만 믿고 간거죠. 그게 우리가 아직 기술이 모자라다 하시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술지원을, 그런데 그 이후에 수익성은 없고, 힘들게 뜨개질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며칠 뒤에 바자회가 있다 그러면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얘기하면은 거기서 시간 어영부영 때우다가 집에 가서 하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면서 뜨개질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없어지게 된 거예요. (3)

문제는 공동체 형태라니까 사람들이 더 안하려고 하죠. 뭐든지 장사는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한다는 거 동업 이런 게 말이 안되요. 말이 안되고 누가 더 잘났으면 그사람 쫓아가는 것보다 그 사람 시기하고 헐뜯는게 더 많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아,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 맞으면 그 쪽으로 한꺼번에 의견이 모아진다든지 해서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 공동체라는 게 말이 안됐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까지 서로 너무 뭐라 그럴까 분란이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3)

③ 기관과의 관계

자활공동체 전환 초기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점차 그 관계를 정리하고 분리해 나가고 있었다. 조사 당시에는 회계 정리 등에 대한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았다.

초기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홍보, 영업, 행정 지원 등 자활공동체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기관의 이러한 지원 때문에 자활공동체 운영이 가능했고 안정될 때까지는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점차 자활후견기관과 분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관리, 임금 배분 혹은 수입지출에 대한 점점 정도의 선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기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 기관의 공공기관이라든가 구청에 협조부탁하고 일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그래서 구청일은 거의 저희한테 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됐죠. 기관같은데 많이 알리고 그렇죠. 행정적인거는 거의 기관에서 해주고 여러가지 많죠.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가능하죠. 저희가 혼자서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고 사소한거부터 어떻게 해라 알려주니까 가능하죠. (1)

회계는 봐주죠. 왜냐하면 돈벌어서 입금시키면 월급계산은 우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지금도 하는데 인저 SDR 배워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게 일루 넘겨주면 여기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회연대은행에 빛이 있으니까 그거 갚을 때까지는 좀 기대야 돼. (2)

현재는 아직까지는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수입 지출 계산하고 또 관리 하거든요. 출퇴근 관리 이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희가 우리 공동체 나온지가 한 2년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실무를 맡아서 작업을 할려구요. 지금 엑셀작업하는것도 컴퓨터 장부정리 하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 기관에서 해줬거든요. 이제는 9월부터는 제가 인제 해서 넘겨주는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려구요. (1)

회계나 경영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혼자 해왔어요, 기관에서는 그 다음에 돈이 얼마 지출되고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기관도 알고 있는 거구요. 예를 들면 회계장부를 항상 들고가서 그거 보고 요번에 내가 지출이 많았다 그런거를 해 주시죠. 나는 아무 생각없이 막 적어보는데, 작년대비를 해 준다거나 너무 지출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의식적으로 돈을 안쓰게 되고, 어떨 때 실이 예뻐서 산다든지, 내가 사고싶은 거를 막 살 때 있거든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제동을 걸어주면 사고싶은 거를 좀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요. (3)

그러나 이러한 자활후견기관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보다는 결국은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을 받을수록 기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자활을 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활공동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 뭐 기관으로부터 도움도 받은 거 전혀 없었

어요. 우리는 뭐 이웃거래 하나 따주는 거 없었고, 그냥 나와서 무슨 일거리 잡아가지고 뭐 힘을 써주는 거 없고, 다른 기관처럼 일없어 가지고 뭐 와서 저기 하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린 그냥 내놓은 사람이야. 내놓은 자식이어도 알아서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 해봤자 뭐해. 솔직히 이래라 저래라 말 하면은 다 머리 크고 사십 넘은, 오십 다된 사람들이 더 기분 나빠서 더 땀만 흘리지. 내놓으면 다 알아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다 이렇게 입금을 시키잖아. 이렇게 그냥 일하는 대로 돈 다 입금시켜주지. (2)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실무자들이 시범적으로 우리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는데. 다른 곳은 또 안그렇거든요. 다른 사업단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에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실무자들로부터) 그렇게 되면 실무자들은 오너가 되고 우리는 오너와 종업원의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의미가 없죠. 그리고 안주해요.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다해주겠지. 나중에 돈을 벌더라도 그만큼 늦어지는 거야. 회계도 우리가 첨부터 할 줄 알아야 되고. 세금 계산하는거부터 해서. 신고하는거부터 해서 세금계산서 따는거 견적서 내는거 어차피 나중에 알아야 될 건데. 첨에 힘들어도.. 첨에 우리도 힘들었어요. 자활에서 일할 때와 공동체에서 일할 때의 차이가 뭐냐면.. 자활에서는 일할 때에는 한달에 얼마 벌고 얼마 나가고 얼마 쓰는지 전혀 몰랐어요.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3년 동안 있어도 몰랐는데. 우리끼리 한 후부터는 통장도 맨날 같이 하루하루 찍어보고. 언니 오늘 우리 들어왔다 오늘 얼마 나갔다 서로 이렇게 보니까. 통장에 얼마 잔액이 있고 얼마 들어오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일해도 돈이 딱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고생해서 들어오니깐. 서로 자신감을 느끼고 일하는데 효율도 많이 높고. (4)

4]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을 때와는 달리 자기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겼다고 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서 일할 적에는 어떤 일을 해도 내 일 같지가 않고. 그냥 월급쟁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일 끝나면 가고. 그런 마음으로 일했고.. 공동체로 나왔을 적에는 내 일 같아요. 일하는 것도 새벽에 일하는 것도 힘들지도 않고 그냥 내 일처럼 일하니까. 그게 자신감도 느껴지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도 내 일이니까 그렇게 힘들다

고 생각하지 않아요. (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계속 갖고 있었다. 일반시장에 있다 보니 경기도 많이 타기 때문에 수입이 생각 보다 적다는 점에 대해, 그리고 이후에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다.

좋은 점은 없애이고 그런게 없고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가 우리 일이니까 더 이렇게 의욕이 생기는 건 있어요.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런 면은 좋는데 어려운거는 일이 힘들어서 막 몸이 아프고 수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게 어려운 거죠.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질라고 출발한건데 금방 달라지진 않겠지만. 계속 힘들니까 그런게 힘들죠. 공동체로 나온게 어떨 땐 잘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고 수입이 안될 때는 어떻게 그만둘까 때려칠까 말까 고민해요. 아직까지는 몸도 아프고 수입은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열몇시간 일하고 일있을 때는 연거푸 막 일하고 하는데 막상 수입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 안될 때 이거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이렇게 힘들게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만둬야 하나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 몸만 망가져서 돈도 못 벌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공동체로 전환한 게 사업단 때 보다는 좋지. 누구 구속 안받고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근데 이제 소득의 안정성 같은 건 보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그거는 없죠. 아직 그거는 보장이 안되고. 몰라 보장이 없으면 안되지 않으면 안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있는 것보다 부족하면 안되잖아요. 아유 지금같아서는 답도 안보여. 답이 안보이는데. 경기가 안좋고 지금 일단 이사 청소도 해야되고 막 그러는데 경기를 좀 타니까. (2)

심한 자괴감을 보이기도 했다. 자활근로사업에 머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고자 자활공동체로 전환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활수준이고, 도리어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느라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에서 오는 자괴감을 호소했다.

이렇게 장사 시작하면 맨날 이렇게 시장 나와서 물건 사죠 밤에는 11시 넘어

서까지 가게 문 열고 있죠. 그래도 나한테 수입은 항상 80만원인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처음에 뭐하러 그렇게 등골빠지게 하나 그렇게 이야기 할 때도 나는 창업해서 내 일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고 빨리 빨리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창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도루아미타불이 되버린 거예요. 지금 자활근로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아침 9시면 출근해서 5시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서 애들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침 9-10시쯤 가게 나오고 새벽부터 시장 돌아다니고 밤 11시까지 해도 똑같이 80만원이고 학비는 학비대로 빚을 떠안고 있고. 나는 잠 못자고 집안 살림 엉망이고 그동안 애들 얼굴 보기 힘들었고. 공동체를 꾸려서 나 이렇게 성공했다 표면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3)

이러한 불안감과 자괴감 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전략을 세우고 더 열심히 배우고 일하면서 노후까지를 생각하며 자기 전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들가 해 주면은요 업체 우리한테 넘어와 그거. 남이 자기네 손 모자른다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거지. 그만큼 기술력엔 자신이 있어. 아무리 남들 못한다는 거를 우린 막 붙어서 나는 해버리니까. (2)

우리는 보통 남들이 해가지고 마음에 안드는 걸 갖다가 다시 해주는 그런 걸 많이 선택을 하거든. 야 이거 최선 다하고 너네 그 사람들보다 못하면 우리는 완전 이걸 낙인이야 더해야 돼. 완전히 그냥.. 거의 우리들이 하면은 만족해 해요. 남들이 못하는 거를 뛰어넘는 바닥에 광도 그 사람은 이만큼 썼으면 우리는 더 높여야 되니까. 그니까 좋은 거 많이 써야 되요. 약품도 좋은 거 쓰고. 그거는 인저 언젠가 알아주겠지. (2)

그거는 제가 노후에는 저기 뭐냐.. 일을 하면 추하게 보이니까 오십 한 두 살까지는 해야지. 그러면 그 때 되서는 내가 인저 우리 참여자들한테도 짜고만 고생해서 우리가 오더만 많이 따고 그러면 남을 시켜서 우리가 이익금을 받는 그런 날이 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일은 남 시키고. 우리 진짜 하나도 안놀아요. 뻑뻑하게.. 이걸 일요일도.. 설날이라 놀은

거지. 하루도 안 놓고 이렇게 하잖아. (3)

내일 당장 문 닫더라도, 오늘은 열심히 해야죠. 이거를 내일 그만뒀도 오늘까지 내가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데, 아 끝긴다니까 앞으로 먹고살 궁리를 해 보겠다 그게 뭐냐면요, 어디 나가서 진짜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허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설거지라도 해야되겠다, 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선. 그런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가 전략, 더 이상의 전략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인제 가게가 살려면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하고 진짜 예전에 할머니 옷 짜는 그런 식의 생각 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어 되는데 이렇게 뭐 먹고살 궁리만 하다가는 구멍가게 밖에 안되는 건데.. 내년에는 전문적인 것도 배워야 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발전적인 거잖아요. (3)

실무자들은 시장진입을 전제한, 소규모인원에 의한 공동창업 형태의 현재와 같은 자활공동체가 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의 특성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자의 인적자본의 특성상 참여자의 10-20% 정도를 위한 사업으로 전략할 수 있으며, 시장진입을 지향하더라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질높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시장에 진출했다고 해도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소규모 공동창업 형태의 자활공동체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자활공동체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동업형 창업을 지원하는, 일봉의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창업지원프로그램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일정 정도의 명분을 투입을 해 준 것인데, 명분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동경영, 공동노동, 공동분배이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매우 힘든 경영이념이죠. 그래서 2~3년 같이 했다고 해서 이념을 투영시킨, 명분 있는 기업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이죠. 사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경영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 대부분의 자활산업 참여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을 통해 고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2~3년 해줬으니까 충분히 해줄 만큼 해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해결해라 식의 이런 구성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활산업은 10~

20% 사람들만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인지도 모른다. 공동체 활동에서 탈빈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한 달에 내가 200정도의 수입을 내고 싶다, 그럼 200정도의 수입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시장은 굉장히 냉혹해서 우리가 200만원 주면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기 일하는 분들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면 목쫓아 오시니까. 그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려 줘야 하는 건데, 일정정도 한계가 있죠.. 수익구조가 높은 것들은 아주 높은 노동강도라던지, 시간의 구매를 받지 않고 활동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7]

현재에 자활후견기관에 만들어진 생산공동체로 가는 이 단위가 제대로 서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이에요. 일반 시장에서도 회사 조그만 거 하나 차려놓고 사업자 등록 내놓고 음식집 하면서 무지 많은 식당이 망하고 이렇게 그러는 걸 밟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대다수이고, 사회적 기술이나 영업능력이나 아니면은 학력, 대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통해서 업그레йд 된 내용은 있지요. 있지만, 이렇게 업그레й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수준에서 일반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걸로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말로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무책임하게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이후에 또다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 질 때 기관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지만 공동체가 살아남는다면 저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리본공예, 비즈공예 다양한 이런 생산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단위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갖는 부담 보다는 거길 운영하는 대표들,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크긴 하지만.. 기관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 만들어 놓고 인건비 총당하느라 기관에서 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너무가 고통스러워 하고 그런 걸 많이 듣거든요. [5]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사람들, 자신의 의지로 버텨내는 몇몇 사람들만이 자활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고 향후에도 이런 식의 자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

는 것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지구요. 의지가 있는 분들이어야 하는데..근로능력도 되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없죠. 지금 하시는 분들은 공동체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8]

지금 함께 일하는 두분은 의지가 상당히 높아요. 높아서 저는 여기는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렇지만 이후에 이런 공동체가 또 다시 만들어질 때 기관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지만 공동체가 살아남는다면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지. [5]

<표 Ⅲ-2>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조사결과 정리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입금과 노동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입금수준이 상승되지 않았고, 조건부 수급자를 유지하거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수입 유지, 이에 대한 불만과 자괴감이 큼.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에 있으며, 수익을 남기기 위해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함.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돌봄과 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 있음. 건강 악화됨. 시장내 다른 경쟁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 지원이 끊겨서 부담감이 가중됨. 인건비 지원 기간이 부족함. 영업 및 홍보 비용이나 전략이 부재함.
기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 초기에는 기관으로부터 홍보, 영업,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이러한 기관의 지원에 대해 만족, 필요성 있다고 봄. 그러나 점차 그 관계를 분리하면서 회계, 임금배분 정도의 선에서만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음. 기관의 지원을 받을수록 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과의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일’이라는 생각에 의욕을 느끼고 있음. 불안정한 소득과 건강 악화로 불안감 가지고 있음. 자활공동체로 전환했으나 자활근로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음.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갖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함.
실무자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진입형 소규모 공동창업 형태의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함. 참여자의 인적자본이나 제도적 지원의 총량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나) 사회적 기업형

사회적 기업형 공동체는 영동/폐자원 재활용 등 서구의 사회적 기업 모델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외부 시민단체 또는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의 법적, 실질적 책임자가 되고 다수의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자활지원기업형에 해당한다(엄태영, 2004 ; 이문국, 2004).

□ 임금과 노동강도

사회적 기업형의 경우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임금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다. 더 나은 임금수준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있었지만,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고 시장임금 보다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80만원인데 세금 떼면 80만원 좀 안되죠. 처음에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올라가죠. 제일 많이 받은 거죠. 딱 데 가느니 믿을만 하나까. 그래도 월급 싸게 주장아요. 누가 이렇게 월급 많이 주겠어요. 딱 데 가봐야 50~60만원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있는 거지. 힘들어도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막상 딱 데 가서 어디서 취직을 해요? 취직하고 공장 다녀봐야 얼마 주겠어요? 많이 줘야 40~50만원 줄 텐데. 힘들어도 공장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6)

처음에 자활에서 공동체로 가가지고 70좀 안되었는데 60얼마였는데. 조금 넘어갔고 다해서 98만 8천원. 기본급이고, 뭐고, 다 해갔고, 교통비까지 해서 98만 8천원. 그렇게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은 안 드는거 같아요. 금액이 조금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가봐요. (9)

80만원이란 돈이 시간에 비해서 일에 비해서 돈이 적죠. 거기에 퇴직금 보너스 포함 다 뒀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우리뿐이 아니라 텔레비에 뉴스같은데 보면은요 그런 종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이 너무 적더라고. 이런 아파트 같은 데는 50만원 받는 분도 있고 거기서 지금 관리하시는 분은 5만원 더 비싸서 55만원, 60만원 선이더라고요. (7)

아마 손해볼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 줘야지, 약품 갖다줘야지, 부도난다니까요. 오더를 많이 따야 하는데 조금밖에 못 따고 손해보고 있으니

까. 월급을 계속 줘야 하니까 돈이 나오면 인건비 같은 거 빼면 악품값은 손해 본다니까. 그게 안 떨어진다고. 요번 경우는 오더를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하든지 그래야 하니까. (6)

노동강도는 자활근로사업 때 보다 쪼였지만, 일반적으로 자활공동체가 수익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일자리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은 공동체지만 자활에서 일했을 때는 좀 여유가 있었다고 그럴까? 시간적으로 일단 여유가 있었고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어 일단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동체로 오고 부터는, 공동체니깐 이제 우리가 벌어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깐 부담스러워진 거죠. 시간, 일 강도, 사람도 그 많았던 사람들도 다 해고 추슬러서 필요한 사람들만 해야 되니까. 강도가 심한 거는 있죠. 이 내 시간에 여유 시간이 없어졌다고 해야할까? 보통은 8시 20분에 출근해서 이제 다섯시. 지금은 잠깐 이제 한두달 지금 오후에 지금 바쁘지 않은 거예요. 보통 7시, 8시 어느 때는 9시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전혀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5시 6시. 이제 5시는 빠르고 6시, 6시 반 이제 7시 안으로 갈수 있죠. 아무튼 12시간 넘게 일을 했었으니까. 계속 12시간이 뭐야. 아무튼간에 12시간이 넘게 보편적으로 12시간을 넘게 일을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동체고 처음이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되니까. (11)

사업단에 있을 때 보다 일은 더 힘들지, 아무래도 거기는 일거리 없으면 쉬거나 하지. 그래도 아무래도 공동체를 나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죠.우리는 꾸준하게 월급 나오니까.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어요? 지금 70~80은 꾸준하게 벌잖아요. 이렇게 벌기 힘들죠. 일은 힘들어도 일할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딴 데 가면 월급도 못 받고 그런 곳 얼마나 많은데요. 일거리도 없고. 꾸준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일거리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니까. 근데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안정되었잖아요. 꾸준하게 월급 받는다는 것이 어딘데요. 다른 데 다니면 몇 년 다닐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대표님이 알아서 취직시켜 주니까. 오더를 막 다니까. 그러니 꾸준하게 다니는 거죠. 공동체 창업에서 수익을 올리기가 힘들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일반노동시장에 나가는 것 보다 낫죠. 그리고 딴 데 취직도 못해요. 어떻게 취직을 해요? 조금 받더라도 꾸준하

게 여기서 버는 게 낫죠. (6)

도움이 되는게 일거리를 많이 하게끔 정부에서 해주니까 그게 우선 안심은 되잖아요. 우리가 개인이 그렇게 몰량 만들수가 없어요. 그 많은 몰량을 할 수가 없는게 우리가 몇 명이 있을 때는 개인이 가서 조금씩 조금씩 해다가 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안심이 되는게 못하면 보조를 좀 그동안에 받았고, 앞으로도 안되면 사회에서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안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관찮게 봐요. 어떨 땐 안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현재로서는 돈백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장이 현재는 되고 있으니까 그거 밖에 없어요. 안도감이 되는거 그리고 그 회사가 잘되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벌 수 있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도 다 뭉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거. (7)

그리고 소득 적어도 마음 편히 시장에서의 경쟁력 낮은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 만족스러워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급여는 적지만 다른 사업장 보다 좋은 조건이고, 누구나 모두 똑같은 입장에 있어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또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혹은 자활공동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운영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서 일하는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자활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회사나 다른 사업장에서 적응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 사업장은 선생님들께서 같이 일하면서 서로 뜻을 다 받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다 내주장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똑같은 입장들이니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죠. 일반회사나 공장같은데 반장 있고 대리 있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그 지시대로 따르지만 여기는 누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고 각자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한 거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되는데 느끼는 대로 말할 수 있고 선생님들한테 내가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 눈치도 안봐도 되고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계셨던 분들은 실제 여기서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데 나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지. 여기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편이라 뭐 먹고싶으면 같이 사먹고 그러니까 마음들은 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회사랑은 적응이 안되는거야. 여

기가 마음은 편하니까. 근무조건이나 뭐 근무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로 꼭 지켜주고 이런 데에서 주5일 근무하는데가 어디있어요? 일하는 현장마다 특성은 다 있지만 하루8시간같이 다른 사업장보다 좋은 조건이 준수되니까 다른 곳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거죠. 마음도 편하고 다른 조건도 맞아 주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때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참자, 또 일하는 것도 다행이다 뭐 그렇게 여기고 살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를 위로하면서 지내는 거죠. (5)

저는 안 그러는데 주위에서 그래요, 월급도 얼마 안되고, 뭐 일도 힘들다는데 나가면은 120만원씩 되는데 뭐하러 있냐, 하는데 저는 여기 다니고 싶어요, 일단은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어서 편하잖아요. 눈치 안봐도 되고,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낮에 잠깐 집이 가까우니까 불일도 볼 수 있고, 근데 주인있는데 가면 개인적인 일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배달을 나가고 나면 남은시간이 있을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안에도 불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편하고, 일단은 주인이 없으니까 편해요. (10)

대표님이 알아서 하니까 신경을 안 썼죠. 우리는 그냥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회의야 하죠..가끔 회의는 하잖아요. 우리들이 역할분담 이나 그런거 보다는 대표님께서 알아서 영업이나 회계나 모두 대표님이 하세요. 한달에 한번씩 회의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요. 대표님이 얼마를 지출해야 하고 다 얘기하셨죠. 근데 난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고요. 대표님을 믿으니까.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한 달에 한번, 몇 번씩 상담해요. 한 달에 얼마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얘기해요. 얼마나 꼼꼼하신데. 철저하게 다 적어줘요. 얼마 벌었고, 얼마 나갔고, 인건비가 얼마 들었고 하는 거 다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대표님을 믿으니까. 다 알아서 하셨으니까요. 뭐.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월급 꼬박꼬박 받고 일만 있으면 되죠. 대표님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표님이 하신 거니까 맞겠죠. 맡긴 일 착실히 하고 월급 받는 거예요. 그거 밖에 없어요.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6)

㉔ 애로사항

자녀양육을 해야하는 역할과 일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있을 때에 비해 생산 주문 등이 있을 경우 일찍 나와서 일하거나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나이 어린 자녀를 둔 참여여성

들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일과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도 이야기했다. 가사일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고 들어가서 스스로 모든 가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애기들 어리면 여기서 일하시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새벽까지 나오고 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6시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방학 때는 계속 6시에 나오고 또 당번이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씩 돌아가요. 문여는 당번. 그러면 7시 전에 나와서 어 그거 다 해놓고 웬만큼 해놓은거 물건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가 어리면은 힘들지요. 못하지요. 대부분 다 거의 다 컷고 제일 어려야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야? 6학년이야? 그것도 위에 언니들이 누나들이 있는 상황에 저기하고. 그리고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아들만 둘인 집은 고등학생 있고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러니까 쥔 어린게 지금 그거예요. 다들 아이들이 손을 안타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와서도 간혹 가다가 보면 전화 해야 되고, 학교 가라 뭐 이런 전화도 해주고, 일찍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고 하면서 해요. (11)

반찬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잔업하고 집에 들어가면 빨리 오면 10시, 10시반 이러니까 그 때 가가지고, 시장 보가 지고, 일할 때 뭐뭐 사가지고, 반찬을 해야 되겠다. 대충 배추 몇단, 파 몇단, 막 다듬고, 절여요, 그 시간에 새벽 3시, 4시 김치 담그면 잠 안자요. 자면은 못 일어나니까 피곤하니까. 밤에 한 두시간 자나? 김치 담그는 날은 한 두시간 자나? 일 하니까 부지런해 지는 거 같아요, 집에 있으면. 많으면 이따 저녁에 하면 되겠지 하거든요. 안하면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해주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9)

건강 문제도 호소했다. 일을 하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고, 임시방편으로 치료를 해 놓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몸이 딱 아픈 바람에. 내가 피가 모잘라요 빈혈이 심해가지고서는 일단은 빈혈수치를 올려놔야되요 빈혈수치를 올려놔야지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안에는 수술을 못해요. 급한대로다가 임시방치 한 5년정도 갈수 있는 장치를 한 상태고 거기서 많이 챙겨줄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도 이런데 지금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병원 다니고 허리는 옛날부터 다쳤던데고 그래서 일하느라고 내 몸을 못 챙긴 거예요 (7)

건강은 그냥 안좋아도 하는 거죠. 청소를 하니까. 앉아서 일을 했다가 바닥을 닦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한참 잡고 서 있어야 해요. 바닥을 닦고 이러니까 그리고 거의 다 손으로 하는 일이니까 손목부위가 아파서 종종 팔목 관절이 안좋아요. 다리도 좀 아프고,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해야죠. 안하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5)

참여여성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간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진통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일반 회사랑 달라가지고,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득을 저희가 다 챙겨먹는게 아니고, 백이다 얼마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몇 프로를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죠. 저는 오래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환원을 하는.. 얼마를 떼고 하는 건 모르겠고, 전체적인 거에서 얼마 이렇게 하겠죠. 개인적으로 얼마 띠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겠죠. (9)

사회적 기업을 표방한 시기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운영되어온 시기에 따라 초기 단계의 경우는 자활후견기관이 제시하는 전망과 이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가 기업체를 만들려고 기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과정이. 여기 이렇게 쪼그말게만 있을거 아니고 크게 이제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일하다 보면 자체내에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도 있어야 된다. 해갖고 이제 대표도 두고 총무도 이제 두고. 체계적으로 기업체마냥 이제 사대보험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해... 저거 해놔요. 법안을 딱 만들어 나서 그렇게 해놔어요. (11)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면서 운영체계 등을 마련해 가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과 비조합원들간의 임금구조,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업무에 대한 역할 구분 등에 대해 갈등이 표출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 대해 불만도 있었지만 운영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적을 때는 무시라고 해도 될만큼 직원 두세명이 지그들 끼리 알아서 하고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해라 결국은 무시당하는데 무시당하고 그냥 지시한대로 현장에서만 뛰는 거야. 그러면 지들은 위에서.. 물론 잘되려고 하는거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요새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왜 저 언니 조합원인데도 저렇게 대우를 받나 그래 가지고 바로 올라가죠 대표한테. 올라가고 막 싸움도 하고. 왜 일방적으로 일반 기업이나 이게 이견 분명 공동으로 조합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산데 누구 맘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냐 뭐 나부터도 그냥 안있지. 참고 있다가도 아닌 거는 바로 건의하고, 조합원회의, 직원총회의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전에 팀장회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거 같아. 처음엔 초창기니까 지금 일년밖에 안되서 머리 쓸 일 많고. 내가 지금도 그렇게 얘길해요 직원들한테. 지금 일어서는 단계고 이제 일년된 회산데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해하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뭐든지 결정하는 것도 상의해서 조합원들과 할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8)

지금 직원들 물품 청구같은것도 잔업을 하지 않아도 100만원이 안 되거든요. 잔업을 안하면 98만 8천원. 직원들은 잔업 안해도 150만원 받아가요.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백한 칠팔십만원되고, 대표님도 조합원이잖아요. 아무래도 하는 일이 많겠죠 대표님도, 부장님도. 근데 일반 회사가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조금 비슷하게 차이는 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잔업을 실컷해도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받은게 130만원. 딱 한번 받아봤어요. 잔업해도 110얼마 120얼마. 그니까 몸은 몸대로 고달프지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지. 잔업은 하면 뭐하냐, 뭇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9)

네 조합원보다 예를 들어서 대표나 부장같은 경우는 200. 원래 저소득이잖아요. 저임금.. 우리가 받는 급여는 생계비 밖에 안되는데 대표는 200, 그것도 이백얼마를 하는데 난리를 쳐갖고 내려간 거 같아요. 우리의 곱을 가져가잖아요. 두배가 넘으면 안되는 건데.. 그렇게 받고 있고. 우리는 100을 받고 있고.. 기본급이 899,000원 9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대표가 일을 하죠. 많이.. 대표는 거의 바깥일을 많이 해요. 바깥에 일을 많이 하니깐 그건 알고 있어요. 많이

한다는 거. 일은 많이 하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급 적게 책정이 되고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회적 기업에서 공동체로 같이 나갔는데 월급 차이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격차가 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타당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8)

③ 기관과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는 분리 독립적인 관계와 관여하는 관계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관여하는 관계는 기관을 후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회계 등에 대한 실무적인 도움 뿐 아니라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미래 전망을 수용하며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계획 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분리 독립적인 관계는 후견기관에서 담당했던 실무자가 결합하여 기관과 분리된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기관과 뿔래야 뿔수 없는 그런 식으로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도 기업을 완전히 분리하고 그럴게는 조금은 관련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기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어려움 처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시는게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죠. (11)

처음에 이제 공동체로 전환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여기가 많이 좋아졌지요. 더 발전하겠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 이제 그러서도 어 우리가 회의를 하거든요. 실무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회의를 잘하고, 우리로서는 자체에서는 그냥 무슨일 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거고, 이제 실무자가 끼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거는 회의를 하는데 못해도 한달에 한번씩은 해요. 왜냐하면 좀더 나은 거를 하자고 그랬어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할려고 계획까지 이제 다 세워서 이제 실무자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겠냐? 다 프린트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모두 회의에 참석해서 오케이 하고 뭐 하면 좋겠다고 좋겠다고 하고 해서 이제 하기로 한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또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우리가 잘 이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바쁘니까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냥 눈뜨면 여기 나와서 이것만 하고 가야되니까. 그래서 너무 발전이 없으니까. 이거 일만 하는 거 뿐이니까. 그러니까 고거 말구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전이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구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렇게 되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막 눈만 뜨고 오고, 눈만 뜨면 여기 오밤중

에 오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예를들어 우리가 만약에 응용을 하는 거죠 많이. 만약에 무슨 반찬을 했어도, 어 맨날 똑같은 걸로 하지 말고, 재료는 같되 색다르게 좀 하고 이렇게 하는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더 어.. 질적으로 높여가는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발전이 되는 거죠. 양을 늘리는 거에 떠나서. (11)

4)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당시에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 자리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곧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침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지금은 자활에서 계속 일하다가 우리가 공동체로 만들어서 전환해서 나가서 우리가 벌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불안도 했었고. 나중에는 병원에 들어가면서 한 두어달 세달 지나가면서 딱 안정이 딱 됐어요 아 여기서도 내가 일할수 있는 곳이구나 안정이 되면서 수시로 대표님들이 와서 저기 하고 여기 좋은 정보있음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엄마가 보살펴주듯이 든든한 건 있었어요. 든든한 것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나라돈만 받아먹으면 안돼 더 사람이 진짜 모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머 이렇게 든든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동체로 전환해서 우리 힘으로다가 돈을 벌어서 살아보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가서 일하면은 자신감이 있고 우리도 떳떳한 하나의 저기 할 수 있는 저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었던 거 같아요. (7)

또한 자신이 맡은 역할은 단순한 작업이라 해도 모두가 열심히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보람도 있다고 했다.

여기는 단순 작업이기는 한데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자활에서 일할 때 보면은 대충대충 아무래도 그렇죠. 대충대충은 안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여기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하거든요. 나 혼자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같이 열심히 해야 그 만큼 돈을 가져 갈 수가 있는거거든요. 개인회사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9)

예전에 자활근로를 했을 때랑은 틀려진 거죠. 이제 회사형태가 좀 갖춰지는 거죠 지금은. 자활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가 선생님들보다 더 컸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지켜줘야지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우리가 일을 못하고 거기서 인정을 못받으면 일년계약을 해놨는데 거기서 더 이상 오더를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야되고 책임감같은 게 있죠. 자활할 때보다 공동체에서 할 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책임감이 생기죠. (5)

이제 여기도 뭐 똑같이 시장 경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인 대상 보다는 노인 이라든... 독거 노인이라든가 이제 아동같이 이렇게 쪼끔은 이 돈을 내고 먹는 그런 경쟁할 수 있는 그런분들 보다는 쪼 이렇게 빚겨나 있는 분들 하고 이제 그 대상으로 하지요. 저기 시장에서 일하면요. 그때 그때 돈이야... 돈이야 받고 저거 많이 벌고 해면은 상관이 없겠죠. 생각이 별로 없지요. 그냥 그거 장사만 잘 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깊은 정... 뭐 그 인간관계 끈끈한 뭔가가 있잖아요. 이 사업은 틀리죠. 직업과 봉사를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거죠. 돈만 많이 받고 하는데 같았으면 다른데도 또 많지요. 일반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거랑은 그런 것도 틀리지.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도 받아가지만 그래도 저기 내가 봉사하는 그런 것도 가지면서 이게 행복감이. (11)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도 했다. 노동강도가 쉰 건 사실이지만 서로를 다독거리면서 지금의 자활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 기업체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며 밝게 내다보고 있었다.

노동강도는 더 쉰지셨죠. 그렇지만 공동체로 오므로 인해서 발전을 되는 거니까. 발전이 되어간다는 것이 막 느껴지고. 우리가 기업체를 만들려고...기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과정이. 여기 이렇게 쪼그말게만 있을거 아니고 크게 이제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소득도 늘어야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면서 발전을 해야지 여기가 안 없어지지 안 그렇고 뭐 맛이 없네. 무슨 사건이 일어났네. 그러면 문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득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문 달으면은 뭐 다른데 가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사대보험 다하고 이렇게 하고 기업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해보는데 까지는 해야돼서 이제 그렇게 할려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거죠. 어쨌든 기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거 사업이 번창해서 조기

도 지점, 이런거 똑같은거 내고, 요기서 하나로 끝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넓게해서...이거는 없어... 문... 웬만해서 닫기는 힘들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이 쪼끄만...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서. 음식에서 뭐하까 그런거를 해서 넓게 나갈려구 이제. (11)

그러나 자활공동체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 자신의 여러 상황이 노동시장에서 다른 일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있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서럽다고 했다.

하여튼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가끔은 이게 이 공동체가 몇 년이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죠. 이대로 얼마 안가서 망하겠지 하는 그런.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제때때 월급다주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을 생각을 하죠. 저희 나이가 비전없다고 딱직장 찾고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비전이 없다고 다른 걸 하려고 그만두죠. 그냥 주부들이 월급 잘 주고 그러니까 만족해서 있지 비전 없으니까 떼다가서 비전 찾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5)

평생 일자리로 보고 있지. 지금 3년 이상 됐고, 일단 잘되고 있으니까 공동체로 나온 것에 만족스럽긴 하지만. 내가 좀 버거우니까 몸이 나이 50이 넘으니까 힘들어지는게. 사람들이 그러지 나는 인제 일보다, 뽁세게 하는 일보다 편하고 좀 그런 거를 해라. 근데 쉬운 일은 없거든. 내가 나이로 보나 월로 보나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내가 인제 몸이 지쳐서 못할 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걸로 생각은 하지. 한편으론 생각하면 서럽지. (8)

자활공동체 실무자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었다. 우선 제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다.

간병이나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한 서너가지 직군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이 여성 친화적인 사업이라는 레토릭에 갇혀 있는데... 사실 그 일들이 대부분이 다 노동강도는 세고 사회에서 인정도 못받고 소득도 낮은 그런 일이라서 약조건에 있기는 한데,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근로기준법상이나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요.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도 그런 거구요. 사회적 기업이란거는 어쨌든 사회에 공헌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헌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공헌은 약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어 일자리를 창출해서 새로운 실직가장 이런 쪽에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을 하잖아요. 시장노동을 내실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공익적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지역사회에 작은 기여를 할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외에도 머 저희가 다른일을 저희가 창출해서 한다면가 그런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이다 판단을 하는 거죠. [1]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적자본적 특성상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는 인적자본이 취약한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을 위해 그들을 존중해 주는 대안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자녀양육 등 여성들이 처한 여건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의 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2~3년 같이 했다고 해서 이념을 투영시킨, 명분 있는 기업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이죠. 주민 분들만 해서 만들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동업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죠. 창업해서 일정 정도 수익도 내고 잘 먹고 잘 살자, 그 정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사회적 기업의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경영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 대부분의 자활산업 참여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을 통해 고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2~3년 해줬으니까 충분히 해줄 만큼 해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해결해라 식의 이런 구성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소외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일정 정도 자신들이 경영을 하고 거기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더 아시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생계 걱정 안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 정도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바램을 갖고 계신 건데, 그런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해 들어가는 작업,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일자리를 끊임없이 원하는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가는 구조로써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주부들이 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남편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노동환경에서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가정환경이 그렇게 다 좋은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집중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 가는,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7]

사회적 기업이 뭐다라고 내용을 갖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희가 만든, 생각을 한 건 아니구요, 그렇지만 순수한 어떤 생산공동체형, 그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체 이런 방식이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과는 사실 일치되지는 않잖아요. 생산공동체 방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단위로는 이미 이제 좀 부적절한 부분들도 있구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한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해서 아 사회적 기업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내서 의미있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윤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에 쓰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목적에, 비전에 대한 공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동일시 해서 저희가 체현을 한거죠. [5]

예를 들면 식당의 일용직으로 12시간 근무하면 월 120만원정도. 좀 썩적은 150까지 봐요. 노동력을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치만 그 노동력을 강제해내는 분위기에요. 시장은 노동력을 강제해내는 것이 돈이 짱아요. 노동강도라는 건 강도의 흐름이 있는 거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내내 힘든건 아니거든요. 강약이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을 타고, 거기 안에서 조율되는 노동강도 하고, 시장은 그런건 아니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은 노동강도를 그냥.. 왜냐면 다른 걸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동강도하고,

그럼 똑같은 시간에 버틸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의지 문제인데, 그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여기는 안온다는 거죠. 의지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몰거 아니에요. 어디든 결국 그런 의지가 없는 분들이 일단은 찾는 거예요. 그 다운되었던 노동력이 인센티브나 그런걸로 인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활의 정점은 그 사람이 그런 의지를 100%로 가졌을때 난 원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그 사람 그 일 할거예요. 여기에서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은 계산이 선다면 그렇게 자기의지를 뽑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뽑아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돈의 가치로 계산을 하겠죠. 이분들이 이런 애길 하신다 말이에요. 눈치 안보고, 내 흐름대로.. 이 여성분이 시장으로 가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일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업장 내에서 존중받고 그 30만원의 절대 가치가 그 금액의 가치가 이분들은 다른 식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거라고. [6]

또한 사회적 기업은 현행 제도에서 전제하고 있는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의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이 맞으며, 아직 확정된 혹은 정해진 모델이 있다기 보다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기업 그것의 대안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구요. 모든 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을 표방할 수 없잖아요. 몇 분의 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내용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적어도 좀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영역을 고민하는 단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일반 생산공동체를 다 집어 넣어도 나중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산공동체를 성공시키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공동체를 무조건 2년이건 3년 이면 자활근로가 끝나면 만들어야 한다 그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요, 사회적 기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 이런 단위들이 몰려나고 그런 것들은 성공가능성을 안고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보는 사회적 기업에 몇 가지 유형밖에 없으니까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영역이 모든 생산아이템이 다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공동체 내용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가치를, 여기서 돈을 벌

어서 임금도 가져가지만, 다른 사회 환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치가 되요. [5]

지금도 사회적 기업이 그 한국사회에서 뭐다, 어떤거다 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태동되고 그러는게 불과 1~2년 사이인 거 같아요. 우리가 어떤 내용에, 어떤 기업의 문화를, 어떤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속에 많은 아픔들도 있지요. 왜냐하면 잘 아는 두 사람도 절친한 친구사이에 동업을 해도 동업이 쉽지 않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운데, 수가 열 명이 넘어가는 그런 회사에서 일반 회사같은 경우는 사장이나 대표이사 위에서 그냥 바로 명령하면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고 맘에 안들면 고용된 직원이 그만두면 그만인 회사가 일반 기업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없고 함께 서로 내용들을 가지고 가야되는 건데 그 안에서야 아픔이라는 게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5]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외국의 풍토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의 상에 대한 논의 없이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자칫 일반기업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기업이 완전히 완전히 유료 사업을 지향하는 형태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게 등장하기가 사실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풍토에서는 그게 가능할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 보호된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을 또 하는게 초기에는 더 맞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안되면 일반기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만 운영이 될것 같아요. 그 큰 차이가 없는... 그냥 명함만 사회적 기업을 딱 찍어내면서 가는 형태가 양산되는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는 어떤 조직보다는 기업의 특성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그 원래 갖고 있던 가치지향적인 부분은 계속 가져 가시고 하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환원이나 참여의 형태가 있어야만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정 부분 사회적 약자인 실업과 빈곤계층의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그 안에서의 다른 일반 기업들보다 민주적이고 이런 구조를 가지는게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사회의 여러 단위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책임지는 운영위원회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있는데 저는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는데, 저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민주적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기했던 총회 내지는 그 안에서의 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마 점점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다. 포기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급식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사회적 기업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저는 그 내부에서의 그 구조 자체는 일반 기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이 분명히 도입될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포기하고 가게 될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4]

<표 Ⅲ-3>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 조사결과 정리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	
임금과 노동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급제 형태로 운영됨. • 노동강도가 자활근로사업 때 보다 강화되었으나, 일자리 및 소득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만족함. • 비슷한 사람들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 만족함.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역할과 일과의 갈등, 가사일과의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건강 악화됨. •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간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진통과 갈등이 있기도 함.
기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 세팅을 하는 경우로 구분됨. 후자의 경우에는 기관을 든든한 후원자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함.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전환 당시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로 생각하며 곧 안정감을 가짐. • 모두가 열심히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낌. • 수익내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보람이 있음. •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재는 노동시장에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있음.
실무자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회적 기업은 자활공동체의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이 적절하며,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봄. -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의 상에 대한 논의 없이 도입할 경우 자칫 일반기업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다) 인력파견형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는 간병, 가사도우미 등 준전문직 집단의 사단법인 형태를 띠는 자활공동체에 해당한다(엄태영, 2004 ; 이문국, 2004).

□ 임금과 노동강도

인력파견형의 경우 공동으로 수익을 만들고 그것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닌 각자 일한 만큼 갖고 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여성들은 자활공동체로 전환했다고 해도 임금수준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자활공동체로 전환한 이후에도 조건부 수급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생계비가 보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에 어려웠고 인력파견업의 특성상 일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도리어 자활근로사업단 낮은 소득을 갖게 되기도 해서 전환 이후에 생활이 더 나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들쭉날쭉하니까 어쩔 때는 조금 생기면 못했던거 다 갖고 돈이 또 없죠. 유월달에 오십구만원 벌었구나 7월달은 어쩔수 없어. 칠월달에 백만원 벌었어 이 번달에 십만원 벌었어요 8월달에. 그렇다고 또 그때는 그나마 이제 일자리라도 계속 있는건데, 지금은 또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안돼죠. 더 나빠진 거죠. 상황은 더 나빠졌어. 저는 더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자활 후견기관에 있을때는 일정의 월급을 갖고 가고 일만 열심히 하면은 한가지는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돈을 내가 월말이 되면 얼마 월급이 나온다는게 이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안정적인 생활이 안되잖아. (16)

일이 있다 없다 하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안되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유료로 나와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일이 꾸준하게 있어서 한달에 내가 월급을 얼마를 딱 타온다는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데 제일 걱정이예요. 이제 일자리가 언제 없어질지를 모르죠. 환자가 퇴원해 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병원에 일자리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시죠? 일자리가 꾸준한 일자리가 안되니까 수입이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쥔 걱정이예요.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보조는 생계비는 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넉넉지 않잖아요. (13)

나 같은 경우는 수급자니까 50-60만원 나와도 국가에서 20-30만원 도와주니까 되지만 일반으로 나간 사람들은 50-60만원이면 그걸로 수입이 끝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보조를 받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분들은 보조가 없으니까 힘들죠. (14)

특히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면 임금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노동강도가 강해진 반면 임금수준은 향상되지 않았고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9시간 출퇴근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73만원은 타요. 예전에 사업단이란 비교했을때랑 별로 차이가 없지요. 24시간 정도 하면 105만원 110만원 정도 벌지요. 보름 일하고 그 정도 버는거니까 12시간씩 하루도 안빠지고 일했다는 거지요. 사업단에 있을 때 보다 지금이 더 힘들죠. 열심히 일해줘야지요. 이제 사무실에서 봉사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조건은 더 나빠졌죠. 애들이 컸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업단이란 비교해봐서 뭐 크게 급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저축은 한푼도 없어요.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애들하고 교육 뭐 교통비라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저축은 안되더라고요. 보조가 이렇게 꼬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뭐 다 있잖아요. 급식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집세 내고 그냥 대신에 밥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 하나도 못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거 집에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죠. 뭐 5년전 생활이나 지금 생활이나 나아진 건 없는데. (16)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양육 문제 등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나마도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 때문에 타 업체보다도 낮은 수준일 수 밖에 없어서 소득수준의 향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고객분들이 업무를 좀 연장해서 해달라고 해서 근무시간 연장해 달라고 하면 추가보수를 받는데 한시간에 오천원이예요. 근데요 그거가 원래 회사에서도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이라고 해서 금액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1.5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안 그래요 다른 곳보다 적어요. 저희 네시간에 이만오천원이거든요 네시간에 이만오천원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추가가되면 시간당 오천원이니까. 근데 어떻게 올릴 수가 없어요. 서로 경쟁이 있거든. (16)

공동체로 나와서 더 힘들어요. 일자리 확보도 그렇고 자녀문제.. 이일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일이 시간적으로 너무 일 자체가 이 간병일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서 24시간씩하고 어떻게 돼서 뭐 12시간씩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애를 두고 혼자 이렇게 나와서 24시간 이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라 첫새벽에 애 밥...학교 가는 것도 못보고 새벽같이 나와서 저녁에 늦게 늦게까지 그러는 것도 그렇고, 제가 뭐 배부른 소리 하는건진 모르겠는데, 그런 쪽이 너무 힘들어요. 생각만해도 아주 그냥. 그리고 꾸준하게 어디가서 이렇게 딱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안되니까. 꾸준한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13)

㉔ 애로사항

참여여성들은 먼저 일과 돌봄 역할 간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인력파견업의 경우 매일 9-6시와 같이 고정된 근무시간이 있지 않아서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대,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대 등과 맞지 않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강도가 쉰 일을 할 수 밖에 현실에서, 자녀양육 문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간병일 자체가 시간하고 싸움이예요. 월급은 진짜 뭐 병원에서 한달 살아야 150만원 하잖아요. 시간이 문제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가정은 완전히 그냥 팽개쳐 놓고 가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작은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원을 못보낼 망정 따뜻한 밥이라도 이제 좀 한끼 해주고 싶거든요. 저같이 애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24시간씩 계속 병원에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먹고 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애는 봐야 되고 그렇다고 12시간 짜리를 골라서 가면 12시간 짜리 일이 어디... 12시간 짜리는 진짜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 일은 거의 다 24시간을 아예 거기서 먹고자고 하는데 그게 쟈 걱정이예요. 왜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애들도 팽개쳐 놓고 돈만 벌러 나가야 되느냐구요. (13)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출퇴근은 2주에 60만원이예요. 근데 입주는 2주에 90만원이예요. 한달하면 180만원이구요. 또 고객이 입주를 요구해요. 거의 반은 입주하고요, 반은 출퇴근 형이예요. 다 입주하면 자기 자식들은 다 내팽개치고 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고객분들은 입주를 원하시잖아요. 그집에 가서 먹고 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내 자녀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뭐 사회에 많이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래도 내가 없어도 애가 사회에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일 어렵죠. 이 사업의 특성상 고객의 시간에 맞춰야 하니까 내 자녀는 자동으로 뭐. 고객이 오늘 열시까지 일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안해줄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녀는 밥을 굶어도 내 고객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되니까. 자녀 문제가 제일로 그렇죠. 지금 엄마들은 네살된 애들 놓고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쓰이고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5)

일과 돌봄 역할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도 하는데, 주변에서는 특히 30, 40대의 연령층은 그래도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하지만, 본인들은 노동시장에서도 이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시간대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활공동체에 잔류하고 있었다.

애들이 좀 더 크면 어디 (일대일)이라도 가서 어디 병원에 가서 먹고 자고 한 다지만 아직 밥 해줘야 할 애도 있고, 내년엔 고3인데. 뒷바라지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지요. 공동체로 나온 거에 대해서 부담이 많죠.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일을 못하고. 애들이 돌인데, 어리니까 그이도 결국은 다른 일로 갔어요. 또 그런 사람은 그래도 40대니까, 공장이라도 들어가지. 난 공장도 걱정이예요. 지금 시간 문제도 그렇고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뭐 하다못해 공장이라도 간다고 공장쪽 이런쪽으로 뭐 회사쪽으로 다 나가드라고요. 시간대 때문에. (13)

둘째, 자녀문제와 함께 가사노동과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 부담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일자리는 대부분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자리이고, 이런 일이 소득은 더 벌 수 있지만 건강이 더 나빠져서 일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었다.

집에 오면 너무 늦어요. 나두 집에 오면 밥 해먹고 아홉시가 넘어요. 나도 모 시간이 없어요. 그게 불만이에요. 오천원 더 벌려는 것 보다 그런게.. 먹고 자고는 못하지. 애기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도 어려워. 네 살짜리를 어따 갖다 놔. (17)

일자리는 계속 있는데요. 24시간 아니면 없어요. 여기 일자리는. 제가 뭐 배부른 소리라고 제가 이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 여섯명을 본다는게 계속 그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거는겁나죠. 체력이 이제 받쳐주는냐 그게 좀 걱정이죠. 제가. (13)

셋째, 참여여성들은 일을 하면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우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낮았다.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평가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숨기고 싶어하고 있었다.

직업중에서 쟀 뭐 그런 직업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사무실쪽에서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부딪치는 거는 진짜 그럴죠. 정말 뭐... 막말로 똥 만지면서 대접 못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죠. 그러니까 어디가서 솔직히 뭐 동생들이고 언니 무슨 일해? 하면 선뜻 얘기하기가.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라곤 하지만 그게 안되더라구요. 숨겨지더라고요. 숨기고 싶은 직업이에요 저는. 근데 워낙 제가 너무 힘드니까, 감사하면서 일은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숨기고 싶은 직업이에요. (13)

파출부라고 하면 내가 부리는 사람 같잖아요. 관리사라고 하면 내가 관리를 받는거 내 위사람 같잖아요 느낌상. 용어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어 그래 여기는 그럼 관리 해줄게 우리도 그럼 그럴 수 없지 파출부 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지만 내가 거저 갖는 돈은 아니거든요. 힘닿는 데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일 해주고 음식해주고 쓸고 닦고 입에 들어가는거 다 해주는데 뭐하러 우리가 아랫사람 취급받아야 되요? 그럴 수 없거든요. 옛날에는 사모님 모 이랬는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 그 말한마디에서도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할꺼 같아요 우리 자신 자체가 어느 집 갔는데 사모님 어찌고 아랫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16)

또한 여성들은 파견처에서의 낮은 위치를 실감하고 있었다. 무조건 협조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힘든 일도 마다않고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하지 않

있을 때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힘듦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이의제기하지 못한 채 과견처에 맞추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 인식 문제도 그렇고. 간병사랑 의사 분들이랑 간호사 분들이랑 문제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해야 먹고산다는 거의 뭐 많이 무조건 협조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죠. 병원에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면 이거 아니면 제가 어디가서 뭐해서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13)

우리는 하루를 일해도 산모관리하고 아기 관리하러 가는 거지 파출부는 아니고 응 파출부 아니잖아요. 우리는 꼭 가정집으로 가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집이 잘 걸리면 편하지만 어떤 집은 잘못 걸리면 커피도 한 잔 못 얻어먹을 만큼 일을 해주고 와요. (14)

근데 요즘 엄마들이 애기를 낳으면 100일때까지 사람을 써요. 손까막을 안 할라고 그래요. 물도 갖다 바쳐야 되구요. 우리 딸은 어렵게 살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혼자 다 키워요. 그런데 어느 쌍둥이 엄마는 매일 사람이 맘에 안한다고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돈을 지불했고 좀 힘들다고 자기가 낳은 애기를 밤에 못데리고 자겠대요. 그래서 그 애기를 관리사가 데리고 자고. 그분을 깨워서 모유수유를 좀 하라고 하면 귀찮다고 신경질을 낸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엄마들이 힘들어 해요. (15)

낮설은 과견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인력과 견업은 업종의 특성상 일정한 고정된 작업장이 아닌, 매번 파견되는 근무처가 상이하므로, 어떤 근무환경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업무량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이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회원 중에 산모서비스를 처음 하시는 분 중에 '왜 처음 가는 집을 자기 혼자 보내느냐 같이 가달라' 근데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팀장이 가든가해라 매번 처음 가는 집을 같이 갈수가 없다 라는 단점이 있죠. 선배관리사 같은 경우는 자기 일 다 차지하고 가는데 내 일 빼

먹고 그 집 갈 수가 없어요. 내일이 다 그렇게 이 언니도 처음갈 때 혼자 갔고 나도 혼자 처음 갔어요. 내려오는게 그렇게 가는거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그냥 보내느냐 그렇지만 마땅히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가줄 사람이 그렇게 진짜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그러면 따라다니는 그 인건비는 누가 줄꺼야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다들 그냥 그러려니 했으니까 이렇게 갔지만 잠재되어 있는 불안감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갔는데 진짜 분위기가 험악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다들 그렇게 갔던건데', '안당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쩌다 당하는 사람은 누가 보장해주느냐'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생각에서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16)

어떤 분이 팔십 먹은 할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일하는 여자가슴을 만진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내가 사무실에 얘기를 했어요 안되거든 그래서 딸인가 며느리인가 얘기하고 그 집을 잘랐어요. 끝났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여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없지 않아요. 처음 가는 집 같은 경우에 근데 어떤 그 험한 세상이다 그러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대책없이 사는거예요. 그죠? 처음 가는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전화 받고 일단은 그냥 나가니까 얘기하다보니까 그것도 그러네. (16)

또한 일하다가 겪게 되는 위급 상황에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 등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런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지 계속 해도 이게 저기는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 아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집집마다 얘기 상황이 다르니깐 좀 위험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내가 관리 잘못하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 책임이 크니깐. 아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 책임도 크잖아요,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망까지 가면 그런 위험은 있어도 간병보단 좋아. 아기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후견기관에서 뭐 도와주거나 그런거 있어요. 큰 아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생아를 다루는 거니깐. 생명을 다루는 거니깐.. 잘못하면 아기를 죽일 수 있어요. (14)

아까 큰일이 있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느냐. 저희 각자한테 있는거 같

아요. 여기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해 줄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불안하져 어떤 진짜 상들리에를 깨가지고 물어줘야돼. 백만원 뭐 하는데 그 달라는 거지. 그런거 있었고요. 하다못해 며칠전엔 다리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안되는데 이게 작년엔 샀대요 황당한거지. 97년도꺼라고 찍혀있는데 작년엔 샀다고 우기는거예요. 고장날 때가 되었거든요. 백화점 직원도 아니고 가서 일도와주는 사람이 무슨 봉이냐고. 작년꺼를 작년꺼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사주지만 97년이면 몇 년이야 8년이에요. 8년 전꺼를 작년꺼라고 거짓말하면 안되죠. 우리가 눈이 없는것도 아니고 대충 보면 문명도 아닌데 아 작년엔 샀어요. 이러면 우리한테 속보이는거지 고쳐서 주는데도 부품도 없는데 사만오천원이나 들었어요. (16)

넷째, 현행 자활공동체 적립금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인력과견업의 경우 파견 나가는 참여여성들 자체가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자활공동체처럼 각종 기기를 구입하는 등에 적립금을 쓸 일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업종의 특성에 맞게 적립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일단 사업장에서 저희가 적립을 해줍니다. 유료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왜 그거에서 70프로밖에 저희가 공동체에 나갈때 쓸 수가 없는거지요? 70프로만들 가지고 공동체를 나가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다 해도 되는건가? 저희가 그동안 모아놓은게 머냐 일억이 넘게 있나 봐요. 근데 이걸 다른 사업단이 공동체로 나갈 때는 단기간에 사업단이 이걸 싹 쓰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도구거든요. 저희가 일하는 거지, 기계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단기간에 쓸 수 없거든. 컴퓨터를 산다 모 냉장고 모 하다못해 이런 걸 사도 그건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끔 이거를 일년이든 아니 이년이든 3년을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안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공동체는 진짜 수개월동안에 그거를 다 사용한대요. 일단 임대료가 쎄 큰 걸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기계같은거 사는 것도 다른 사업단은 원래 크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운영비로 쓰게 해달라' 저희가 운영비는 내고 있어요. 내는데 사실 인원 얼마 안되는데서 운영비 받아야 전기세 머 이런거. 사실 전기세 참 많이 들잖아요. 겨울에 난로도 쪼아되고 그렇게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로 제할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집기 사봐야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잖아요. (16)

다섯째, 교육훈련을 받기 힘들다고도 했다. 일 자체가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해오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 자활근로사업에 있을 때는 교육훈련을 받을 때도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자활공동체로 나오면 교육훈련 받는 날 하루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일단 이게 가정관리사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쉽게 보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결코 쉬운건 아니거든요. 여자들 맨날 했으니까 어려울게 모 있어 똑같은 일인데 안 그래요. 내 집일하고 남의 집일이 틀리고 또 내가 경험을 가지고 하는게 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남에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집처럼 대충하면 분명히 욱먹죠. 내집살림하고 남의 집 살림하고 틀리거든요.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이거 이렇게 하는게 있고 이거 이렇게 정리하는게 있고 틀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나오는건 집에서 쉬다가 나오는 거기때문에 사회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고요. 사실은 나오는거 좋아하고, 사실은 좋거든 집에 엮매여 있다가 나오면 내일이 진짜 나가서 바람이라도 콧바람을 쐬는것도 좋은거거든. 돈은 둘째치고, 근데 그 의욕만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안에 골고루 다 할라고 하면 손도 빨라야하고 해야되는데 일 머리를 모른다고 일의 순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거 가르쳐주고 그걸로 누가 쫓아다니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인원이 되면 모아서 교육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해줄 수 없으니까 작지만 그런 거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16)

교육이 있다 치더라도, 토요일은 없잖아요. 금요일까지니까, 그 쪽에서도 안 타까워하세요. 왜냐면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도, 병원측에 의뢰를 맡아서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꾸 그 쪽 교육에 빠지니 어찌니 말이 나오면 안 좋아하죠. 병원에 지장이 있으니까 환자를 그 때 그 때 치료하고, 그 치료비가 나오잖아요. 그게 막대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은 여기 룰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도 안타까워 하시죠. (12)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중 대표를 세워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진입형 인력파견업의 경우,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 대부분의 업무를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로

부터 자활공동체 대표로 이양해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애로점들이 있었다. 자활공동체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정적 소득을 가져갈 수 있을 때가 자활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공동체로 나가서 자활에 있을 때는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공동체로 나가서 모든 것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이 사업단이 없어지고 우리는 또 갈 데가 없어지고.. 이게 보통일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가더라도 우리는 못배우고 몰라서 못하는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죠. 무조건 구청에서는 공동체로 나오면 벌어서 먹고 살아라, 나 몰라라 그러는 거죠. 아직은 자활이 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자활공동체지요. 제가 생각하는 자활공동체는 우리 회원이 25명이 있으면 그 25명이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을 때가 자활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안되고,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2~3년은 정부에서 도와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5)

저는 지금 월급이 구청에서 자활월급이 하루에 일당 2만8천원씩 월요일에서 금요일만 따져가지고 한달 계산되서 나오는데 그 금액이 한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부에서 공동체로 가면 인건비를 일년만 지원해 준다대요. 그런데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최소한 백만원은 벌어야지, 학교보내야지, 임대료 내야지. 그게 지금 제일 걸림돌이에요. 제가 한 일년동안 어차피 산후조리 시작을 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디가서 대출을 받아서 좀 해봐야되나 매일밤을 잠을 못자고 고민중이에요. 일단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제 월급을 가져가긴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지금 문제예요. 후반기에는 좀 열심히 해서 인원이 40명으로 늘어나면 내월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어머니가 노력해서 용돈을 벌어가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좀 막막해요. (15)

또한 현재 인력과건업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유료알선업으로 등록되는데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시장에 있는 업체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세금 등에 있어서 부담이 크다는 점, 사고 발생시 대표인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의 부담감, 지속적으로 일을 발굴해야하는 것의 부담스러움, 시장 경쟁력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참여여성들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영업이나 홍보를 위한 비용이 부족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토로했다.

- 사업자 등록과 세금 부담

거기 이제 제일 걸림돌인 문제가 사업자등록을 내야지 이것도 사업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진짜 문제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소개업으로 내야 맞는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냈어요. 그러니까 세금문제도 그렇고 이런게 좀 문제가 되어서 고민이 많아요. 지금은 개인이 하는 업체나 내가 지금 간이로 허가낸 업체나 똑같이 세금을 받고 있고 다르게 없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자활공동체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세금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곳보다 저소득 엄마들이니까 조금만 더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능력은 있는데 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사고에 대한 책임감

큰 사고가 날 때는 제가 그걸 책임질 능력도 없고. 그게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관리사가 애기 목욕을 시키다가 애기를 물에 빠뜨린 적이 있어서 법적인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면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게 좀 위험하죠. 제가 어떤 능력도 없고. 그쵸.

- 일 발굴의 부담

8명이 처음에 공동체로 나올 때도 다른 분들은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자녀들이 학자금같이 지원을 못받게 될까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공동체를 만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한분씩 다 설득을 시켜서 지금 생계비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해서 공동체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짐이 무겁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활에서 일을 하던 관리사분 8명이랑 저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가장, 아니면 남편을 사별하고 애 셋을 키우는 엄마들,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정말 형편없거든요. 11평 아파트에 살고. 그런 엄마들이 하다가 공동체로 갖고 나와서 제가 사람을, 회원을 이정도로 많이 늘려가지고 계속 발로 뛰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홍보보다, 홍보가 되어야 회사 물건도 팔리고 그러고 우리가 홍보가 되어야지 고객들이 알아서 온다 그래서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오늘 사람을 몇 명 만났나 체크하고 일일계획서를 세우고, 일주일계획서를 세우고 내가 일주일동안 일을 몇 개나 땀나, 말

하자면 나는 영업사원이랑 마찬가지로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25명 여성가장들이 다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데 저만 믿어요. 지금 그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저만 믿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껴요. 오늘도 고객분을 만나러 가는데 2주를 부탁할 것 같으면 말을 잘해서 3주를 만들고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보려고 그러고 있죠.

• 회원 관리의 어려움

저소득 엄마들은 관리가 안되는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걸림돌이에요.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다른 엄마들은 엄청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들은 자기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우린 고객하고 직접 만나야 하니까 자기한테 물론 돈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그런게 좀 어려운 점이죠. 자기관리를 어느 일정 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그런거죠. 그중에 자기관리가 너무 안되신 분들은 막 파마도 부스스하고 오천원짜리 면티나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사실 저한테 제일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일을 안줄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내면 산모들이 이분은 너무 아니라고 다른 분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런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산모들이 인상이 별로라고 말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 돈걱정하느라 그런거거든요 정말. 지금 생활수준에서 자기한테 쓸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천원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남편은 새여자 얻어서 살고 자기는 애들 데리고 살고 그런 엄마들이 거의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너무 달라요. 어제는 분명히 9시에 어디에 파견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연락해보면 전화기를 딱 꺼놓고 문을 딱 걸어놓고 내가 찾아가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러죠.

• 영업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 부족

개인업체들은 막 돈을 투자해서 좋게 하는데 우린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따라갈 정도만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 소득으로 다들 잘 살게 되지 않을까 해요. 똑같이 경쟁을 해야되는데도 개인업체는 2주동안 계약하는 산모한테는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게 전혀 없죠. 내가 말만 잘해서 일을 따와야되는 거죠. 광고비같은 거.. 그건 많이 들어요. 네이버같은데에 출장산후조리를 치면 아가마지가 딱 뜨게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모들이 출장산후조리를 찾으면 제일 밑에서 아가마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따라가죠. 개인업체들을. 그래서 조금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홍보도 좀 해주고. 홍보비만 조금만 있어도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안돼요.

•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부족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도 제

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그런걸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만 한거예요. 선생님이 세금신고하고 내고, 나는 사업자등록날 때만 따라가서 있었지. 그런데 세금이랑게 나중에 밀리고 못내고 그러면 나는 빚만 떠안는게 아닌가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만 한거예요. 어디가서 알아볼 데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카드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나는 소개업으로 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객한테 한달 어떤 분이 가서 일을 했는데 180만원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180만원을 떼주면 이게 다 우리수입이 아니잖아요. 수수료 10프로 떼는 것만 우리수입인데. 다 우리수입인 것처럼 해서 세금이 나오는거예요. 세금감면받는 혜택이 있다는데. 그걸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싶죠. 잘 모르니까 상담을 좀 받고 싶고요. (15)

③ 기관과의 관계

자활후견기관이 갖고 있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상에 따라 기관과의 관계는 구분될 수 있었다. 시장형을 지향하는 경우는 자활공동체와 자활후견기관과의 분리를 지향하고 공공성을 전제하는 제도화를 지향하는 경우는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으로의 제도화를 도모하는 경우는 분리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었다. 참여자들간은 운영회의나 월례회의를 통해 참여자들간에, 자활후견기관과 소통하고 있었다.

파트당 다 팀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다 이제 연락해 주시고. 일거리도 알선해 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하죠. 행정이고 뭐 다 담당하시고. (13)

제가 산후조리하고 싶습니다라고 홈페이지 올라오면 제가 고객한테 나가서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해서 일정표가 이렇게 있고 약관이 있습니다라고 자세히 제시하고 관리사 분들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 것이랑 교육은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약을 해 와요. 그리고 일하는 관리사들한테 그분을 파견해서 연결해 주고 있죠. (15)

저희가 한달에 한번 운영회의를 해요. 저희 안에서 대표자, 지부장, 간사 있고 실무자가 총무부장을 맡아요. 저희들 업무관리를 하느라고. 그렇게 해가지

고 한달에 한번 운영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하고 월례회를 해요. 월례회에서 전체적인 이야길 해요 월례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고 우리끼리 실무단 사무실 실장님이나 운영회의를 하고 그때 모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월례회 때 전체적으로 거기서. 그런 일년에 한번씩 저희 정기 총회를 하고 임시총회도 하시고 결정을 하고. (16)

④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와 소득수준이 계속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었다. 더구나 업종에 따라 현재는 수요가 많지만 이후 전망이 어두운 점을 인지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했다.

공동체로도 나와가지고 일자리가 이렇게 꾸준하게만 있으면은요. 이쪽 수입이 더 나요. 수입은. 이쪽 수입이 난데.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서 놀게 되고 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활에 있는거 보다 훨씬 못하죠. 일이 계속 꾸준하게 이런 일자리를 준다고 그러면 나오는데 낫죠. 그게 안되고 하루 일하고 뭐 이틀 쉬고 뭐 이런식으로 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거죠. 생활이 안되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하죠. 그리고 자활에 있을 때는 그냥 어찌됐건 눈뜨면 출근하면 되고 가서 열심히 일해주면 되고, 환자한테 잘해주고 뭐 그런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만하면 됐는데, 여기서도 일자리가 불안정하니까. 아이고 이려고 있다가 언제 또 일자리 없어지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가 않죠. 밖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공동체로 나온 거에 대해선 안 편하죠. (13)

우리가 딱 애기낳은 엄마들 집에만 가는게 아니고 산후조리원 갔다 온 엄마도. 정확히 말하면 삼칠일안에는 40프로가 회복기에요. 육주까지는 어느정도 조리를 해주어야지 그래도 나중에 후환이 없거든요 우리가 딱 애기 낳아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애기도 하지만은 산후조리원에 갔다온 사람도 갔다와서 어떻게 애기를 돌볼수가 없거든요. 교육이 안되 있어요. 그런 그 틈새도 우리가 노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애기를 낳고 그래도 우리가 비빌 수 있는 거는 산후조리원 갔다 왔을 때 내가 바로 살림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가사를 쓰실 수도 있고 산모를 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없다고 해도 모 애기를 안 낳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사실 다른데는 넘보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직장이 라곤 생각을 하는데 불안은 좀 하지. 원래 들쭉날쭉하니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애기를 안낳잖아요. 애기를 안낳고 낳아도 귀하니까 내 자식은 머 거의 떠받들 듯이 하니까 이제 수요가 없다고 해야 할까 그런 거에. 하나니까 정말 시설

좋은데 가서 하자 이런 경우도 많고요. (16)

다른 대안이 부재해서,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다.

50대 60대 되도 우리는 산후조리 하긴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일 시키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들 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많으면 불편하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 시키면 좋은데 60대 되고 그러면 뭐 사람들 마다 다르지만 부모 같으니깐 사람에 따라서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젊은 사람들은 시키기 좋은데 10살도 아니고 20살이나 나이차이가 나니깐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맞는 말이에요. 다른 업종에 가서 그 업종이 좋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할 생각이예요. 배운게 산후조리니깐 계속하려고 해요. (13)

이 나이에 모 어디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채용하는데도 없지만 그리고 진짜 알아보니까 식당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애들을 놔두고 어떻게 식당에서 열두시간을 근무해? 못해요. 어린이집도 봐주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리 개네도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는 시간이 엄마 때문에 긴데 일찍 끝남에도 불구하고 엄마 때문에 기다려야되는데 공장도 삼교대래 돈은 백만원 넘어가면 열시간 열두시간 근무래. 아니 열두시간 근무래 갈수가 없다. (16)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를 실무자들도 인력파견형 사업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다. 인력파견 형태를 띄고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인 간병, 가사, 산모 도우미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무엇보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적자본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저희는 가정부, 파출부 등이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걸 띄운 건데. 사실 이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개인 그 특유의 라이프스타일 그 라이프스토리가 있으시지만 인제 거의 저학력이시고 가족환경도 그 생활력이 이제 그 경제력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게 그 파견업이 가장 그 접근하기가 쉬워요. [1]

수급자의 지위를 이렇게 털어내고 노동시장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루트로 그러니까 일자리로 의미가 있다고 보죠. 일단은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력이나 아니면 연령이나 기술면에서 그러니까 하실수 있는 일의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중에서 일자리를 쫓 나열을 해놓고 보면 그 적절한 기준이 있다. 간병이. 우리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현재 조건에 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1]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풀기 힘든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먼저 대부분의 여성 집중 업종이 사회적 인지도가 낮고, 저임금에 노동강도가 쉼서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오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빈곤여성들이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이 낮는데, 일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로는 그런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강도가 쉼서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건강에 무리가 있어서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간병이나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한 서너가지 직군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이 여성 친화적인 사업이라는 레토릭에 갇혀 있는데 사실 그 일들이 대부분이 다 노동강도는 쉼고 사회에서 인정도 못받고 소득도 낮은 그런 일이라서.. 사회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은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에 이게 안되는 거예요. 아직은 대다수가 현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인지도가 높은 사회적 인지도 높은 사업을 하면 참여를 했을 때 나가서도 아 나는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질꺼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업단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템 자체가 이제 시장으로 진입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수직구조 안에서는 낮은 쪽에 갈수 밖에 없는 아주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전문성 전문직이라고 내가 여길 수 있으려면 어느정도 그런 자기에 모 그런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갖출 수 있는게 안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시장하고 경쟁하고 자기 스스로에 그 전문 내가 전문가라는 인식도 커지고, 제일 가슴이 아픈게 그런 거죠. 이분들이 몰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시는 거 배워서 조금이

라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되니까 저도 그걸 해결해드리고 싶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1]

이 업무가 노동강도가 쎄잖아요.. 노동강도가 쎄니까 이분들이 몸이 많이 힘들세요. 그러셔서 일을 쭉 다 하셔서 인제 차상위, 특례로 가셔야 정상적이지만 그런 거 때문에 소득을 버실 수가 없어서 다시 내려가시는 거죠. 저희가 보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보지만 하시다가 어깨에 무리가 오신다든가 이렇게 되시면 바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더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노동강도가 쎄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노동강도가 쎄니까 불안해 하시는게 있어요. 사회변화 흐름상 필요하다 그리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점차 개선이 인제 저희 직업군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지금은 신체건강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깨나 팔목에 관절에 무리가 오면 일을 크게 못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담을 해보면 많이 있으세요. [1]

또한 일정한 노동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곳으로 파견되는 일이라 노동환경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고, 특히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거나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분들이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 어려운 점들이나 정말 일하시다가 머 목욕탕 청소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사고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보장받을 길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일하시다 보면 인제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치셨을 때는 하루 버시는 서비스 요금보다 치료비가 더 나가시니까 그런거 때문에 산재보험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인제 안심을 하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디스크가 걸리셨을 경우 이제 완전히 손 놓으셔야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산재가 되면 그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보시니까. [1]

그리고 고객 수요에 맞는 시장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점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소비자들이 요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고, 조선족이나 남성 도우미 등 다른 집단들과의 일반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령이나 학력 등의 인적자본적 특성,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일단 시장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시장은 저희가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가 있잖아요. 가사도우미는 그래요. 물론 그냥 단기 교육을 받고도 나가실 수 있어요 있는데. 가사도우미에서도 인제 힘드신 점과 인제 전자제품들을 쓰셔야 되는데 전자제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요즘엔 모 거의 기본적으로 김치냉장고 스팀청소기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계를 사용하는 걸 극히 두려워 하세요. 이게 더 편하고 더 깨끗하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우신거예요. 기존엔 사용해보시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는 그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력이 낮으시고 인제 불우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정말 베이비시터를 하고 싶으신데. 요즘은 또 고객들이 배우신분들이 아이들 막 지도하고 이런 걸 해주길 원하는 거 영어 가르쳐주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안되시는 거죠. 영유아만 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보완하려면 여기서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큰데 이분들이 그걸 배우고 싶어도 그 기술 교육이나 이런걸 하고 싶어도 체계적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낮에는 자기가 정말 일한 만큼 가져가셔야 되는데 교육을 받다보면 소득이 적어지고 일을 하시면 교육을 못 받고 이런 것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1]

시간흐름이 이젠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오십대 막 할머니분들이 TV에 나오실 정도로 그런 가사도우미형태가 그랬지만 지금은 젊으신 분들이 많고 남자도 있잖아요. 남자 가사도우미 정말 이분들이 으 자기들이 요금을 내기 때문에 고객들이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빠릿빠릿하시고 손 빠르시고 이런 분들을 원해요. 실제로 용산이나 강남이나 이쪽같은 경우에는 조선족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임금은 적어도 임금이 저희 한국 분들보다 적지만 빨리빨리 일을 하신데요. 듣기만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많이 장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솔직히 여기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체류 뭐 정당한 체류일 수도 있고 불법체류이면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쉬운 게 그런 게 거의 여성 마찬가지예요. 경험하게 되죠. 그분들을 더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적은 임금을 받아도 그 중국에서는 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되게 젊으신 분들도 많고 시장흐름이 거의 이제는 젊고 손빠르신 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객들이 요구하는 층이 많아져요. 그래서 점점 더 나이가 드시면 일을 하 시기가 좀 힘드세요. [1]

<표 III-4>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조사결과 정리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임금과 노동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일한만큼 소득을 갖고 가는 형태 ● 공동체 전환 이후 노동강도는 강화된 반면, 소득수준의 향상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자활근로사업 때 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짐. ●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 소득이 나아지는데, 자녀양육이나 가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 있음.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돌봄 역할간의 갈등, 특히 12시간, 24시간의 근무형태로 인해 일과 돌봄 역할간의 갈등이 심각함. ● 가사노동과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 부담으로 힘들. ● 건강 악화됨 ● 낮은 사회적 인식, 매번 낯선 파견처로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 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노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큼. ● 적립금 사용에 있어서 인력파견형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함. ● 교육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받을 경우 하루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기 힘들.
기관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상에 따라 시장진입형과 제도화형으로 구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형: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대표)를 세우고, 기관과의 분리 계획을 통해 운영주체(대표)에게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분리 시도함. - 제도화형: 기관에서 직접 관장. 참여자들은 운영회의, 월례회의 등을 통해 기관과 의견교류 및 의사결정을 함.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및 소득수준에 대해 불안함. ● 현재 시장의 수요가 많지만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음. ● 노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을지 걱정임. ● 현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함.
실무자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여성의 인적자본 등 현실적 여건이나 향후 사회적 수요를 고려할 때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사회적 인식도 낮고, 노동강도도 쉼고, 저임금 노동시장에 속해 있고, 파견업이므로 노동환경에 대한 통제나 개입이 어려우며 재해나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어려움이 많음. ● 조선족, 남성 도우미 등 다른 집단들과의 시장 경합, 소비자들의 고급화된 서비스 요구에 대해 참여여성의 인적자본이 갖는 한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제약이 있음.

3. 현행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행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가. 참여여성 조사결과

첫째,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먼저 자활공동체로 전환했다고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 각 자활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진짜 그렇게 때 돈 벌어 살기 힘들잖아요. 월급 받아서. 월급 받아서 집하나 사기도 힘든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 번 지원이 시작된 가정이 끝이라는 생각을 이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깐 난 나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지도 좀 아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지원은 없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걸로 해서 안되잖아요. 옛날 영세민들 도와주는 방식으로 밥만 먹고 살면 된다면 이려면은 맨날 하루 세끼를 그냥 나가서 급식을 주지 뭐하러 돈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쓰는 자의 그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그것을 높이 사줘야 될 거 같아요. (3)

또한 자활공동체를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시장진입한 자활공동체가 제대로 시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창업에 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그 돈은 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날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어발 식으

로 막 벌릴 필요 없이 창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뭐 황무지에다 잡초만 심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는 베어버리고 한 나무한테만 거름으로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무조건 묘목만 심는거예요. 그러면 맨처음 심은 묘목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3)

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활 현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자신들에 비해 창업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취약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건비를 지원받음으로써 그 액수만큼 수익이 될 수 있으므로 자활공동체가 안정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무자들이 양쪽에 공통된 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이 몇 번 창업해 보고 망해 보고 이러신 분 같으면 대화가 되는 데요. 그냥 실무정책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필요한게 그게 아닌데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거 있잖아요. 답답하죠. 비전이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인 걸 해주셔야지 기관에서 정책으로 그런다기 보다.. 제대로 된 실무자를 보내주시던가 진짜 전문가들을.. 내가 창업했는데, 진짜 내가 이려고 저려고 해야 할 그거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딱, 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베테랑이, 뭐 성공한 사람이라던가, 이 사람 진짜 무슨 무당을 갖다 맨다던지, 이렇게 실무 경험도 없고, 현장 경험도 없고 가게를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담당자예요. 연결은 실무자라고 했는데 이 분이 완전히 기분 따라야. (3)

모든 사업이 시작하면 6개월까지는 거의 준비기간이다 싶잖아요.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1년이상 지나야 자리를 점차적으로 잡는데 근데 6개월까지 그 인원만 딱 보조가 되니까 저희도 황당하더라고요.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서 일반사람을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잘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 월급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안줘도 인건비를 안줘도 무상으로 인원을 쓸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거 같아요. (1)

일단은 전문성을 갖고 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단 안에..공동체 안

에) 공동체 안에 비전문성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한 질을 높이려면 조리사를 통해서 배운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도 그걸 돈 주고 시간 내서 배운다는게. 그러니까 기술습득이라든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1년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 사실 필요해요. 사실 인건비 지원만. 설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인건비 지원만 해줘도 진짜로 큰 힘이 되요. 왜냐면 돈을 벌어서 첨에 할일이 너무 많잖아요. 빚 갚아야 되고. 첨부터 어렵게 가면 어느 정도 자본은. 항상 통장에 딸랑딸랑하면 담에는 월급타나 안타나. 이렇게 되면 불안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한번 쯤은 6개월 정도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되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뜨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구청은 뭐 그런데서 어차피 개인 돈이 아니고 청소도 해야되는데 그런 구의회나 무슨 문화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같은 사람 시켜줘야 돼. 우리가 어떻게든 나라 도움.. 저 돈 한푼이라도 안 가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집안 청소고 이런 청소는 가면 돈도 안되고 아주 힘은 힘대로 들고 몸이 녹아나게 생겼으니까 (2)

업종 개발, 기술력 습득 등 자활근로사업에서부터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는 준비가 보다 치밀해야함도 지적했다. 우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래서 포화 상태에 이른 그런 전형적인 업종이 아닌 새롭고 다양하며 미래 발전 전망이 있는 업종을 개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창업할 수 있는걸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 때 당시에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도배사 그런거 너무 한정된거잖아요. 전부 도배사 아니면 제과 제빵사 해도 취직하기가 힘들거 같고 저소득층은 맨날 몸으로 하는 일 밖에 없는거 같아요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거는 내가 그거 밖에 없었어요. 그럴지 않으면 그냥 자활근로해서 시간 때워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창업할만한 거는 너무 이상한거만 많은 거예요. 그때 무슨 사업단이 있었더라 논문복사 컴퓨터 수리

는 나중에 생긴 거고 하여튼 그 사업단이 그러니까 무슨 차량청소 그리고 집안 청소 하는거 침대 카페트 이런거 며칠 청소해주고 이러는거 이거는 개인적인 창업이 안되고 이거는 완전히 여럿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내가 나중에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 전부 제과제빵사 한식조리사 도배사 그리고 또 산모도우미 이런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4가지 업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IMF때 제과제빵 한식조리 도배사 그 자격증을 시험본 사람한테 무작위로 다 뿌렸대요. 한국에 오니까 한길에 빵집만 있는거예요 아 미용사 자격증하고 미용실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게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할게 왜 그거 밖에 없는지. (3)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이 자활사업이 여러가지 종류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가지가 이렇게 우리같이 청소사업이 할만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이 자활사업단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단이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활사업 하는거 보면 청소사업 몇가지 안 되는거 같더라고요. 산모 도우미 뭐 그런거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1)

그리고 자활공동체 지원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전 경험이 없이 자활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업체 운영이나 경영, 회계 등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 등 충분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간을 포함해서 지원하던지, 아니면 자활공동체로서 실전경험을 쌓는 기간까지는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연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활근로라는 게 뭐냐면, 배우고 뭔가를 해가지고 팔아서 이다음에 내가 가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자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배우면서, 일하면서. 그리고 자리잡을 때까지 기관에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주고, 그러면은 공동체를 딱 여는 순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활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그런 지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차라리 실전에 덤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같은 실전경험을 2년 더 쌓아야 된다는 거죠. 실전에 먼저 덤비지 않고 그 안에서만 하다가 갑자기 딱 내놓으면 2년간 교육하지, 또 1~2년 지원하

고. 그러면 솔직히 4년을 갖다가 노는 건데. 난 작업장만 얻어주고 내가 그안에서 스스로 해서 재투자해서 가게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이라는 이 시스템이 더 맞다는 거죠. (3)

준비라는 것은 일단은 공동체가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지금 인식 속에 이곳에 있는 분들은 대개 보면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고. 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술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고 그냥 내보신단 말이에요. 그냥 침부터 해보십시오.. 하면서 하십시오. 이걸 안되고. 기술지원도 안되고. 어떤 회계지원도 회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자기네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상의 어떤 룰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인건비 들어가고 모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되다보면. 그냥 엄청난데다 처박고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업체하고 기존업체하고 떨어지니까 우리가 행보(?)할 수 있는게 서비스 질과 그 맛에 대한 그 어떤 양 그런 질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니까 아끼지 않을 땐 아끼지 않고 아낄 땐 아껴야 되고 그런걸 알아야 되는데.. 침에 몰랐다는 말입니다. 침에 다 몰랐어요. 침부터 누가 가르쳐 준 사람들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고. 우리는 그걸 시행착오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4)

조금더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2년되기 전에 2년안에 나가야 한다고 막 밀어부치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럴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아직 준비기간이라 해도 솔직히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더 망설이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거의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죠. 자의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앞으로 비전은 있겠다 앞으로 독립해야겠다 생각은 있어도 조금더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1)

둘째, 인력파견형의 경우 특히 간병에서 정부의 다른 공공 영역에서의 제도화와 자활공동체가 연결되어서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현재 추진중에 수발보험과 관련해서 현행 시장에서의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과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걸고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간병일의 노동 형태가 현행 2교대에서 3교대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같이 노동강도가 완화되는 형태로 재편되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나중에도 해야하는데. 다른 일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여기 (여사님)들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뭐 간병 아니면 식당가서 일해야 되는데, 식당일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간병일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막 벅차고 그러니까 저는 뭐 내년 2007년도에 뭐 노인 요양보험 생긴다면 서요? 거기에 굉장히 희망을 많이 걸고 있어요. (생활이고) 간병이라는 일 자체가 너무 인건비도 싸고 너무 그러니까 좀 시간도 출퇴근하면서 사람 3교대라도 하면서 수입이 좀 어느정도 일정선으로 좀 올라가서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14)

우리도 좀 너무 일자리가 너무 12시간에 24시간에 그게 너무 부담이에요. 그게 너무 부담이에요. 출퇴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좀.. 살림도 좀 할 수 있고, 내 건강도 좀 잠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9시간 근무하시고 나시면 다른 간병사 분이 오셔서 또하고. (13)

셋째,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같이 일하는 참여자들간의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풀고 나가야 하는데 회의 등의 논의구조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간의 갈등상황을 풀어내는데 제한적이므로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러블이 생기면 기관에서 개입하는 건 없지요. 그런데 이제 트러블 있어 갖고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막 이제 뭐 해왔지요. 여태껏. 그리고 이제 저거 예기 좀 하자고 그러고 나가서 하고 뭐 계속 지금 여태껏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앞에서 대표가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 회의 저기 해서 무슨 저기 불만이 있으면 예기를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도 있고 다 있을 때 이런식으로 예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회의 때까지 그거를 갖고 그거를 끄고 있다가 해는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안그런 부분 많잖아요. 그때 그때 그 사적인 그 쪼그만거 같은거. 그런게 이제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고 이제 그런거거든요. 저사람 원래 저래. 그렇게 하는데도 어느때는 막 열나잖아요. 그래서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거든요. 일박이일. 그 어느 직장이나 그런 내부간의 인간관계가 쥔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인간관계

가 먼저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설문조사에서도 나는 항상 이래요.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돈 생각한다고 그래. 어디나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오래 가느냐, 안가느냐. 그리고 웬지 싫은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그런데 삭히고 하면서 이제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재 회의 때 얘기를 하라고 자꾸만 그렇게 한대두 누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박이일로 가서 이제 신부님이 우리의 속내를 알아보는 걸 했죠. (11)

넷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자활공동체로 나갔다고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공동체를 나갔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나가면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거를 일단 나갔다고 딱 끝을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뒤편하고 교육을 시킬 건 시키고 공동체 나간 사람도 안 올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 더 올꺼고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될거고 그럴 때 어디서 하라고 없거든요. 그런 부분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자리잡을 때까지 다 한대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뒤를 봐주는건지 모르겠고요. 관리를 해주신지도 모르겠고요. 그럴 때 지원도 교육같은 거나 이런거 지원을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교육시키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외부로 간다든가 그랬을 때 교육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구요. (16)

다섯째, 심리정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수급자라는 점, 빈곤여성으로 사는 것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해소해 줄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이 수급자로 산다는 것, 빈곤여성으로 사는 것에서 대해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안으로 병들고 있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지금 수급자라는걸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혼자서 애키운다는 것도 친한사이라도 혼자라는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 할 사람이 없어요. 주위 친구들은 아는데 가게 하면서 만난 사람이나 혼자서 애 둘 키운다는 걸 이야기 한 적이 없거든요. 수급자라는 것도 그냥 창피해요. 내가 가는하다는게

아무 대책없이 가난하다는게 창피하고 사실은 수급자 됐다는 거에 아무도 상처를 안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수급자 됐다는 거에 대한 자존심과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요. 표현을 안해서 그럴지. 애들한테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내 스스로 안에서는 끓아 있는 상태죠 누구한테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상담하고 싶고. 왜 자꾸 내가 조그만 일에 좌절을 하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두려운가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고 큰 소리 지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 어디다가 저기할 때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치료는 아닌거 같아요 치료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

여섯째, 주거와 자녀들 학비 등 기초보장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현재 빈곤한 것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 하지 않고자 했다.

우리가 자활공동체라고 하지만 아직 말로만 공동체지 정착이 안됐으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수급자 자녀들... 학원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 내 자녀도 또 나처럼 못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힘들어요. 제가 500에 20만원 지하방에 사는데, 돈 이거 타갔고 20만원을 줄 때 정말 손떨리거든요. 정말 막 어떻게 사는거에 주거비 그런거 하고 고생은 좀 되물림 좀 하지. 애들 교육같은 거 되물림 좀 안해서.. 나는 못 살았지만 애들은 좀 어떻게 자기 집이라도 어떻게 작든 크든 그런 집이라도 하나 지니고 있고 공부좀 할 수 있게.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작은애 같은 경우도 저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뭐 학원은 고사하고 문제지 하나도 비싼건 하나도 못 사주잖아요. 그런거에 교육비하고주거비에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셨음 좋겠어요. (13)

나. 실무자 조사 결과

우선은 자활공동체가 노동시장을 진입하는 하나의 루트로 갖는 의미를 평가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적 노동시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의 마련과 참여여성들의 인적자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급자의 지위를 이렇게 털어내고 노동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의 루트로 그러니까 일자리로 의미가 있다고 보구요. 대안적 노동시장으로 이 자활공동체가 의미가 있죠. 대안적 노동시장이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딜레마인데 저희 어머님들의 연령이나 노동의 질이 기본 구성자체가 조금 좋아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자활근로 시스템 자체가 노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일단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도 다 힘들기는 한데 일단은 인건비 부분의 상승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4]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인력파견형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병인의 경우 파견처에서의 위치가 낮아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저임금구조, 2교대 근무 등 노동강도가 쉼고 낮은 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병에 대한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근무형태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힘들어요. 허리도 가끔 다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와상환자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남자분들 덩치 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 하는데, 가온병원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되어 있는 게 보호사가 있어요. 남자 총마다 침대에 내리거나 번쩍번쩍 들을 때 그 때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휠체어 들 때는 두 명이 요령있게 하면 되는데, 힘을 쓸 경우에는 보호사들 좀 동원을 시킬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시스템만, 병원에서 인력배치만 총마다 한대거나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은 여성 근로조건 되게 좋고 일단은 각 병원에서 간병사에 대한 지위가 되게 열악하잖아요. 근데 간호사들도 인식이 안돼 있어요. 사실 지금 간병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중복이 돼있어요. 옛날에 간호사가 했던 거 간병사가 많이 하거든요. 석션부터 시작해서 일반 영양주입까지 다 해요. 원래는 간호사가 해야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안하면 간병사 노릇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건데, 간호사가 되게 많이 인정을 안해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의 역할에 대한 조율만 인식개선만 있으면 좀 될 거 같아요. [3]

24시간 유료 간병이라는 걸 사실 어머님들한테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실무자 입장에서든 굉장히 강한 노동조건 굉장히 심하잖아요. 24시간 노동에 깎해야 버는돈이 100만원 120만원. 풀로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으로 따지면 2000원이 안되거든요.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병이 지금은 대세가 24시간 풀이잖아요. 그거의 형태를 좀 다변화 해보는 것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계속 지금 공동 간병 형태를 늘려 나가는게 일단은 안정적인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쉰다라는 형태 때문인데.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그다음번 한번 더 가면 이제 12시간 교대든 아니면 3일 교대든 삼교대가 됐든 그런 방식의 고민을 언젠가는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는 사실 임금이죠. 지금 있는 오만원을 삼교대 하면서 삼으로 쪼개 가질 순 없으니까. 인건비 자체도 올라야 되는. [4]

또한 교육을 통해 자활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참여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음부터 비전을 세우기 보다는 운영하면서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업종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참여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독려의 효과가 크다고 했다.

저 이상에 대해서 꿈을 크고 진짜 크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거 보면 되게 답답하고 또 저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실까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어머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거는 실무자의 욕심인거 같아요. 정말 이 분들은 일을 하면서 비전을 만들어 가야지, 비전을 크게 보고 이렇게 그걸 따라서 일반인들이 사업하듯이 하는걸 요구 할 수는 없을 거 같더라고요. 제도 자체도 처음부터 큰돈을 만지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별차이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맘대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큰 비전을 처음부터 세워나가는 되게 힘든 거 같구요. 그래도 이 사업에 애정이 있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로 밥벌이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공동체는 그걸로 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배우고 경력을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사님들이 비전을 느끼시는 거예요. 간병에 대한 거가 수요가 많다라는 그리고 보장제도 때문에 그런 우리가 전망을 심어주고 자기계발 하시라고 하시고 교육도 끊임없이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자활사업단보다 훨씬 높아요. 인식의 정도가. 솔직히 청소나 집수리나 이런 식보다도 저희 간병이 의학기초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이런 교육에 대한 거가.. 며칠 전에도 끝났지만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하루에 여섯시간, 풀로 열흘을 여기 앉아서 30분 넘게. 실질적으로 저희 여사님들 수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병에 대한, 의학에 대한 기초지식도 수시로 넣어드리지만 교육을 시켜드리지만, 삶을 척박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기회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폭력이라든가 가정문제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도, 본인이 간병이라는 아직까지는 전문이라는 게 아니지만, 저희가 그 전문직에 대한 거를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교육을 시켜주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을 보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생활도 안정화되구요. 70만원이든 80만원이든 고정적으로 하고, 집안에서도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복장이나 외모나 달라지잖아요. 저희가 간병사이기 때문에 머리스타일부터 외모나 간병복 그런 거 엄청 체크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바뀌어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저희는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이런 사업이구요. 한 일주일 실습을 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딱 오세요. 사무실 왔다갔다 하실 때, 얼굴 표정이 일단 바뀌고, 외모가 너무 세련돼 지시는 거예요. 본인이 돈을 버니까. 기술습득. 저희가 자격에 대한 거를 많이 뺄을 치거든요. 향후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분들은 시험을 안봐도 될 수 있게끔 협회에서 노력하고 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120시간 교육받고 1000시간 이상 그것에 대해..자격관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70실시간 받고, 60시간 받고 그런 식으로 경력관리를 충분히 시켜드리고. [3]

둘째, 이미 자활현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활공동체를 반영하는 정책적 상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를 탈피하고 현재 자활현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와 그 외의 다른 형태의 자활공동체를 고려한 새로운 자활공동체의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책적으로 다양해야 된다고 봐요. 자활 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봐도 생산보다 오히려 생산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더 다양한 일들이 많고, 인력 파견도 굉장히 많고, 지금 제가 딱히 어떤 제도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생산협동조합체계에 맞겠끔 제도가 되어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실제로 모습은 생산협동조합은 별로 없고, 다수가 인력파견이고, 더 다양한 사업이 많고, 그렇게 느낀 게 되게 많았는데 딱 어떤 거라고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게 중심으로 가는 게 많아요. [2]

특히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행 자활공동체는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모형을 전제함으로써 실제 많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간병, 산모, 가사 도우미 등의 업종의 자활공동체로서의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2인 이상의 사업자등록 요건이나 법적 지위나 산재보험 등 보험 적용에 있어서 인력파견업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다.

인력파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같은거도 공동체 인정 기준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요. 근데 이런 이런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2인이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코디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일 파견을 나가시기 때문에 그걸 사업자 등록에 그거 하게 만들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생산자 같은 경우는 다같이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굳이 2인 이상을 두어서 그렇게 하는건 무리가 있는거 같아요. 저희같은 경우도 좀 유연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서 1인인데도 인정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

규정상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거예요. 원래는 인정이 안되거든요. 원래는 이런 파견업은 그 유료소개소처럼 알선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지금 열두명 열두명이 다 사업자를 내서 해야되는 그런건데 저희 저희 사업하고 그 세무서에 그 사업자등록증은 차이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왜냐면 내려면 열두명이 다 내든가 아니면 그냥 직업소개소 형태로 가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저희는 또 규정상 내야되는 거죠. 공동체가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인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걸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장님이 가서가지고 저희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세무서에 설명을 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제 모 인터넷상이나 이런 거에 검색엔진에 그 등록을 할 때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등록이 안되는 문제도 있어요. [1]

인력파견업은 나가면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노동환경이나 노동근로 여건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모두 개별화되어 있고, 또 별로 기관에서 개입하거나 누군가 서포트 해줘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뭐 사실 보험이라든지. 그런거 드는게 되게 중요한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자활근로 때 있던 돈으로 가입을 하긴 했어요. 내년에는 못할 거 같아요.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 일용직인데 자기가 버는 돈에서 사재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게 좀 무리가 있거든요. 수급자분들인데. 고용산재 가입해서 돈 떼고 이런 거에 불만 많으시고. 그냥 기관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면 좋을 거 같아요. [2]

이미 제도 안에서 업종별로 그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각각의 비전을 갖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틀, 특히 지금과 같은 생산조합형 공동체로 일률적이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한 어떤 생산공동체형, 그 협동조합방식의 공동체 이런 방식이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과는 사실 일치되지는 않잖아요. 생산공동체 방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단위로는 이미 이제 좀 부적절한 부분들도 있구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한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해서 아 사회적 기업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서 의미있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윤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에 쓰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목적에, 비전에 대한 공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동일시 해서 저희가 실현을 한거죠. [5]

뭐 간병, 산모 도우미, 최근 이제 장애 통학 교육 보조원, 이제 이런것들이 쪽 다 파견사업인데, 저는 파견사업은 더더욱 자활공동체라는 목표에 끼워 맞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활공동체라는게 개념

적으로는 수익금이 남아야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거기서 이제 인건비와 재료비와 배분과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는데, 파견업은 일단을 회비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걸 자활공동체라는 구조를 맞추려면 일반 사단법인 구조든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취업 알선 구조를 좀더 이렇게 틀을 잘 갖추는 것 이외에, 우리가 초반에 생각했던 그런 협동조합 구조 내지는 공동체라는 형태로 맞추기는 힘들다고 봐요. 글구 간병공동체의 경우 각 자활후견기관에서 바라보는 상이 모두 다르다.. 사회적 일자리 형으로 자활근로를 지속하겠다고 보는 기관이 있고, 소규모의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기관이 있고, 제도화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는 기관이 있고, 다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4]

시장형은 아니더라는게 되게 공감대가 많이 생기고 있는거 같아요. 시장형에 대해 너무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공동체가 되도 우리가 손을 댄 다음에는 어떻게 할거냐 미래가 너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면서, 인력은 필요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오히려 공동체에..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더라라고 생각이 드는 거 같고. [2]

보다 근원적으로 자활경로의 상 자체가 현행과 같은 자활공동체 중심의 단선적 경로가 아닌 보다 다양화되고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가 철밥통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몇 십만원 받는 게 대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은 여기서 60여만원 받고 보충급여 받으면서 그냥 수급자 자격 유지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나중에 돈 벌을 때 까지 내가 끝까지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수급자들이 계속 의뢰가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개인 창업, 관련업체에 취업 등으로 나가줘야죠. 꼭 공동창업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5]

자활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저는 폐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자활후견기관의 명칭도 그렇고, 후견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고, 예전에 있는 자활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자활을 지원하는데 자활이라는 게 꼭 자활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하거든요. 노동력을 향상시키고 배움을 통해서 개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

동력으로 성장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소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도저도 부족해서 지원이 계속 투입되지 않으면 노동 현장급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자활사업의 정점은 자활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만족을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자활후견기관에 나와 있어도 다 거기서 거기 제가 거기서 나와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7]

셋째, 빈곤여성이 처한 상황과 이들의 자활여건을 고려한 보다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자활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활공동체 실무자들은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이 자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역할,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등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는데, 가부장적인 가족내에서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된 점, 한부모 가족이든 남편이 있든 간에 노동자와 돌봄 제공자로서의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이중부담 등을 지적했다.

벼랑끝에 서 있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차상위 여성분들과 비교해 보면 그분들도 빈곤 여성이긴 한데, 여건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 두 집단만 놓고 봐도 저희 기관은 확실히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활 사업으로 의뢰해서 오시는 조건부 수급자의 분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 아니면 굉장히 절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상황 자체도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와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의 문제와 그런거에서 느끼는 이렇게 단절감이나 소외감이 차상위와 수급자 분들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이다른 거를 알았어요. [4]

애들 문제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거 같아요. 자녀들 분 키워야 되는 나이대에서 변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있으면 100%로 안된다고 하세요. 애들을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딱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공동체 같은 경우는 특히 산후조리 같은 경우는 어찌 어떻게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일을 한다고는 못하신다고 하거든요. 돈문제도 그렇고, 이분들은 당장 애를 키워야 되는데 자활공동체 같은게 수입이 들락날락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확실히 두려움이 있으신 거 같아요.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확실히 남편이 안 계시거나 그런 편모과정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심하세요. 일을 보낼 때도 그렇고, 공동체에 오신 분들도 시간.. 이런 거 할 때는 확실히 그렇게 못하시는 거 같아요. 공동체로 간 사람들은 애가 많이 컸거나 학생이어도 고등학생정도 나이 어린 분이 두어분 있었는데 친정어머니랑 같이 산다든지 하여튼 보육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셨어요. [2]

여성분들은 일단 보는 시야가 너무 좁으세요. 첫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다음엔 아이들, 남편, 부모, 자기 직업은 저 끝에 가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직업이 생존을 해주겠끔 해주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땐 돼요. 투자하시는 이런 것도 시간적인 투자나 근데 일상적으로 그게 잘 안되세요. 그래서 그게 경험에서 오는 차이인거 같아요. 여성분들이 사회적인 경험이 있다 해도, 거의 일용직이어서 조직적으로 잘 못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중고에 삼중고예요. 너무 힘든 위치인거예요. 남편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모자가 정도 있지만 남편이 무능력자예요. 근데 남편으로서의 권위는 있는 거죠. 그것하고 싸워야 돼요. 또 아이에 대한 교육문제도 당사자들만 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가려져 있는 구조가 참 불리한 상황인데.. 이런게 이 사람의 활동을 자꾸 위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좋은 게 좋은 거구나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쳐줘야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보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6]

실무자들은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족내 돌봄 역할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참여여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여성가장들만 아니라고 한다면 야간에 교육을 받거나 이러셔도 되지만 그것조차도 안되는 거잖아요. 또 가정에 가서는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고 싶어는 하시는데 못하시는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한 예로 저희 베이비시터 하시는 분이 너무 베이비는 정말 자신있는데 고작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셨어요. 아이는 정말 잘 보시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요구하는 그것까지 하실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검정고시로 그 야학인가 그거를 아이를 떼놓고 야학같은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하셨어요. 국졸은 하셨어요. 초졸은 하셨는데 그거를 하시면서 아이를 방치했을때 그 아이의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1]

노동력이나 일에 대한 적극성이 많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아내이고 어머니로써의 한계, 자정 중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노동환경 속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해요. 시간 내에 일을 다 못하면 나가라, 그건 너희 사정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못 지키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소사업에서 중심 아이টে를 대행에서 용역으로 전환을 했죠. 대행 아이টে는 시간도 없고 노동 강도도 높고 굉장히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특히 주부들이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용역은, 지금 용역 현장에 다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 출퇴근 시간 딱딱 정해져 있고 쉬는 날도 정해져 있어, 일요일 날 쉬면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날 쉬면 월요일에 쉬고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활패턴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맞춰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나가면서 용역사업을 하는데 주력을 했죠. 그런데 용역사업의 한계가 수익이 높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성분들 중에서 100만원 넘어가는 수입을 받으신 분이 없어요. 학교청소 하시는 분은 63만원 받으시는데 5시간 근로라고 하더라도 낮은 급여인 거고, 많이 받으시는 분은 80만원, 90만원 이렇게 받으시지만 그게 한계예요. 용역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용역시장 현황 자체가 최저 임금의 사각 지대에요. 대부분 4대 보험도 가입이 안되고 급여도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시면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가시장이라고 하죠. 저희들로서도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로써는 의미가 있는데 소속이 낮은 게 한계가 되더라고요. 시장 자체가 저학력에 중고령 대가 되신 거죠. 40~50대분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백만원 넘게 받으시면서 일할 수 있는 현장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 8시간 일하고 가면서 그게 일반적인 시장 현황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지금 과제가 되는 것이지요. [7]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여성들의 자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위해 제공할만한 관련 서비스 총량 자체가 적고, 관련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놓여져 있는 구조적 위치상 자체적인 역량이나 동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관련 기관들에서도 빈곤여성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도 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조금만 넘어가 버려도 이렇게 연계를 할데도 없고, 그렇다고 실무자가 그걸 할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그런 부분이 어머님들이 일하시는 거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건이 생길 때마다 자원이 없다는걸 매번 느끼죠. 총량자체가 없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냈을 때 그 분들이 자활후견 기관에서 오신 참여자 분들을 이해하는 폭도 굉장히 좁구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해봤던 것 중에 알콜 상담 센터나, 아니면 이제 가족 상담이나 뭐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하는 경우들에서도 그런 효과를 많이 못 본거죠. 그럼 그런 것 발굴 자체도 어렵고, 또 갔을 때 기관에서 저희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도 좀 낮고, 그러니까 이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이런 약간의 악순환되는...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원을 연계한다라는 부분으로 처음에 생각이 가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업 참여냐 참여 지속이냐 중단이냐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죠. [4]

자활후견기관안이 참여자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게끔 보호막 역할은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거죠. 보호막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같이..하고 있죠. 여기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여기와 있어요. 근데 이들과 상담도 할 여력이 안되요. 상담이 전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폭력남편도 있구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요. 남편이 폭력을 쓴다고 하니까 보따리 싸 놓구요. 1366 누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디에 가면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요. 본인이 스스로 다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 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요. 근데 사실 저희 그렇게 못하구요. 제가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진짜 복지관의 역할을 저희가 인력과 자본만 더 투입이 되었으면 해요. [3]

이를 위해 참여여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입하기 위한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다수의 참여여성들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제약들로

인해 자활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례관리사 등 별도 전문 인력이 배치되거나 자활후견기관 자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활셋팅 안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여러 분이 계세요. 근데 실무자한테 그것을 지원하는 일까지 다하라고 하는데 못하죠.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사회복지 사회사업가 만나서 상담 한번 두 번, 지속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죠.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을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해결되지 않고 이 분들이 경제적 자립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걸 저는 단연코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5]

복지관에서는 사람이 없는데 자활에는 사람이 넘쳐나요. 복지의 대상이.. 근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무자든 자원이든. 사실 상담 한 번 하려고 해도 그게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상담을 못할 정도로 행정의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연결을 하고 싶은데도 시간이 안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복지관의 인력을 여기 파견해주든지, 자활후견기관에 그 전담, 예를 들어서 취업센터라던가 그거처럼 창구를 참여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을 해준다든지. 지금 저희 자활후견기관 경기지역협회에서 지금 상담, 사례관리프로그램을 해요. 월 30만원짜리인가, 40만원짜리인가.. 하여튼 그거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과감하게 사람을 뽑았어요 전문상담사를. 그 사람이, 우리가 대상만 선정해 주고, 일주일에 한번씩을 꼬박꼬박 상담을 하고, 뭐 이런거.. 상담만 하게끔.. 사실 그런 사람 하나만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여자분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실무자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왜냐면 관계가 딱 있잖아요. 지적할 수 있는 관계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고 관리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참 오픈하기가. 왜냐면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관계가 실무자하고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사실. 그게 자활에 빠지면 안되는 거 같아요. [3]

넷째, 여성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성적합 직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쟁이 되지 않는 영역, 사회적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직종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주로 여성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보여지므로,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특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고, 이는 개별 자활후견기관이 아닌 광역자활과 같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쟁이 되지 않은 우리만의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와의 초점에 맞추어 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더 많은 거고 애들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기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게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창업도 아이템으로도 사실 인력파견업이 많아지게 된 것도 여성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요. 여성분들한테 맞는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건 사실인거 같아요. 인력파견업 말고 시장형으로 해서 돈을 왕창 지급해서 소득을 올리는 건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2]

여성특화 아이템을 선정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개발할 수 있는게 실무자들 머리에서는 더 이상 안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템이... 아이템을 개발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광역자활에서 이걸 역할로 갖고 갈 수 있다고 봐요 사회적 일자리 방식으로 해서 간병처럼 새로 발굴해내지 않으면 기존의 노동시장은 이미 다 포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

다섯째,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 대한 전문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다수의 자활공동체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활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견기관에서 손을 털면 이분들 바로 들어 오세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공동체도 많고 그렇게 하면 물론 이분들이 아니었지만, 다른 구조가 있다면

이제 공동체로 나가는 구조였다면 실무자들이 바로 빠졌어도 아마 이 구조가 운영이 되었을지 몰라요. 근데 아직 아니라고 봐요. 한 공동체를 내보냈으면 시장으로 내보냈으면 여긴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 사업단을 꾸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 해도 현실성에는 그렇게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분들이 그래도 그 독립을 독립이란걸 공동체로 완전한 독립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

그 조직이 계속 후견기관에 남아 있는게 아니라, 이제 후견기관에서는 예전에는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내보냈던게. 이제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내보낼 나갈... 독립해서 나갈 때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후견을 해주는 그런데가 필요해요. [4]

자활후견기관들은 자활근로 수행기관으로 전략해 버렸어요. 전 이걸 열어야 할거 같아요. 공동체를 뭘 지원하느냐 돈을 달라 그거 아니에요. 시장을 보호해 달라, 그거는 보호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자문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요. 자활공동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자문을 참여자들이 고민하는 그 리듬에 맞추어서 또는 실무자가 고민하는 그 리듬에 맞추어서 정책적인 자문 파트너가 되주어야 해요. 그 파트너가 정책제안을 하면서 자활근로수행기관인 후견기관이 자활공동체 위에 서있으면 안되게 그렇게 자활공동체에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6]

여섯째, 자활공동체의 자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활공동체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를 매개로 해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가교 역할 혹은 진입구 역할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자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자활공동체로 나와도 소득 상승 효과가 없는 대신 노동강도는 강화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별 메리트가 없고, 가족구성 등으로 인해 조건부 수급자의 지위 탈락에 놓인 경우 혹은 제공받는 급여 내용이 크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자활공동체가 자활유인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동체로 만들어 놔는데. 돈벌이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실 때그만큼 그니까는 한달내내 다 투여해서 그만큼을 버느니 그냥 조금 들해서 그걸 유지하자는 생각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니까 어머니들 생각은 자활근로 때보다 조금만 더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되신다고 생각하신 거 같은데, 와보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려면 정말 심하게 아침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예 여기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되니까. 그렇게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긴 있으세요. 수급자 분들 중에도 그런거 보면서 제가 공동체가 자활근로 보다는 좀 낫지, 생각은 하는데 아직 그게 딱 확실하게 자활근로보단 훨씬 돈이 되는구나 내가 진짜 일하고 싶었진다. 이렇게 만드건 아닌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수급자 탈락되실 분들이거나 별로 거의 받아도 별로 안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그렇고요. 보면서 지원되는게 많으신 분들은 그게 좀 힘들어요. 공동체 와가지고 뭐.. 지원되는거 하나 없고. 그냥 그러니까 다 봉급표 올라 갔다가 그만두고 다른 자활근로로 갈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 같아요. 그냥 뭐. 일은 그냥 그냥 하면서 돈은 계속 나오는게 낫지. 금액은 비슷한데. 뭣하러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해는 되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거 같아요. [2]

인력파견업의 경우 일이 딱 몇시부터 몇시까지 뭐 달이 시작되면 1일부터 31일까지 탁탁탁 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파견이 뭐 2주만 갔다가 실 수도 있고, 어떤 달은 한달 갔다가 그 다음에 맞는 일을 찾다보면 2~3주 미뤄질 수도 있고..이런거 때문에 소득이 막 차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어떤 달은 좀 소득이 없게 되요. 부득이하게..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왜 이달에 수입이 없냐고 그러면 아. 이분이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했다. 그렇게 되다보면 그달에 일을 안해 보면 생계비가 왕창 나오게 거예요. 그런거 두어번 경험하게 보면 이게 별로 열심히 안해도 되는 구조구나 아셔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일을 보내기가 더 힘들어지세요. 안할려고 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고, 본인이 좀 할러 그러면 확 버실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업같은 경우는 소득이 올라가면 다같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게 시장형으로 나가긴 했지만, 시장형으로 나간 그 자활 공동체가 시장안에서 버티는 건 일반인들이고, 오셔서 결국은 그 분이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거고. 조건부 수급자들 그니까 자활사업단 안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인제 또 자활공동체를 중간 매개로 해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 효과를 사실 안 나오고 있는 거네요. [2]

그 결과 실제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에서 수익이 나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도리어 자활공동체를 통해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활공동체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 보장이 공동체가 되면 그 생계비 반영에서 조금 제하여지는 부분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어머니 그 참여자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줄어들지 않아서 그걸 가지고 설득을 시킨다거나 이런거는 미미한 수준이고요. [1]

한분이 사실은 저희가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막 계속 하면서 그게 굉장히 부담이 많으셨대요. 나중에 이제 그만두기 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계속 부담이 됐었나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쨌든 조건부기 때문에 그달 그달 월급은 좀 낮더라도 좀 낮더라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안되니깐 만약에 그달에 뭐 한 100만원 200만원 밖에 못벌었다 없다 가져갈 돈이 정말 없다 이렇게 되면 그분 정말 그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마조마 하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급여가 작다 하고 그분이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참 아까웠어요. 정말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계속하셔서 올해 초에 그만두셨거든요. [8]

따라서 자활공동체가 유인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 효과 혹은 자활공동체를 통한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즉 완전히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때까지는 소득을 일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생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활유인효과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자활공동체를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사실 수급권이라고 하는 거가, 저희에게 자활공동체로 나왔을 경우 그 임금이 높아져서 소급권에 탈락이 되는 거에 부담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후견기관이 허위신고를 해요. 사실 기업을 경영한다는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드렸어요. 6개월 뒤에는 정상신고를 하겠다구요. [6]

지금 보면 80만원 급여를 가져갑니다. 합의를 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있더라도 80만원만 가져가자. 두 분 다 수급자세요. 수급자고, 가구원수가 다 세 명, 세 명밖에 안되거든요. 세 명 가구원을 갖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여기서 가져가는 80만원 임금 중에 30%인 56만원 인정되니까 한 십여만원 정도 보충급여를 받아요. 이 분들이 그렇게 받는 것은, 이 분들이 당장 지금 150만원 받는 구조라면 다른 것 다 벗어던지면서 150만원 받으면서 할 분들이예요. 근데 150만원이라는 소득이 적어도 100에서 백 몇십만 원 정도 돼야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다 끊어도 내가 세 식구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있는 돈 있다고 해서 그달 그달 어떤 달은 150, 200 가져가고 어떤 달은 하나도 못 가져가면 운영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1년간 합의본 금액이 80만원이었구요, 통장에 적립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적립을 해서 연말에 내년의 계획을 좀 세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도 특례자가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 그대로지만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은 얼마 안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앞으로 4년 5년 6년 몇 년동안 계속 그 나물에 그밥 형태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단 컨설팅도 받고 어떻게 하면 좀더 이윤을 많이 창출하고 우리의 입지를 많이 세울 수 있을까 회의하고 고민하고. [5]

일곱째, 자활공동체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법부처 차원에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자활공동체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이외에 다른 부처들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협력이 있다면 자활공동체가 자립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자활공동체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고, 일반 시장 경쟁구조에서 똑같이 경쟁해서 그대로 같이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고 거기서 힘들면 망하는 거고 이런 구조란 말인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지자체나 기관이 일정 정도 지원하는 부분은 있어요. 일반인하고 다른, 일반 시장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나 기관이 지원해 주는 영역이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을 때 제도적으로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자활공동체 우선위탁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다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는데 어른이 걷는 것처럼 똑같이 경쟁하라 그러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웅자라든가 이런 장치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러나 일반시장에서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아이템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투자를 해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5]

우선 제도적 지원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을 못 해 주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봐요. 취약계층은 일자리가 있어도 편입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것들을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죠. 어떻게 보면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활하면 장애인 단체예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고객이 일반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공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시장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활산업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자활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공공복지밖에 몰라요. 그 외의 부처, 관계된 부처는 모르죠.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사회복지 쪽이 아니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못 만들어내요. 산업자원부가 만들어내고 경제관련, 교육부 이런 쪽이 만들어 낼 수 있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그런 쪽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곳들이 이걸 모른다 말이죠. 우리가 제도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이견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들이 지원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 식으로 넘어가면 끝이거든요. 법령이 허울뿐인 법령이에요.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대한 지원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

체가 사회복지과만 알고 있는 거지, 다른 관련 부처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런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곳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같이 수립해 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7]

여덟째, 기초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활공동체가 현재처럼 소득향상 효과가 적은 상황에서 자활공동체에서 획득한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에서 근로 경력에서나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소득 그거랑 연 동안되서 주는 그렇게 된다든지 수급자에서 탈락되는게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고, 교육급여라는지 뭐 그런 것만 제공된다든지 좀 다양한 방면으로 한다면 이렇게 수급자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 같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양하게 제공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좀 없으니까. [2]

수급권자들은 그래도 제도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지만 차상위들은 정말 없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정말 절실해요. 생계급여는 아니더라도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정말 사회로 나가셔서 노동시장에 진입할수 있는 조건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거에 있어서도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졌음 좋겠어요. [1]

<표 Ⅲ-5> 현행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참여여성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 지속, 각 자활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 필요 - 전문적인 창업 지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필요 - 다양하고 미래 발전 전망이 있는 업종 개발, 운영 및 경영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등 실전 경험을 높이는 방식의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의 여건 개선 및 참여여성의 인적자본 향상 - 인력과견형의 경우 노동시장의 강도 높은 근무여건 개선 필요 - 기술과 지식 습득과 함께 비전 세울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시장진입형 소규모 공동창업 형태의 자활공동체 탈피, 다양한 자활공동체를 반영하는 정책적 상 재정립 ● 빈곤여성의 자활 저해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 및 이를 위한 자활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과견형 자활공동체 - 간병사업의 경우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제도화 -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강도 완화되는 형태로의 근무형태로 재편 필요 ●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 -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을 위한 인간관계 프로그램 필요 ●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심리정서적인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빈곤여성을 위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직종 개발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 마련 ● 자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자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 참여여성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

4. 소결 : 요약과 논의

가. 조사결과 요약

여기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해당 자활공동체 실무자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조사결과는 자활사업 참여 과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과정, 자활공동체에서의 경험,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순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참여여성과 실무자 조사결과는 내용에 따라 병렬하거나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1) 자활사업 참여 과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대다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험 갖고 있었다. IMF로 인한 본인 혹은 배우자의 실직, 건강상의 이유, 이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노동시장에 재진입 혹은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자활사업에 대해 알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동사무소, 자활후견기관 등을 찾아가서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자활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고 영세민이라는 점 등 때문에 사업 참여를 주저하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듯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선택했으나, 실제 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의미 보다는 생계유지, 자녀의 학비 지원 등의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과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과정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 전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의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대다수가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꺼려했다. 이들은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 제공받았던 급여 중단'으로 이해하면서 전환 이후에 조건부 수급자로서 제공되는 각종 급여가 중단되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성공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환과 관련해서 실무자들로부터 소득향상에 대한 전망,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독려와 지원을 힘을 얻기도 했다. 전환을 위한 물적 조건은 자활사업단에서 모아둔 적립금, 사회연대은행 등에서의 대출금 등을 통해 마련했다.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특히 생산조합형 공동체에 기반해서 시장에 진출한 경우, 시장 진입후 시장에서의 생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자활근로사업단에서의 준비 부족, 특히 기술력이나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던 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나갈 사람과 계속 잔류할 사람이 섞여 있어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없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자활공동체 실무자들도 자활공동체 전환 과정에서 참여여성들이 토로하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활공동체 전환을 위해 사업 성공 가능성, 전환 가능 인력규모 등을 타진하고, 참여자들과의 회의 및 상담을 통해 사업전망과 성공가능성 등을 제시하면서 전환을 독려한다고 했다. 자활사업 시작 당시 사업 유지를 위해 적정지원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때는 수익창출규모를 고려한 적정인원을 타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참여여성들이 지적했던 대로 사업단 운영기간 종료되었다는 식의 이유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실무자들 역시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며 현행과 같은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활공동체 전환에 따른 실제적인 소득상승 효과가 적고, 안정된 사업기반 구축 등과 같은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독려할 만한 유인 도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3)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 경험

가)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

선행연구의 자활공동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는 생산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활공동체 A형에 해당한다(엄태영, 2004 ; 이문국, 2004).

① 임금과 노동강도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 임금수준이 상승되지 않았고 여전히 조건부 수급자 유지하거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수입 유지하고 있었다. 소득상승을 기대했던 참여여성들은 불만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수익을 남기기 밤샘작업 등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었다. 왜냐하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선 공동체 인원 외에 다른 인력을 써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 많아서 수익 남지 않기 때문이다.

② 애로점

자녀 돌봄과 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돌봄에 대한 절대시간이 부족하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생산하는 체계이므로 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참여여성들끼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과 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배려하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지만 소득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들과 생존을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 지원이 끊겨서 부담감 가중되고 있으며, 인건지 지원 기간이 부족한 점, 영업 및 홍보비용이나 전략이 부재한 점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③ 기관과의 관계

자활공동체 전환 초기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점차 그 관계를 정리하고 분리해 나가고 있었다. 초기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홍보, 영업, 행정 지원 등 자활공동체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관의 지원 때문에 자활공동체 운영이 가능했으며 안정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점차 자활후견기관과 분리하면서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관리, 임금 배분 혹은 수입지출에 대한 점검 정도의 선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자활후견기관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보다는 결국은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을 받을수록 기관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④ 향후전망에 대한 인식

자활공동체로 전환한 이후에 자기 일이 생겨서 의욕을 느끼고 있지만, 수입이 적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되고, 건강은 나빠지고 있어서 불안해 하고 있었다. 또한 열심히 살았지만 소득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자활근로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 상태에 대해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갖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자활공동체 실무자들은 현행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의 수준이나 정책적 지원의 총량을 고려할 때 시장진입에 따른 시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

선행연구의 자활공동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는 영농/폐자원재활용 등 서구 사회적 기업모델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외부 시민단체 혹은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의 법적·실질적 책임자가 되고 다수의 취

약계층을 고용하는 자활지원기업형에 해당한다(엄태영, 2004 ; 이문국, 2004).

① 임금과 노동강도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는 월급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체로 임금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다. 더 나은 임금수준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있었지만,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고 시장임금 보다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동강도는 자활근로사업 때 보다 세졌지만, 일반적으로 자활공동체가 수익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일자리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소득은 적어도 맘 편히 시장에서의 경쟁력 낮은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 만족스러워했다.

② 애로점

돌봄 역할과 일과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가사일과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 건강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참여여성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간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진통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회적 기업을 표방한 초기 단계의 경우 자활후견기관이 제시하는 전망과 이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과 비조합원들간의 임금구조, 의사결정과정과 절차, 업무에 대한 역할 구분 등에 대해 갈등이 표출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 대해 불만도 있었지만 운영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다.

③ 기관과의 관계

자활후견기관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 초기 세팅을 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 기관을 든든한 후원

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4) 향후전망에 대한 인식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당시에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 자리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곧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역할은 단순한 작업이라 해도 모두가 열심히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보람도 있다고 했다. 또한 노동강도가 세진 건 사실이지만 서로를 다독거리면서 지금의 자활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 기업체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며 밝게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노동 시장에서의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활공동체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있으려고 한다고 했다.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도 했다.

자활공동체 실무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무자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었다. 우선 제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의 특성상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사회적 기업은 현행 제도에서 전제하고 있는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의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이 적절하며 아직 확정된 혹은 정해진 모델이 있다기 보다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외국의 풍토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의 상에 대한 논의 없이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자칫 일반기업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선행연구의 자활공동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는 간병/가사 도우미 등 준전문직 집단의 사단법인 형태를 띠는 자활공동체 B형에 해당한다(엄태영, 2004 ; 이문국, 2004).

㉠ 임금과 소득수준

인력파견형의 경우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일한 만큼 소득을 갖고 가는 형태인데,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 노동강도는 세진 반면, 소득수준의 향상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나아지려면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 하는데, 자녀양육이나 가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환 이후에도 조건부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보조받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인력파견업의 특성상 일거리가 안정적이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자활근로사업 때 보다 소득수준이 더 낮아졌다.

㉡ 애로점

첫째,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일과 돌봄 역할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특히 9-6시와 같은 고정된 근무시간이 있지 않고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대,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대 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일과 돌봄 역할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근무시간이 길어야 하는데, 자녀양육 문제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가사노동과 병행으로 인한 이중 부담, 일을 하면서 계속 나빠지는 건강문제도 심각했고 특히 건강문제의 경우 일의 지속적인 수행 여부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이들은 일을 하면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은 일을 하고 있고 실제 파견처에서 낮은 위치를 실감하며 자신의 권리나 힘듦에 대해 말하지 못하면서 느끼는 정신적 부담이 컸다. 또한 일정한 근무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낯선 파견처로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

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넷째, 제도적으로 적립금 사용에 있어서 인력과견형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자활공동체로의 전환과 함께 기계구입 등을 위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자신들은 참여여성 자체가 도구인데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교육훈련을 받고 싶어도 교육훈련 받을 경우 하루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③ 기관과의 관계

자활공동체에 대해 기관이 갖고 있는 상에 따라 시장진입형과 제도화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 시장진입형은 자활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대표)를 세우고, 자활후견기관과의 분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주체(대표)에게 이관을 통해 분리를 시도하는 경우로, 제도화형은 자활공동체와 분리와 지원을 병행하며 아직까지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운영회의, 월례회의 등을 통해 자활후견기관과 소통하고 의견 교류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④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일정 액수가 보장되지 않는 소득수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현재 시장의 수요가 많지만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점, 건강이 더 나빠질 경우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활공동체 실무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무자들은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간병, 가사, 산모도우미 등에 대해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참여여성의 인적자본 등 현실적 여건이나 향후 사회적 수요를 고려할 때도 이 업종의 시장성이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도 낮고, 노동강도도 쪼고, 저임금 노동시장에 속해 있고, 파견업이므로 노동환경에 대한 통제나

개입이 어려우며 재해나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족, 남성 도우미 등 다른 집단들과의 시장 경합, 고객들의 요구가 고 급화되고 있는데 실제 연령이나 학력 등 인적자본이 갖는 한계, 자녀양육 등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4) 현행 자활공동체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가) 자활공동체 참여여성 조사 결과

먼저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첫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지원이 중단 되는 것이 아니라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도 각 자활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자활공동체를 새로 만 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시장에 진입한 자활공동체가 제대로 시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창업 지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셋째, 업종 개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 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래서 포화 상태에 이른 그런 전형적인 업종이 아닌 새롭고 다양하며 미래 발전 전망이 있는 업 종을 개발해야 하고, 업체 운영이나 경영, 회계 등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필 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 등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에서 의 기간을 연장하던지 자활공동체 전환이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인력과견형의 경우 특히 간병에서 정부의 다른 공공 영역에서의 제도화와 자활공동체가 연결되어서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간병일의 노동 형태가 현행 2교대에서 3 교대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같이 노동강도가 완화되는 형태로 재편되기를 희 망하기도 했다.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같이 일하는 참여자들간의 인간관계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풀고 나가야 하는데 회의 등의 논의구조를 통해서도 참여자들의 간의 갈등상

황을 풀어내는데 제한적이므로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심리정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나) 실무자 조사 결과

첫째, 자활공동체가 대안적 노동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참여여성의 인적자본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파견형의 경우 저임금구조와 2교대 근무 등과 같은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훈련 기회를 통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현행의 시장진입형 소규모 공동창업 형태의 자활공동체가 아닌 이미 자활 현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공동체를 반영한 정책적 상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는 현행 정책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현행처럼 다수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일부를 추려서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를 만드는 형태는 지양하고, 보호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정책적 상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가족안에서의 역할로 인한 이중 부담과 심리정서적인 문제 등 빈곤여성의 자활을 제약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집중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위한 상담인력, 사례관리인력 등 자활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빈곤여성에게 맞는 보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직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쟁이 되지 않는 영역, 사회적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직종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개별 자활후견기관이 아닌 광역자활과 같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섯째, 자활유인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곱째, 자활공동체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법부처 차원에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덟째, 기초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활공동체가 현재처럼 소득향상 효과가 적은 상황에서 자활공동체에서 획득한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나. 논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자활경험은 자활공동체의 유형별로 그 특성에 따라 자활공동체에서의 자활경험-임금, 노동강도, 어렵다고 느끼는 점, 향후 전망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몇가지 점에서는 여성빈곤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1) 자활공동체 유형별 참여여성의 자활경험 비교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몇몇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보다 나은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기대 이하였고 이에 대한 자괴감이 컸다. 전환 당시 안정된 소득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못한 채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창업을 통한 자활공동체를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내 일반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시장내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력이나 자본력 등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정책적 지원은 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창업 지원, 업종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경영/회계 등 시장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지식 습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의 확보 등이었다.

반면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는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와 달리 참여여성이 직접 시장내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실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관여하고 있거나 운영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참여여성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장경쟁에서의 생존여부에 대한 부담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참여여성들은 소득보장이 되는 안정된 일자리로 여기고 있었다. 실제 사회적 기업형 자활공동체는 공익적인 성격의 일이 많아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참여여성들에게 안정감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강도는 쉼꼴지만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당시에 느꼈던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정감, 만족감 등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간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없고 새로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겪는 내부적인 갈등도 많았다. 이들은 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인간관계 프로그램 강화였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의 경우 시장진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와 유사할 수 있으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형태를 지향하지 않고 본인이 일한만큼 임금을 갖고 간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노동강도가 쉼꼴 반면 파견형 일자리의 특성상 12시간, 24시간 일해야 하는 강도 높은 근무여건과 연속적으로 일감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이 낮아지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또한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등 파견형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시선, 매번 낮선 일자리에 파견된다는 두려움,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 등 다른 형태의 자활공동체와 달리 업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시장진입을 통한 유료알선업 형태로 운영하려는 경우와 공공영역에서의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공존하고 있었고, 현재는 사회적 수요가 많지만 향후에도

많을 것인지, 근무여건의 특성상 노후에도 계속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많았다. 그래서 인력과견형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강도 높은 근무형태에 대한 개선,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공공영역에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각 유형별로 참여여성들이 느끼는 자활경험은 차이가 있었지만, 자활근로사업단에 비해 높아진 노동강도, 일과 돌봄 역할간의 갈등, 자활공동체에서 일하면서 더욱 나빠지고 있는 건강상태 등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특히 자녀양육과 가사 부담 등 가족 안에서의 역할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빈곤여성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임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자활의 전략과 자녀양육은 불가분의 관계로, 자활의 과정에서 가족내 역할이라는 현실적 조건에 의해 빈곤여성들은 일할 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숙진, 2002 ; 황미영, 2002). 본 연구에서도 모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이 돌봄과 일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특히 인력과견형의 경우 12시간, 24시간 근무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그 어려움이 다른 자활공동체에 비해 훨씬 강도가 강했다. 또한 소득수준을 높이려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는데, 자녀양육이라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일을 덜하고 교육훈련을 덜 받는 방향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렇듯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 부여된 돌봄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이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숙제임을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활공동체 개선을 위한 참여여성과 실무자의 정책 수요 비교

참여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언급한 반면, 실무자들은 제도전반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실제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제언했다.

참여여성들은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그 내용이 상이했는데, 이미 자활공동체 유형별 참여여성의 자활경험 비교에서 언급한 대로 시장진입형의 경우 시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인력과건형과 사회적 기업형도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인력과건형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근무여건 개선과 공공영역에서의 제도화를, 사회적 기업형은 구성원간의 스킨십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실무자들은 먼저 현행 시장진입형 소규모 공동창업 형태의 자활공동체를 탈피해야 하고 새로운 자활공동체의 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의 특성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적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를 매개로 해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가교 역할 혹은 진입구 역할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활공동체로 나와도 소득 상승 효과가 없는 반면 노동강도는 강화되기 때문에 참여자들 하여금 자활의 의지를 갖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진입으로의 단계적 자활경로를 설정하고 자활공동체로 시장으로 내보는 식은 탈수급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재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단선적 경로에 따른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이문국, 2004). 따라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자활공동체가 자활현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활공동체의 정책적 상을 다양하게 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자활공동체에 대한 문제점에는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 대안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특히 자활공동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었다. 참여여성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실제 기대와 가능성을 타진하며 실제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회적 기업이 현행 자활공동체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대안적 모델이기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현행 자활공동체의 문제

점을 보완하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대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사회적 기업이 빈곤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가능성은 면밀하고도 신중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빈곤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은 일자리로서 갖는 한계와 시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후 전망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형과 시장진입형을 지향하는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사회적 수요와 빈곤여성들의 인적자본 등을 고려해서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등과 같은 돌봄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발굴되었지만, 낮은 임금의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생산조합형 자활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자활공동체 요건, 적립금 운영, 자활공동체에 따른 인건비 지원, 각종 보험 적용 등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자활사업이 시장영역에서의 틈새시장으로 전통적인 돌봄과 보살핌 노동의 영역에 여성들을 재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저학력, 저기술, 중년층이 많은 빈곤여성에게 특별한 인적자본 개발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전통적인 성별분업과 여성 노동의 질적 저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직종 발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이숙진, 2002 ; 강남식·백선희, 2001 ; 박영란 외, 2001).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이들 업종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인 차원이 아닌 개별 자활후견기관 수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가사, 산모, 간병 도우미 등은 사회적 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업종이지만, 실제 일반 시장에도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갖는 시장성 외에 이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빈곤여성을 위한 대안적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보다 다각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빈곤여성에게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선 빈곤여성의 자활을 제약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집중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위한 자

활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로 인한 이중 부담과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인력, 사례관리인력 등의 배치와 자활후견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리정서적 개입에 있어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과 실무자 모두 이부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제도적으로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자활을 준비하고 자활공동체로 전환해 자활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빈곤여성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 무기력함, 자괴감, 힘듦 등에 대해 개입해야 하고, 이러한 심리정서적인 개입이 소득 상승을 위한 경제적인 개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빈곤여성에게 맞는 보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직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쟁이 되지 않는 영역, 사회적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직종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개별 자활후견기관이 아닌 광역자활과 같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셋째, 자활공동체 운영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활유인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활공동체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범부처 차원에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기초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활공동체가 현재처럼 소득향상 효과가 적은 상황에서 자활공동체에서 획득한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IV

자활공동체를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 정책방향	175
2. 세부 정책과제	180



1. 정책방향

본 연구에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을 중심으로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자활공동체는 단계적 자활경로를 통해 탈수급, 자활을 도모하도록 하는 현행 자활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자활사업에서의 양적 비중을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적 일자리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노대명 외, 2001).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60-70%가 여성이고 현행 자활사업 안에서 자활근로를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탈수급, 자활을 도모한다고 볼 때, 자활공동체가 보다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의무 이행을 위해 참여했던 자활사업이고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환한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자활공동체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양상과 정도는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상이했지만, 일반시장에 진입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졌으나 그에 따른 소득상승 효과는 미미했고,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있었다. 여전히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 가족내 역할 부담으로 인해 일에 전념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부담은 여성들의 자립 역량을 개발하는데도 제약적인 조건이 되고 있었다. 자활공동체 유형별로 자활 경험이 상이해서 자활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평가는 달랐지만, 자활공동체를 자신들의 일자리로, 노동시장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를 위해 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자활공동체가 갖는 대안적 노동시장으로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의 특성, 자활공동체의 시장진입을 성공시키기 위한 지원 인프라, 자활공동체가 진입할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공동창업 형태의 시장지향적인 자활공동체라는

단선적 경로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 제도·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빈곤정책의 기초가 근로연계복지, 일을 통한 복지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빈곤정책의 주요한 초점은 빈곤계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자활의 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가운데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찍부터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해 왔던 서구의 경험에서도 근로연계복지정책이 남성과 여성간에 달리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빈곤여성들에게 노동만 강제했을 뿐 이들의 실제적인 탈빈곤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정미숙(2005)은 현행 일을 통한 복지탈출의 탈빈곤정책이 일자리만 제공된다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의지를 고양하면 탈빈곤이 가능하다는 신화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Duncan & Edwards(1997)의 주장을 통해 여성들이 임금노동에 참여할수록 그들의 빈곤이 축소되고 자녀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가정에 근거한 정책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빈곤여성의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공동체 = 빈곤여성의 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의 생성경로를 다각화하고 다각도의 맞춤형 자활공동체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행 자활공동체안에서는 소득수준이나 일자리의 지속성 등에서 아직은 참여여성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안에서 다른 업체와의 경쟁하며 생존하는 것에 대한 부담,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강도, 경쟁력, 서비스의 질에 부응하는 것 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 자활현장에서는 현행 자활공동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적인 자활공동체를 지향하며 운영되고 있기도 했다.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중심의 현행 정책에 대한 문

제는 여러 문헌들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현행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의 단선적인 상을 탈피하고 다양한 자활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빈곤여성의 경우 생애주기나 학력이나 건강 등 인적자본에 따라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자활공동체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빈곤여성의 안정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을 통한 복지라고 할 때 노동시장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므로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속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미숙(2005)은 여성들이 임금노동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별분업과 일의 성격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성차별적이고 성별분업적인 노동시장을 재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자활공동체 여성 참여 현황에서 보면 참여여성들은 전 업종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위 남성직종이라고 불리우는 업종에서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금수준에서 보면 청소, 폐자원, 집수리 등 주요사업 중 다수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간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행과 같은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소규모 공동창업형 형태의 자활공동체에서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빈곤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등과 같은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역시 사회적 수요의 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임금의 저평가되는 노동시장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무조건 진입시키기 보다는 자활공동체의 상을 다각화하고, 빈곤여성의 인적자본과 자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도모하는 전략과 노동시장과 거리를 두는 전략을 구분하고, 다각도의 맞춤형 자활공동체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빈곤여성들에게 자활공동체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로서의 노동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까지도 포괄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빈곤여성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보다 선택적으로 자활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이 생산역할(일)과 재생산역할(돌봄)을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미숙(2005)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는 공적으로 지원되는 자녀양육 시스템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에만 기반한 접근은 부적절하며, 고용에 기반한 가정은 어머니나 노동자나라는 선택의 덧에 갇히게 간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도 모든 유형의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이 지적한 것이 일과 돌봄 역할에서 오는 갈등 문제였다. 주로 자녀양육과 관련되어서 오는 갈등이었는데, 자녀 연령대에 따라 돌봄의 내용이나 정도가 다를 뿐 자녀돌봄과 일간의 갈등은 대동소이했다. 노동권과 모성권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슈로, 정미숙(2005)은 이에 대해 여성들에게도 남성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의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과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 일에 비용을 지불하려는 돌봄 제공자 등가 모델(care giver parity model)로 대비될 수 있고, 전자의 경우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통해 여성을 사회에 통합하는 정책이고 후자의 경우는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통해 통합하는 정책이라고 정리하면서, 서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이 주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고 보았다. 또한 최근에는 이 두 모델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고무하는 정책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인정이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봄을 부담으로 보는 것이 아닌, 권리로 접근하면서, 돌봄을 안할 권리 혹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권리와 함께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를 포괄하는 사회정책으로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았다(정미숙, 2005).

이렇게 볼 때 일을 통한 복지탈출이 빈곤여성들에게도 실효성있는 정책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단순히 직업을 갖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수행해 왔던 돌봄 역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박영란 외(2002)는 대부분의 공공부조 수급여성들이 일정 기간 제도안에 머물게 되

고 자활이라는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제도에 대한 의존심이나 ‘복지병’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양육이라고 하는 보호노동의 적절한 수행과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수행간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절박한 ‘생활전략’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아직도 ‘경제적 자활’보다는 ‘모성역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빈곤여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더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이 생산자의 역할과 재생산자의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현행 자활공동체 정책 기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반 기초 여건을 조성하고 자활공동체 지원 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한다.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가족내 문제 뿐 아니라 건강, 주거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소득을 갖게 된다고 해서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들이 자활의 여건, 토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다. 자활공동체를 통해 자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 여성, 자활이라는 3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자활사업 단에서부터 자활공동체로 전환하고 자활공동체가 안정될 때까지 빈곤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자활후견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폭넓은 단위에서 협력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자활공동체를 통한 빈곤여성들의 실제적인 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부 정책과제

가. 자활공동체 모델의 다각화 및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자활공동체의 모델을 다각화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자활공동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자활공동체의 모델은 자활후견기관에 배치되고 있는 참여자들의 특성, 자활후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과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자활공동체 모델에 대한 자활 성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현재 다수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간병,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등 인력파견형 형태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특성 고려한 자활공동체 운영 지침 마련

자활공동체 요건이나 인건비 지원, 적립금 사용 등 자활공동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인력파견형의 형태도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형태의 자활공동체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파견처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급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

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보험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현행과 같은 시장진출형 자활공동체 시스템 안에서는 시장 진출 이후에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양질의 체계적인 보수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활후견기관 자체적으로 혹은 노동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와 간병, 보육 등의 공공영역 제도화와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모색**

고령화, 보육의 공공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확대될 영역의 제도화 단계에서 기존에 이러한 영역에서 활동해 왔던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일반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임금 수준이 아닌 별도의 가치 산정절차를 거쳐 새로운 비용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입방안 마련**

현행 자활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자활공동체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특히 인적자본이 취약한 참여자들에게 일반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형태가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

한 논의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논의가 빈곤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사회적 기업 관련 해외사례의 빈곤여성에 대한 자활효과 분석 실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는 자생적이기 보다는 외국의 사례들이 한국에 소개되면서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개된 자료들이 대부분 빈곤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자활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건 등을 고려한 도입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실제 사회적 기업의 참여자 다수가 여성이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업 해외사례들에 대한 성인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실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정 자활공동체로서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들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다.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형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화를 논의하기 보다는 실제 표방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형을 만듦과 동시에 이에 대한 성인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현행처럼 소규모 공동창업 형태의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가 시장에 진입해서 시장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 전환 이전에 대한 사전 준비와 전환 이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선 자활근로사업 당시 업종 선택부터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 **광역자활, 사회연대은행 등을 활용한 공동창업형 자활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지원 및 성인지적 접근 강화**

-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간의 연계성 및 교육 훈련 강화

시장진입을 위한 공동창업형 자활공동체는 실제 일반시장에서 비슷한 업종의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인적구성부터 기술력, 학력, 연령, 이전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특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자활공동체 창업 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제공

창업준비 단계에서 부터 전문적인 인력이 개입해서 시장진입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때 자활후견기관은 창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긴밀하게 실시하고, 보다 참여여성의 자활여건 특히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자활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자원 동원을 모색하도록 한다.

- 자활공동체 전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평가 실시

자활공동체 전환 단계에서는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후 전망, 참여자들의 전환에 대한 의지, 기술력, 동원 가능한 자원, 자금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자활공동체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전환에 따른 개별 혹은 자활공동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사례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방안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인건비 지원 등 현행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및 성인지적 제도 보완책 강구**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칫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했

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안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책임을 개별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을 대상으로 현행 지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건비 지원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인건비 지원 형태가 아니라면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할 것인지, 영업과 홍보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이들의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시장형 공동창업을 고려한 여성적합 업종 개발

소규모 인원의 공동창업이 가능하고, 시장내 경쟁력, 지역적 특성, 시장적 전망, 연령, 학력, 건강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여성의 인적자본적 특성, 이전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빈곤여성에게 적합한 업종을 개발한다. 이는 개별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광역자활이나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보다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돌봄역할 등 빈곤여성의 자활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 역시 다른 빈곤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자활을 어렵게 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었다. 이는 개별 자활후견기관의 자원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의 가족 내 역할 그중에서도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이 노동시장 진입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유관기관들간의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다.

□ 자녀양육 등 돌봄역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화

자녀양육은 빈곤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어린 자녀를 둔 경우는 아예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우 어느정도 성장한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자활공동체

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의 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야간보육시설 확충, 야간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방과 후 보육시스템 확충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며, 청소년 자활수련관 등의 활성화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 빈곤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심리정서적인 개입 강화

빈곤여성들은 실질적 여성가구주이거나 한부모가족인 경우가 많고 생계부양자이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안에서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부담감 등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자활공동체로 전환하게 되면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상담 인력을 배치해서 상담을 통한 일상에 대한 관리 및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활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지면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비전,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신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개입을 통해 이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자기 내부의 역량과 잠재성을 발굴하며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고양하는 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개별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 등을 통한 기초 보장 강화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 조건부 수급자 탈락 = 제공받은 모든 급여 중단’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꺼려하고 있다.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은 실제 자활공동체 전환과 동시에 조건부 수급자를 탈락하기도 하나, 조건부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제공받고 있기도 한데, 이는 자활후견기관 자체적으로, 자활공동체로 전환해서 얻게 되는 소득상승분이 수급자 신분으로 제공받게 되는 각종 급여를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일부 누락해서 자체적으로 자활로의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개별 자활후견기관이 자활 유인효과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자활공동체 = 소득수준 불안정’을 개선하는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자활공동체의 실질 임금상승 효과가 낮은 부분을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통해 보완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현재의 창업자금 지원 뿐 아니라, 그 목적을 확대해서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한 빈곤여성 자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빈곤여성의 복합적인 자활 저해 요인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실제 동원된 자원들이 빈곤여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기반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빈곤여성 자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자활공동체를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성인지적 인프라 구축

보다 많은 빈곤여성들이 자활공동체를 통해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활 관련 인력들의 성인지성을 제고하는 것 뿐 아니라 자활공동체 관련 성인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관련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것, 자활공동체 참여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에 대한 개입까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자활공동체 관련 성별 분리 통계 구축

성별 분리 통계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관련 성인지적 통계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여성 특성을 반영한 통계지료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인력의 빈곤여성 자활 지원 역량 강화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시장에 진입시키는 전초기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진입 이후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이 어떤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빈곤여성의 자활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창업을 지원하는 인력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서, 빈곤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밀착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빈곤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문화적인 위치를 이해하고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대 등의 물리적 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빈곤여성 자활을 위한 지원 확대

자활공동체가 시장에 진입해서 자립하기 위해, 공공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넘어선 타부처와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자활공동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권과 예산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선자활후견기관과 자칫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고 실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데, 단순한 성과지향이 아니라, 자활공동체의 질적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빈곤여성에 대한 정책적 도약대로서 자활공동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일선 자활후견기관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표 IV-1> 자활공동체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구분	세부 정책과제
자활공동체 모델의 다각화 및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특성 고려한 자활공동체 운영지침 마련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안정적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 인력파견형 자활공동체와 간병, 보육 등의 공공영역 제도화와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모색 ● 빈곤여성의 자활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도입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관련 해외사례의 빈곤여성에 대한 자활 효과 분석 실시 - 현재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실시 ●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형 공동창업을 고려한 여성 적합 업종 개발 - 광역자활, 사회연대은행 등을 활용한 공동창업형 자활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지원 및 성인지적 접근 강화 - 인건비 지원등 현행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및 성인지적 제도 보완책 강구
돌봄역할 등 빈곤여성의 자활 여건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등 돌봄역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화 ● 빈곤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 강화 ● 개별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을 통한 기초보장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활용한 빈곤여성 자활지원네트워크 구축
자활공동체를 통한 빈곤여성의 자활지원 위한 성인지적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공동체 관련 성별 분리 통계 구축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인력의 빈곤여성 자활 지원 위한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빈곤여성 자활을 위한 지원 확대

참고문헌

- 강남식·백선희(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의 자활지원사업 분석과 활성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2호.
-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호.
-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2004), 『자활공동체 현황 및 운영활성화 방안』.
-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2005), 『경기지역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국미애 외(2001), 『저소득층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활성화 방안 모색』.
- 김수현(2001), 『저소득 여성가구주 자활촉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과제』, 토론회 자료집.
-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여성참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홍일(2002), '자활사업과 지역공동체- 자활사업과 지역공동체 운동의 연관성', 『도시와 빈곤』, 통권 56호.
- 남기철(2005), 'EITC를 둘러싼 혼란과 정책토론회', 『복지동향』, 제82호.
- 남찬섭·허선(2005), '한국 사회 빈곤대책의 개선방향', 『복지동향』, 제80호.
- 노대명(2002), '한국 자활사업의 평가와 전망', 『동향과 전망』, 2002년 여름호, 통권 제53호.
- _____(2003), '한국자활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쟁점' 『사회복지와 노동』, 제7호.
- 노대명·석희정(2001), 『자활공동체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란 외(2003),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황정임(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간병도우미 자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백선희(2000), '성 주류화 관점에서 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분석과 자활사업 정착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복지학』, vol. 43.

-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
- 부산자활정보센터(2001), 『자활공동체 형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 『빈곤여성과 자활정책: 유럽사례를 중심으로』.
- 삶의질향상기획단(2001),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활지원』.
- 성공회대학교·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자활사업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신명호·김홍일(2002),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동향과 전망』, 통권 제53호.
- 신은주(2001),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실태』, 『사회과학연구』, 제5집.
- 임태영(2004),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자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옥·진영(2005),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양극화 시대의 일자리 창출전략』.
- 윤홍식(2005), 『근로소득환급제도(EITC)의 딜레마: EITC 최선의 대안인가』, 『복지동향』, 제80호.
- 이문국(2005), 『자활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복지동향』, 제80호.
- 이숙진(2002), 『여성주의시각에서 본 자활사업』, 『한국여성학』, 제18권 2호.
- 이인재 외(2005), 『광역자활지원센터 평가 및 운영모형 연구』, 보건복지부.
- 이종수 외(2004), 『자활지원을 위한 민간창업지원기관 운영방법론 연구-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 이현아·백선희(2002), 『미국 TANF를 통해 본 우리나라 여성자활사업의 시사점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12권.
- 자활정보센터(2005a), 『사회적 기업, 설립 추진 방안 및 법제화 논의를 위하여』.
- _____ (2005b), 『2004년 하반기 자활후견기관사업 현황 보고서』.
- 정선희(2004), 『이익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 다우출판사.
- 정미숙(2001), 『여성가구주, 성별화된 빈곤 그리고 일 : 어머니나 노동자냐』,

- 「경제와 사회」, 통권 5호.
- 정미숙(2005), ‘빈곤의 여성화와 젠더관계에 대한 시론’, 한국여성학회 제21차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진보정치연구소(2005), 「실업·불안정 노동자의 사회보장체계 구축방안」, 진보정치연구소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 채혜영(2003),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자활사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도시연구소(2000), 「자활생산공동체운동의 길잡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센터(2005),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평가센터(2002), 「한국의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2004), 「실업·빈곤 극복을 위한 여성 일자리창출 정책 제언 토론회 자료집」.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2003), 「자활공동체의 이해와 실무」.
-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2005),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활지원법과 주거급여법 제정을 중심으로」.
- 한상진(2005),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울산대학교 출판부.
- 황미영(2002), ‘여성자활의 조건과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황정임(2005), ‘빈곤여성의 자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경준(2002),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1호.
-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성남노동자생산협동조합(1999), 「자활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실업극복의 가능성과 한계- 성남노동자생산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2002), Social Enterprise: A

- Strategy for Success,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자활정보센터 역(2005). 「사회적 기업의 성공전략」
- Bennett, Fran(2002), “Gender Implications of Current Social Security Reforms”, *Fiscal Studies*, vol. 23, no. 4.
- Berrick, J. D. (1995), 『Faces of Poverty: Portraits of Women and Children on Welfa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eitkreuz, Rhonda S. (2005), “Engendering Citizenship? A Critical Feminist Analysis of Canadian Welfare-to-Work Policies and the Employment Experiences of Lone Mother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Volume XXXII, Number 2, 147-165.
- Butler, A. C. (1996),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 Levels on Poverty Among Single-Parent Families”, *Social Problems*, 43(1), 94-115.
- Cancian, M., Haveman, R. H., Mayer, D. R. & Wolfe, B.(2002), “Before and After TANF : The Economic Well-Being of Women Learning Welfare”, *The Social Service Review*, 76, 4.
- Danziger, S., Heflin, C. M., Corcoran, M. E., Oltmans, E. & Wang, H. C. (2002), 『Does it Pay to Move from Welfare to Work?』.
- Duncan, S. & R. Edwards (1997), 『Single Moth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Mothers or Workers?』, London: UCL Press.
- Edin, K. & Lein, L. (1997), “Work, Welfare, and Single Mothers’ Economic Survival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2, 253-266.
- Ezawa, Aya·Fujiwara, Chisa(2005), “Lone Mother and Welfare-to-Work Policie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wards an Alternative Perspective”,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Volume XXX II, Number 4, 41-63.
- Garfinkel, I. & S. S. McLanahan (1986),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 New American Dilemma』,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 Jimenez, M. A. (1999), "A Feminist Analysis of Welfare Reform: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ct of 1996", *Affilia*, Vol.14 No.3, 278-293.
- Johnson, R. & Corcoran, M. (2002), "Welfare Recipients' Road to Economic Self-Sufficiency: Job Quality & Job Transition Patterns Post-PRWORA".
- Kalil, A., Corcoran, M. E., Danziger, S. K., Tolman, R., Seefeldt, K. S., Rosen, D., Nam, Y. J. (1998), 'Getting Jobs, Keeping Jobs, and Earning a Living Wage: Can Welfare Reform Work?.'
- Kucera, D. (2002), 'The Effects of Wealth and Gender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A Survey of Recent Empirical Studi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Geneva.
- Lichtenwalter, S. (2005), "Gender Poverty Disparity in US Cities: Evidence Exonerating Female-Headed Familie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Volume XXXII, Number 2, 75-96.
- Lichter, D., D. L. McLaughlin & D. C. Ribar (1997), "Welfare and the rise in female-headed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1).
- Meyer, D. R. & Cancian, M. (1998), "Economic Well-being Following an Exit from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479-492.
- Nicolas, G. & Baptiste, V. J. (2001), "Experiences of Women on Public Assistance", *Journal of Social Issues*, 57(2), 299-309.
- Pavetti, L. A. (1993), "The dynamics of welfare and work : Exploring the process by which women work their way off welfare", Harvard University Ph. D. dissertaion.
- Pearce, D.(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Feburary, 1978, 28-36.
- Petersen, C. D. (1995), "Female-feaded families on AFDC: Who leaves

welfare quickly and who doesn't", *Journal of Economic Issues*, 29(2).

- Rice, J. K. (2001). "Poverty, Welfare, and Patriarchy : How Macro-Level Changes in Social Policy Can Help Low-Income Women", *Journal of Social Issues*, 57(2).
- Rake, Katherine(2001), "Gender and New Labour's Social Policies", *Jul Soc. Pol.*, 30, 2, 209-231.
- Rank, M. R. & Cheng, L. C. (), "Welfare Use Across Generations: How Important Are the Ties That Bin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84.
- Scarborough, J. W. (2001), "Welfare Mothers' Reflections on Personal Responsibil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2), 261-276.
- Secombe, K. (1999),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 Welfare Recipients' Perspectives on the System and Its Reform』, Boston: Allyn and Bacon.
- Secombe, K., James D. & Walters K. B. (1998), "They Think You Ain't Much of Noth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Welfare Mo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4), 849-865.
- Strother, P. A. (1995), "Exit from Poverty Processes by Which Female-Headed Households Become Non-Poo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h. D. dissertation.
- Vegdahl, S. B. (2002), "Leaving Welfare: Stories of Struggle and Strength", Portland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 Younes, M. N. (1996), "Three Welfare Recipients : The Journey from Dependency to Self-Sufficiency", University of Nebraska Ph. D. dissertaion.



부 록

1. 부표	197
2. 질문지	198
2. 연구참여 동의서	203



부록 1. 부표

<부표 1> 2003년 상반기 업종별 개별 자활공동체의 영업매출수입

(단위: 만원)

업종	2003년 상반기 총 영업수입	자활공동체수	개별 자활공동체 영업수입
전체	536,474	231	2,322
부업	3,176	12	265
농업및임업	18,138	12	1,512
제조업	74,341	31	2,398
건설업	132,950	36	3,693
도매및소매업	17,406	14	1,243
숙박및음식점업	15,567	6	2,595
통신업, 소포송달업	786	1	786
사업서비스업	40,893	30	1,363
공공, 수리및 개인서비스업	213,239	82	2,600
가사서비스업	19,976	7	2,854

부록 2. 질문지

【빈곤여성용】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 참여자 카드에 기입

- 국기초 참여 이전의 취업 경험
 - 어떤 일을 주로 했었는지 (기간, 일의 내용, 강도, 소득수준, 건강상태, 일에 대한 만족도 등)
 -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가능성/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 국기초 참여와 이전의 취업 경험의 연관성
 - 국기초 참여와 향후 노동시장 진입여부에 대한 생각과의 연관성

- 자활사업단 참여 경험
 -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 /당시 상황, 정서적 상황
 - 자활사업 참여 기간
 - 자활사업단 item 선택 이유
 - 자활사업단에서의 적응과정
 -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경험
 - 자활공동체로 전환한 시점
 -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에 대한 생각
 - 전환의 계기, 전환 결심하게 된 이유, 결심의 과정
 - 전환을 결심하면서 세웠던 계획, 기대
 - 자활공동체로 전환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것
 -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결심 이후의 과정
 -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준비 단계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제공한 도움, 만족도
 -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 자활공동체로의 전환 준비하면서 자활후견기관과 의견 차이, 갈등 등이 발생했던 경험과 해결방법

○ **현재의 자활공동체에서의 경험**

- 자활공동체의 운영상황
- 현재 한달 소득액 (안정성/충분성)
- 운영상에서 어려움 겪는 부분
(예. 영업(판로)/재무회계/기술보수/운영전반/일감 확보/세제혜택 등)
- 대출 상환액,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 (재정부담 등)
- 자활공동체 참여인원
- 이윤 배분방식
- 사업자등록 명의
- 참여자들과의 관계 (민주성 등 - 회의/의사결정구조 등), 역할 분담 (공동체내 역할 분담, 역분의 효율적인 운영), 경영에 대한 참여 및 책임
-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 자활후견기관과의 관계, 제공받은 도움, 만족도
- 자활공동체에서의 근로 상황
- 자활공동체 독립 이후 가장 힘든 점, 버티는 힘 / 이유
- 자활공동체로 독립 이후와 이전 비교 (생활 수준, 일의 강도, 힘든 정도, 성취도, 만족감 등)
- 자활공동체로 전환해서 좋은 점, 나쁜 점
- 자활공동체의 성공 요건

○ **향후 계획**

- 자활공동체로 전환한 것에 대한 만족스러움
 - 자활근로에 참여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떤가
 - 자활공동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지 여부
 - 과거에 노동시장 참여할 때와 비교 시 만족하는가
 - 제도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

- 자활공동체 = 안정된 일자리인가, 안정적인 소득원인가
- 직업으로서의 만족도

- 자활공동체로 성공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 : 건강, 육아, 부양, 가사일 등으로 인한 부담은 어떤가(부담의 정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 자활공동체로 성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실무자용】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자활공동체 현황
 - 조사대상인 자활공동체 현황
 - 사업 아이템
 - 인원, 전환 시점, 당시 창업 재원, 매출액
 - 운영방식 (독립운영/ 기관 개입, 사업자등록, 부채, 교육훈련 등)

- 자활공동체 형성 과정
 - 자활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
 - 자활공동체 형성하면서 (빈곤)여성의 특성을 고려하는 면
 - 자활공동체 담당하면서 실무자로 느꼈던 애로점
(참여자 측면, 제도적 측면, 자활후견기관 측면)
 - 자활공동체로의 준비 및 전환과정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

-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 자활후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자활공동체 전환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의 내용 (시기별로, 초기, 안정기 등)
 -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

- 정책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
- 사회연대은행 등 사후 관리기관, 그 외 관련 기관들과의 역할 분담
- 참여자들과의 갈등 발생 경험(갈등의 내용, 해결방법)
-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고취, 자활공동체 운영/기술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

○ 본 업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 향후 비전 (사업 성공 가능성)
- 본 업종이 빈곤여성을 위한 대안인가
- 본 업종이 빈곤여성의 탈빈곤을 위해 성공해야 한다면 필요한 정책지원 내용
- 본 업종이 빈곤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 본 업종의 특성에 비춰 볼 때 현행 자활공동체 정책이 갖는 문제점
시장진입을 위한 소규모 공동창업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

- 자활공동체 성공을 위해 일반인이나 차상위 등의 참여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 인건비, 물적 조건 지원 중심의 지원 정책에 대해
- 단계적 발전의 전제에 대해
- 생산 협동조합 모델에 근거한 자활공동체에 기반한 정책방향에 대해
- 업종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현행 지침의 실효성
- 실제 참여자들의 욕구에 비춰볼 때의 문제점, 가장 필요한 부분
- 최근의 사회적 기업 논의에 대해(본 업종에의 적합성/보완사항)

○ 빈곤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공동체를 위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

- 자활공동체가 갖는 여성참여자의 탈빈곤의 도구로서의 가능성, 한계
 - 빈곤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이고 사회적 가치 낮아, 저임금 노동집약적 사업이 주류, 결국은 비주류되는거 아닌지,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하는 거 아닌가
 - 빈곤여성에게 노동시장 대체로서의 가능성 있다? 안정된 일자리?
 -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 아이템이 성역할 연속선에 있다는 논란에

202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대해 : 인력과견업 중심이 현실적 ?

- 자활공동체에서 빈곤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할 전략

- 향후 자활공동체의 정책 방향

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제목** :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을 중심으로
- **연구자** : 황정임(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연락처 : 016-265-8902
 송치선(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전지현(한국여성개발원 위촉연구원)

본 연구는 자활공동체 참여여성의 경험을 통해 자활공동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활공동체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약 60-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익명으로 인용될 겁니다.

본인은 면담에 자의로 참여하고,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연구가 끝난 후에도 녹음내용이 폐기될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발간되더라도 본인의 이름이 연구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며, 이 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5년 월 일
참여자 : _____

2005 연구보고서-11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2005년 12월 28일 인쇄
200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대)

<정가 7,000원>

ISBN 89-8491-137-2 93330